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6. 2. 4(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1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공개
2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
3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
4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
5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
6	익재난고 권6~7	〃
7	역옹패설	〃
8	퇴계선생문집	〃
9	퇴계선생문집 목판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10	보물 제1168호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및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국외반출 허가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11	국보 제164호 '무령왕비 베개' 현상변경	공개
12	국보 제165호 '무령왕 발받침' 현상변경	〃
13	국보 제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청동팔주원령 현상변경	〃
14	보물 제339호 '서봉총금관' 현상변경	〃
15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
【검토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6	서경우·서문중 초상 및 함	공개
17	은제도금화형탁잔	〃
18	동의보감	〃
19	언해두창집요 권상	〃
20	주역참동계	〃
21	장흥 천관사 석등	〃
22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
23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6-01-001

1.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魯英 筆 阿彌陀如來九尊圖·高麗 太祖 曇無竭菩薩 禮拜圖)

가. 심의사항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의(8.23)를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魯英 筆 阿彌陀如來九尊圖·高麗 太祖 曇無竭菩薩 禮拜圖)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21.0×12.0
○ 재　　질: 나무판에 흑칠금니선묘화
○ 제작연대: 1307년(충렬왕 3)
○ 제 작 자: 노영(魯英)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이 작품은 흑칠한 나무바탕에 금니로 그린 금선묘 불화로서, 1307년에 魯英이 제작하였다. 아랫면에 받침촉이 있으므로 받침대에 세워놓았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금선묘를 사용하여 그리는 이와 같은 기법은 고려시대 사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필선은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비수가 뚜FUT하여 화사의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화풍은 뚜렷한 윤곽선과 齒形突起, 針形細樹 등에서 대체로 북송대 李郭派畵風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금선묘의 특징은 서역출신으로 唐代에 활약했던 尉遲乙僧의 화풍을 연상시킨다.

고려시대 사경화를 연상시키는 금선묘기법, 뛰어난 필치,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작가와 조성연대가 분명한 점 등에서 이 작품은 고려불화의 편년작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무틀이 휘어져 있고 안료가 박락되는 등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즉 앞면은 중앙부분과 윗부분의 갈라짐이 심하며 향우측 윗부분에는 일부 물감의 박락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뒷면 역시 갈라진 부분이 많다. 또 얼굴과 보발 등에는 마치 아교를 칠한 것처럼 다소 번들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안료가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존처리를 시행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 작품은 나무바탕에 옻칠을 하고 금니로 그린 금선묘 불화로서, 1307년 魯英이 제작한 것으로 아랫면에 받침촉이 있으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금선묘의 필선이 속도감 있으면서 도 굵기가 다른 선으로 화사의 뛰어난 기량을 엿보인다.

화풍은 뚜렷한 윤곽선과 齒形突起, 針形細樹 등에서 대체로 북송대의 李成과 郭熙에 의해 이룩된 李郭派畵風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금선묘는 서역출신 위지을승(尉遲乙僧)의 화풍과도 유사하다.

고려시대 금니사경화를 보는 듯한 금선묘기법의 활달한 필치, 금니이면서도 작품의 완성도가 높음은 물론 조성작가와 조성연대가 분명한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틀이 휘어져 있고 화면의 표면 옻칠의 갈라짐과 안료 일부에 박락이 보이는 등 보존상태가 열악한 편으로, 시급히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이 작품은 1307년 작가 노영이 나무판에 흑칠을 하고 그 위에 금선묘로 그린

고려후기 불화의 기준자료이다. 화면의 정면에는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를, 그리고 뒷면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는 금강산 신앙과 관련된 일화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며, 이는 당시 유행했던 금강산 신앙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면에 표현된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는 엄격한 상하 2단 구도, 섬세하고 우아한 귀족적인 인물표현과 유려한 선묘, 단아한 형태미를 기반으로 하는 고려불화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후면의 고려 태조의 금강산 배재(拜岾) 장면에서는 일반회화 작품이 거의 없는 고려시대 산수화풍을 읽을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더욱이 여기서 보이는 금강산의 표현은 조선후기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불화에서 검은 바탕에 선묘로 그린 기법과 테두리에 금강저를 문양을 시문한 형태 등은 전반적으로 고려 사경변상도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경화와 선묘불화의 절묘한 만남도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노영이라는 작자와 1307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그리고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 고려태조 금강산 배재도, 지장보살도 등 도설내용이 모두 밝혀진 고려불화의 절대 기준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명칭은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로 함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이 작품은 나무바탕에 흑칠을 하고 금니로 그림을 그린 불화로서, 세로 22.5cm, 가로 13cm, 두께 1cm의 목판 위에 黑漆을 한 뒤 金泥로 앞면에는 아미타구존도, 뒷면에는 曇無竭菩薩禮拜圖와 地藏菩薩圖를 그렸다. 목판의 가장자리는 앞면과 뒷면 모두 고려시대 經變相圖에서와 같이 좌우 각각 3개, 상하 각각 2개 등 총 10개의 金剛杵문양으로 테를 둘러 장식하였다.

앞면에는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과 여덟 보살을 구불구불한 금니의 섬세하고 거침없는 필선으로 묘사하였다. 화면 상부에 그려진 아미타불은 커다란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대좌 위에 結跏趺坐하였는데, 오른손은 어깨부근으로 올려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첫째와 셋째손가락을 맞대어 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두광과 신광의 내부는 모두 구불구불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가장자리는 연꽃잎으로 장식되었고, 광배 밖으로는 꽃과 구름 문양으로 가득 채워 화려함을 더하였다.

아미타보살의 무릎 아래로는 여덟 보살이 중앙을 향해 시립하고 있다. 아래줄 중앙에는 敝(두개의 弓자가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양)를 든 대세지보살과 버들가지를와 鉢을 든 관음보살이 서로 마주 서 있고, 그 옆으로 劍을 든 문수보살과 如意를 든 보현보살이 서있다. 윗줄 중앙에는 金剛杵를 든 금강장보살과 칼을 비스듬히 들고 있는 제장애보살, 그 옆으로는 두 손에 연꽃봉오리를 받쳐 든 미륵보살과 보주를 든 지장보살이 배치되었다. 아미타불과 여덟 보살 모두 얼굴과 손, 발 등 육신부는 금으로 칠하였으며, 옷자락과 보관 등은 금선묘로 처리하였는데, 얼굴은 둥글고 살이 많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여기에서 처럼 아미타불과 여덟보살을 함께 묘사하는 아미타구존도의 도상은 不空이 번역한 『八大菩薩曼荼羅經』이라는 밀교경전에 의거한 것으로, 경전에서는 신속하게 菩提를 얻기 위해서는 觀自在(관음)·慈氏(미륵)·虛空藏·普賢·金剛手·曼殊室利(문수)·除蓋障(제장애)·地藏 등 팔대보살의 만다라를 건립하여 공양해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팔대보살의 형상과 지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관자재보살은 왼손에 연화를 쥐고 頭冠에는 無量壽如來가 있으며, 자씨보살은 오른손에 淨甁(軍持), 허공장보살은 가슴 앞에서 왼손에 敝을 쥐고 있으며, 보현보살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고 한다. 또 금강수보살은 오른손에 金剛杵, 만수실리보살은 왼손에 금강저가 놓인 연화, 제개장보살은 왼손에 如意, 지장보살은 왼손에 拓鉢을 들고 오른손이 감싸고 있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 여덟보살의 지물이 경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전에 기록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나타나는 허공장보살 대신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것은 고려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뒷면은 화면을 2분하여 상단에는 왼쪽에 보살이 하강하는 모습, 오른쪽에 거친 암산과 한 인물이 보살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 하단에는 지장보살과 3인의 인물을 그렸다. 상단에는 뽀족한 암산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구불거리는 금선묘의 능숙한 필치로 보살이 8구의 천인들을 거느리고 하강하는 모습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암산은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즐비한 것으로 보아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 틀림없으며, 산속 평평한 대지 위에는 보살을 향해 엎드려 예배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앞에는'太祖'라고 적혀있어 고려 태조가 금강산 拜岾에서 담무갈보살(法起菩薩)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는 설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단에는 커다란 신광과 두광을 두른 지장보살이 반가좌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 지장보살은 승형에 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왼발을 내려 연꽃대좌 위에 대고 거친 암석 위에 앉아있다.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투명한 보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대어 내렸는데, 구불거리는 금선묘의 묘사로 인해 역동감이 느껴진다. 지장보살의 왼쪽에는 한 인물이 지장보살을 향하여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 그 옆에 魯英이라 적혀 있다. 이 인물은 그 모습으로 보아 승려는 아닌 듯하며 속세의 인물로 여겨진다. 또 보살의 오른쪽 아래 맞은 편 절벽에도 예배하는 두 인물이 그려져 있다. 승려상은 앉아서 합장한 자세, 선비차림의 인물은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엎드려 절하는 선비 앞에는 祿始라는 명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작품의 가장자리(周額) 바닥면에 돌출된 두 개의 촉 사이의 바닥면에는 "大德十一年八月 日 謹畵魯英同願□□□ (대덕11년 8월에 노영이 삼가 그리고 □□□가 함께 발원하였다)."라는 명문이 적혀있어 1307년 8월에 노영이 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린 노영은 아미타구존도를 그린 뒤 20년 후인 1327년에 강화도 禪源寺 毘盧殿의 벽화와 단청을 그릴 때 班頭(그 항렬의 우두머리)로 활약했던 화사이다. 「禪源寺毘盧殿丹靑記」(釋 息影菴 著, <東文選> 卷之六十五 수록)에 의하면 대덕년간에 선원사가 화재를 당하여 몇 년 뒤에 복구되었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였다가 □菴和尙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그의 문인 全忍에게 돈을 맡기어 송나라에 가서 채색을 사오게 하니 1324년 전인이 돌아와 이듬해 동서벽에 四十神衆을 그렸다고 한다. 또 다음해에 雲峰이 주지로 부임하여 전당을 증축한 후 단청불사를 하였는데, 동서벽은 山人 鶴仙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즈음 노영이 가세하여 운봉화상이 장엄해 놓은 전당의 전체장엄을 맡아 1327년 드디어 낙성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노영이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선원사 비로전의 단청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光明天宮이 忉利天에서 줄을 달아 내려놓은 듯 했다"라는 표현을 보아 장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영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圖畵院 소속의 정식화원이었는지 혹은 그림에 보이는 寫經畵와의 관련성으로 보아 寫經院에 소속된 화원이었는지, 또는 승려화가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선원사 비로전 단청불사시 반두라는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佛事 시 책임자로서 활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ㅇ 조사내용

-세로 22.5cm, 가로 13cm, 두께 1cm의 목판 위에 黑漆을 한 뒤 앞 ·뒷면에 金泥로 阿彌陀九佛尊圖와 地藏,曇無竭菩薩禮拜圖를 그린 흑칠 금니 불화로서, 목판 가장자리에는 앞 . 뒷면 모두 고려시대 經變相圖에서와 같이 좌우에 3개씩, 상하에 2개씩 총 10개의 金剛杵 문양을 둘러 장식하였다.

-구불구불한 금니의 섬세하고 거침없는 필선으로 묘사한 아미타구존불도는 앞면에 그렸으며 뒷면에는 지장보살과 담무갈보살예배도를 그렸다.

앞면의 아미타구존불도는 화면을 상하 2단 구도로 나누어 위쪽에 아미타불을 크게 그렸는데, 커다란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通肩의 法衣를 착용하고 대좌 위에 結跏趺坐하고 앉아 있다. 오른손은 어깨 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

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아미타불의 두광과 신광의 내부는 모두 구불구불한 빛을 가득 차게 그리고 가장자리는 연꽃잎으로 장식하였으며, 광배 밖으로는 꽃과 구름 문양을 가득 채워 화려함을 더 하였다.

-본존불 아래쪽에 2단으로 그린 팔대보살들은 마치 아미타불을 떠받치는 것과도 같이 배치되었는데, 모두 측면으로 몸을 살짝 돌리어 중앙을 향해 시립하고 있는 측면향으로서 얼굴이 갸름하게 묘사되었다.

아랫줄 중앙의 좌측(向右) 보살은 관음보살로 왼손에 鉢을 받쳐 들고 오른손으로 버들가지를 잡고 있으며, 이와 마주 서 있는 우측(向左) 보살은 대세지보살로 合掌(두개의 弓자가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양)를 들고 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劍을 든 문수보살과 如意를 든 보현보살이 서 있다.

윗줄 중앙에는 金剛杵를 든 금강장보살과 칼을 비스듬히 들고 있는 제장애보살, 그 양옆으로는 두 손에 연꽃봉오리를 받쳐 든 미륵보살과 보주를 든 지장보살이 배치되었다.

아미타불과 팔대보살 모두 얼굴과 손, 발 등 육신부는 금으로 칠하였으며, 옷자락과 보관 등은 금선묘로 처리하였는데, 모두 턱이 갸름하니 둥근 얼굴에고 살이 많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렇듯 관음보살의 지물이 정병 대신 발과 버들가지를 든 예는 고려시대 아미타구존불도 중 이 작품과 동경예술대학 소장 아미타구존불도 뿐이다.

-여기에서처럼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을 함께 묘사하는 아미타구존불도의 도상은 不空이 번역한 『八大菩薩曼荼羅經』이라는 밀교경전에 의거한 것으로, 신속하게 菩提를 얻기 위해서는 觀自在(관음)·慈氏(미륵)·虛空藏·普賢·金剛手·曼殊室利(문수)·除蓋障(제장애)·地藏팔대보살의 만다라를 건립하여 공양해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팔대보살의 형상과 지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관자재보살은 왼손에 연화를 쥐고 頭冠에는 無量壽如來가 있으며, 자씨보살은 오른손에 淨甁(軍持), 허공장보살은 가슴 앞에서 왼손에 合掌을 쥐고 있으며, 보현보살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고 한다. 또 금강수보살은 오른손에 金剛 杵, 만수실리보살은 왼손에 금강저가 놓인 연화, 제개장보살은 왼손에 如意, 지장보살은 왼손에 拓鉢을 들고 오른손이 감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듯 팔대보살의 지물이 경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나타나는 허공장보살 대신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것은 고려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뒷면의 그림은 '노영(魯英)이 그렸다'는 관지(款識)가 적혀 있으며, 위아래가 각각 다른 그림으로 두 장면을 한 화면에 담은 특이한 형식이다. 상단에는 왼쪽(向右)에 보살이 8구의 천인들을 거느리고 하강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오른쪽(向左)에 거친 암산과 그 아래로 한 인물이 보살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하는 모

습, 그리고 하단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오른쪽(向左)에 3인의 인물을 그리고 왼쪽에 지장보살을 향 하여 엎드려 있는 1인의 인물상이 묘사되어 있다.

-상단 오른쪽의 험준한 산악 그림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듯하나 뚜렷한 윤곽선과 치형돌기(齒形突起)의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즐비하고 침형세수(針形細樹) 등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아 금강산을 묘사한 것 이 틀림없으며, 산속 평평한 대지 위에 보살을 향해 엎드려 예배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앞쪽에 '太祖'라고 적혀있어 고려 태조가 금강 산 拜岾에서 담무갈보살(法起菩薩)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는 설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담무갈보살은 구불거리는 금선묘의 능숙한 필치로 하강하는 모습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뾰족뾰족한 암산이 금강산이며 방광보살은 담무갈보살이라는 것은 『東國與地勝覽』 제47권 희양(淮陽). 정양사조(正陽寺條)의 다음과 같은 전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正陽寺 : 표훈사의 북쪽에 있으니, 즉 이 산의 正脈이다. 그런 까닭에 정양사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지대가 높고 트여서 산 안팎의 여러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모두 보인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고려 태조 가 이 산에 오르니, 曇無竭이 돌 위에 몸을 나타내어 광채를 발산하 였다. 태조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頂禮한 뒤에 이어 이 절을 창건하였다" 한다. 그런 까닭에 절 뒤의 언덕을 放光臺라 하고, 앞의 고개를 배재(拜岾)라고 한다. 또 진헐대(眞歇臺)가 있다."

위의 설화로 보아 정양사는 금강산의 대표적 사찰로 고려 태조가 이곳에 올라왔을 때 법기보살이 현신하여 石上에서 放光을 하였고, 이 에 감격한 태조가 정양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또 拜岾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拜岾 : 금강산 서쪽에 있다. 부와의 거리는 1백 64리이다. 李穀의 <東遊記>에 "至正 기축년 가을에 금강산을 유람하려고 천마령(天磨嶺)을 넘어서 산 아래 장양현에서 자고, 아침 일찍 잠자리 위에서 식사를 한 뒤에 산에 오르니, 구름과 안개가 덮여 어두컴컴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악(楓嶽)을 유람하는 이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하니, 같이 유람하는 자들이 다 근심스런 빛으로 묵묵히 기도를 하였다. 산에서 5리쯤 되는 곳에 이르자, 검은 구름이 차츰 엷어지면서 햇빛이 새어 나오더니, 배재에 올랐을 때에는 하늘도 밝고 기운도 맑아서 산이 밝기가 닦아 놓은 것 같았다. 이른바 1만 2천봉을 낱낱이 셀 수 있을 듯하였다. 이 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재를 지나게 되는데, 재에 오르면 산이 보이고, 산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마를 조아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배재(拜岾 절하는 고개)라고 한 것이다."

위의 <동유기>의 내용으로 보아 배재에 오르면 금강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며 절하는 고개라 하여 배재라고 했

다는 것이다.

-암산 하단으로는 커다란 신광과 두광을 두른 지장보살상이 반가좌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승형 머리에 通肩의 法衣를 걸치고 왼발을 내려 연꽃 대좌 위에 대고 거친 암석 위에 앉아있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투명한 보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대어 내렸는데 구불거리는 금선묘로 인해 역동감이 느껴진다. 지장보살상의 왼쪽(向右)에는 머리에 건을 쓰고 있는 한 인물이 지장보살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옆에 '魯英'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을 그린 인물이 자신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인물은 복장 등의 모습으로 보아 승려는 아닌 듯하며 속세의 인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장보살상 오른쪽(向左) 아래 맞은 편 바위 위에는 예배하는 두 인물이 그려져 있다. 승려상은 앉아서 합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선비차림의 인물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선비 앞에 '祿始'라는 명문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작품의 가장자리(周緣) 바닥면에 돌출된 두 개의 촉이 있고 사이 바닥면에 **'大德十一年丁未八月日 謹畵魯英同願福得付 金漆書'**라는 발원 명문이 있어, 이 불화는 충렬왕 33년인 1307년 8월에 노영이 삼가 그리고 함께 복덕을 발원해서 옻칠 위에 금으로 썼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 조성연대가 확실한 아미타구존불도 중 가장 이른 작품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하단의 지장보살도 오른쪽에 두 줄의 금선으로 네모 칸을 만들어 발원자들의 이름을 써 넣은 부분이 있다. 두 겹의 테두리를 두른 뒤 그 안쪽에 **'同願 金宣甲良成幹○惠朴益松'** 라고 적혀있는데 시주자의 인원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략 3~4명 정도로 생각된다. 촉 아래 부분의 명문에 함께 복덕을 발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기에 적힌 사람들은 시주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노영은 이 아미타구존불도 및 지장.담무갈보살예배도를 그린 뒤 20년 후인 1327년에 강화도 禪源寺 毘盧殿의 벽화와 단청을 그릴 때 '班頭'로 활약했던 화사로서, 기록은 『동문선』 제65권 禪源寺毘盧殿丹靑記에 등장한다. 이 기록은 1327년 무신정권기 최우의 원찰이었던 강화도 거찰 선원사 비로전에 단청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단청을 진행했던 화사에 대한 부분이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대덕년간에 선원사가 화재를 당하여 몇 년 뒤에 복구되었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였다가 □菴和尙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그의문인 全忍에게 돈을 맡기어 송나라에 가서 채색을 사오게 하니 1324년 전인이 돌아와 이듬해 동·서벽에 四十神衆을 그렸다고 한다. 또 다음해에 雲峰이 주지로 부임하여 전당을 증축한 후 단청불사를 하였는데 동·서벽은 山人 鶴仙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즈음 노영이 가세하여 운봉화상이 장엄해 놓은 전당의 전체장엄을 맡아 1327년 드디어 낙성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볼 때 노영이 그린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록 중에 “可駭也。疑若光明天　宮。從忉利　縋下 ; 光明天宮이 忉利天에서 줄을 달아 내려놓은 듯 했　다, … … 班頭魯英畫屋。山人鶴仙畫東西壁。某畫北壁” 이라는 내용을 보아 매우 뛰어난 그림이었다는 것과 그 때의 직책이 ‘班頭’ 였음을 알 수 있다. ‘班頭’ 는 『조선왕조실록』에 사용되었던 의미에 따르면 어떤 직급이나 무리의 우두머리인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화사 그룹의 수장인 수화승의 의미로 사용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노영이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선원사 비로전의 단청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노영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圖畵院 소속의 화원이었는지 혹은 寫經院에 소속된 화원이었는지, 또는 승려화가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선원사 비로전 단청불사 시 ‘반두’ 라는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佛事 시 책임자로서 활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ㅇ 조사내용

이 작품은 얇은 나무판에 옻칠을 한 뒤 金線으로만 그린 金線描 불화이다. 전체 크기는 21.0×12.0cm 정도이며, 표면이 S자형으로 휘어져 있어 현재 틀잡이로 고정하고 있다. 화면은 두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아미타구존도를, 뒷면에는 작자인 노영이 직접 지장보살에게 정례하는 장면과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재에서 담무갈 보살을 예경하는 장면 등 두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담아내었다. 나무판의 하단부에는 두 개의 촉을 달아 받침대에 꽂아 앞뒤의 불화를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촉이 달려 있는 아랫면에는 “大德十一年丁未八月日謹畵魯英同願福得付 金漆書”라는 명문을 써놓았는데, 이를 통해 이 그림은 1307년(충렬왕 3)에 노영이라는 화가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무판의 앞면에는 아미타여래를 비롯한 8대보살을 그렸다. 화면은 크게 이등분하고 상단에는 원형의 광배를 갖춘 아미타여래를 다른 존상들에 비해 크게 묘사하여 존격을 부각시켰고, 하단에는 좌우대칭을 이루며 2열로 도열한 팔대보살을 배치하였다. 팔대보살들은 중앙으로 몸을 틀어 측면관을 취하고 있으며, 하단 첫 열은 중앙 좌우부터 보관에 화불을 갖춘 관음보살을 비롯하여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금강저), 제장애보살(여의), 한단 2열은 중앙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칼), 그리고 미륵(용화), 지장(두건, 보주)보살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윗 단에 표현된 문수·보살은 연화대좌를 딛고 선 한쪽 발이 드러나 있는 점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본존과 협시의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구분지은 2단 구도는 고려시대 제작된 삼존 또는 군도 형식의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아미타여래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고, 두·신광 내에는 불신에서 뿜어내는 무한 광명을 파형으로 표현하였으며, 광배의 테두리에는 불꽃을 표현하여 불법의 영원함을 표현하였다. 머리모양은 두 개의 능선을 가진 봉우리와 한 개의

봉우리를 중첩시키고, 겹쳐지는 중간에 계주를 집어 넣어 마치 해가 떠오르는 모양처럼 표현하였다. 이러한 머리스타일은 1306년작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아미타여래도나 1309년작 우에스기신사(上杉神社) 소장 아미타삼존도 등 고려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머리의 표현방식이다.

법의는 간다라식 통견착의법이며, 주름은 탄력 있는 세밀한 선을 사용하였다. 특히 흘러내린 소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 등은 유연하고 구불구불한 과장된 선으로 처리한 점은 서역 출신으로 당대에 활동했던 승려화가 尉遲乙僧의 화풍을 연상시키며, 또한 송대에 제작된 나한도나 고려후기의 사경화나 불화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묘를 확인할 수 있다.

광배 주위로는 구름을, 빈 하늘에는 흩날리는 보수(寶樹) 잎을 그려 넣어 아미타정토회상의 정취를 고조시켰다. 외곽 테두리에는 삼고저의 금강저와 만다라문을 반복하여 시문한 점은 사경변상도와 유사한 면이 강하다. 이외 왼쪽 어깨 아래로 고불고불 거리며 흘러내린 옷 주름을 겹Ω형처럼 주름 잡은 모습도 고려 후기 불화나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8대 보살의 신체는 늘씬하게 묘사되었으며,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구불구불 율동적인 주름으로 처리한 천의와 군의를 걸쳤고,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이 길게 드리워져 특징이 있다. 신체는 늘씬하게 묘사되었으며, 얼굴과 손, 발, 가슴 등은 금칠하였으며, 법의는 금선으로 처리하였다. 보발은 청색 등 다른 색으로 칠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칠이 박락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뒷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표현되었다. 화면은 상·하단으로 구분하고 상단에는 태조가 등극하기 전 금강산 배재(拜帖)에서 담무갈보살을 찾아 가 정례했다는 전설과 하단에는 노영과 발원자들이 지장보살에게 예경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재에서 담무갈보살에게 정례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 淮陽都護府 佛宇 正陽寺條에 나온다. 이 기록에는 “고려 태조가 이 산에 오르니, 담무갈이 돌 위에 몸을 나타내어 광채를 발산하였다. 태조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頂禮한 뒤에 이어 이 절을 창건하였다. 그런 까닭에 절 뒤의 언덕을 放光臺라 하고, 앞의 고개를 拜岾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림의 내용과 꼭 일치하여 고려 태조의 배재 전설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稼亭集』第5卷 東遊記에는 “태조가 정양암을 창건하고 그곳에 법기보살(담무갈보살)의 존상을 봉안하였다”라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금강산 배재 전설을 뒷받침 하며, 나아가 고려 태조의 금강산 법기보살(담무갈보살)에 대한 신앙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너럭바위 위에 엎드려 정면의 보살상을 향해 정례하고 있는 사람은 명문대로 고려 태조로 볼 수 있으며, 두건을 쓰고 여의를 들고 광명을 발하며 우뚝 서 있는 보살상은 곧 담무갈보살으로 해석된다. 담무갈보살의 앞쪽에는 여덟 구의 권속이 정례하고 있는 태조를 그윽하게 내려 다 보고 있는 모습인데, 담무갈보살의 1만 2

천 권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담무갈보살에 대한 신앙은『화엄경』에 근거하는데, 『화엄경』 諸菩薩住處品에는 사방 팔방과 바다 속에 보살이 상주하며 설법하고 있고, 그 중에 海中 금강산(舊譯 枳怛山)이 있고, 이곳에서는 법기(法起, 舊譯에는 曇無竭)보살이 1천 2백(舊譯에는 1만 2천) 권속을 거느리고 상주하며 설법하고 있다고 설하고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금강산은 담무갈보살의 성지로서 각광을 받아왔고, 태조의 배재 일화도 화엄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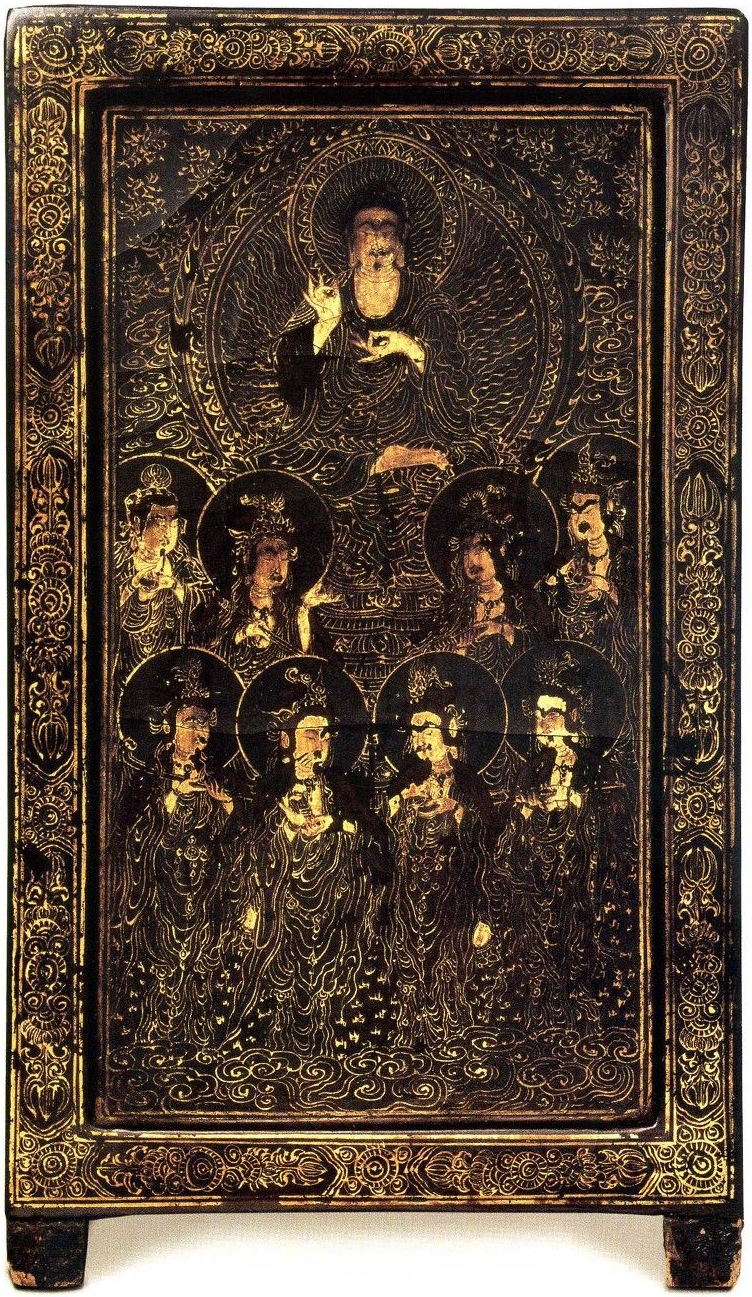
그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면의 상단의 우측 부분은 수직으로 뾰족뾰족하게 솟은 수려하고 험난한 암산, 즉 금강산의 수려한 산세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경은 연무가 어슴푸레 낀 것처럼 가는 선을 흩뿌렸고, 중경과 근경은 암산 둘레를 뭉게구름을 그려 넣어 영험한 금강산의 신비로운 자태를 충만시키고 있다. 수직준으로 표현된 암산은 마치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를 보는 듯하여, 그의 화풍의 전통이 여기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의 뚜렷한 윤곽선과 齒形突起, 針形細樹 등의 세부 모습은 북송대의 이곽파 화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화면의 하단에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춘 지장보살이 바위 대좌 위에 반가좌로 앉았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올려 보주를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내려두었다. 내린 발은 연화족대 위에 올려 놓았고, 주변은 구름으로 처리하였다. 얼굴과 신체는 양감이 풍만하며, 옷 주름은 물결이 흐르듯 유연하고 구불구불 거리는 선묘로 처리하였다. 지장보살의 좌측에는 방란을 마련하고 그곳에 “同願○惠朴益松 金宣申良成幹”이라는 발원자의 이름을 써두었다. 지장보살이 앉아 있는 암좌 아래쪽 좌우측 너럭바위 위에는 마치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을 찾아 합장 정례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지장보살을 향해 합장 정례하고 있는 시·발원자를 표현하였다. 좌측에는 ‘魯英“, 우측에는 ”祿始(加)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 이 그림을 그린 노영과 시·발원자들을 직접 화면에 등장하여 지장보살도에게 정례하는 모습은 상당히 흥미롭다. 다른 고려시대 지장보살도와 달리 금강산을 배경으로 지장보살이 등장하는데, 신라시대 고승 진표율사는 간절한 기도와 투철한 수행으로 지장보살을 현신을 받고, 급기야 미륵으로부터 계법을 전수 받아 금산사와 법주사, 그리고 금강산 발연수 등을 창건한다. 그는 금강산 발연수를 창건하고 그는 지장신앙과 관련있는 점찰법회를 개최한다. 금강산 발연수를 둘러싼 이러한 진표율사의 신앙적 모티프가 산악을 배경으로 하는 지장보살도가 그려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며, 노영 또한 진표율사처럼 지장보살을 통해 그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염원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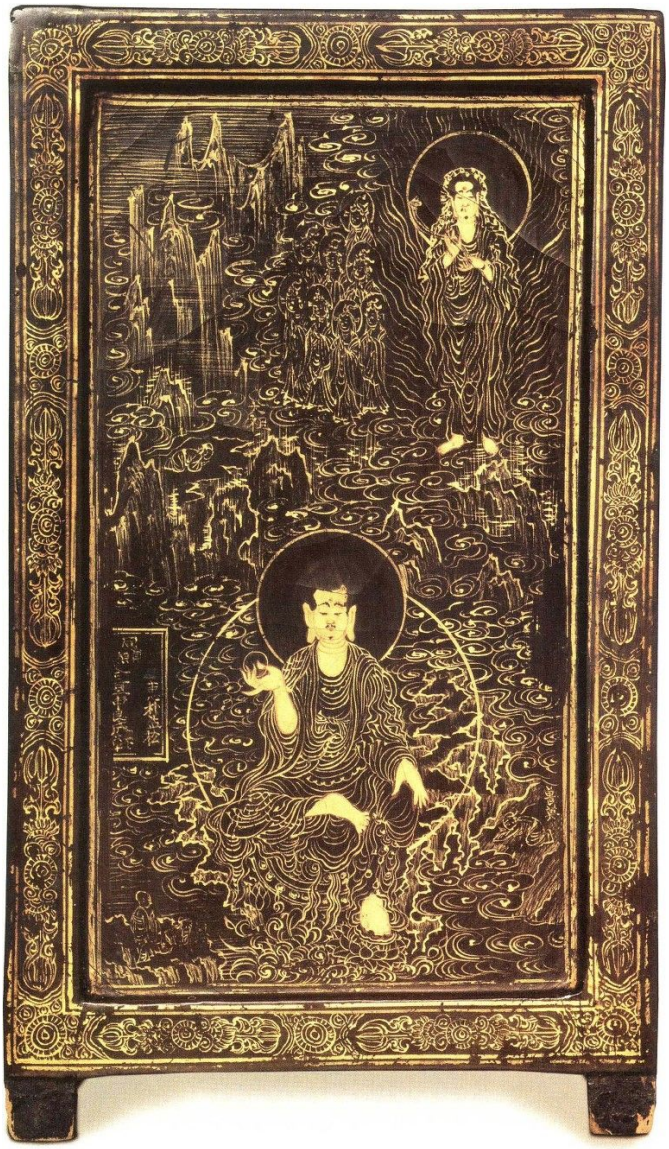
ㅇ 참고문헌

● 文明大, 「魯英의 阿彌陀·地藏佛畵에 대한 고찰」,『미술자료』25, 국립중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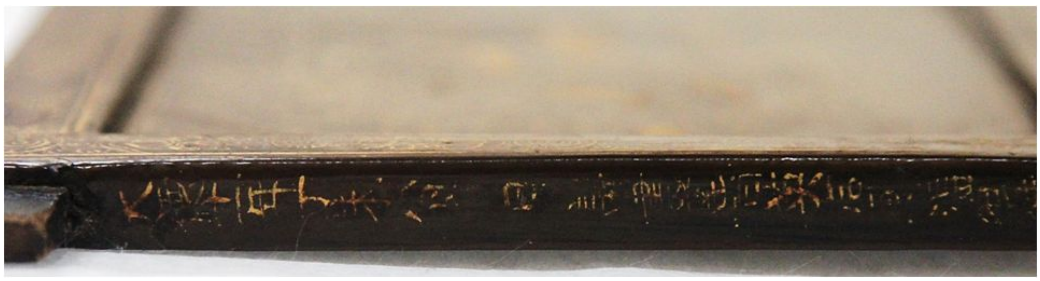
물관, 1979
- 문명대, 「魯英筆 阿彌陀九尊圖 뒷면 佛畵의 재검토 -高麗 太祖의 金剛山拜岾曇無竭(法起)菩薩 禮拜圖」, 『古文化』1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0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앞면), 1307년, 노영, 칠위에 금,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노영 필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뒷면)



바닥면 조성기

안건번호 동산 2016-01-002

2.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求禮 泉隱寺 三藏菩薩圖)

가. 심의사항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14.6.20)되어 관계 전문가의 조사(’15.7.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남 유형문화재 제268호(2005.1.27.지정)
○ 명　　칭: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求禮 泉隱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천은사
○ 소 재 지: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천은사(방광리 70)
○ 수　　량: 1폭
○ 규격(cm): 전체 세로224.5 가로420.0 화면 세로 186.1 가로394.0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1776년(영조 52)
○ 조성화원: 信庵, 來淑, 德箴, 敏徽, 泰閏, 六圓, 幻綜, 泰華 등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776년 수륙재 중단의례용 불화로 제작되어 천은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삼장보살도로서,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 등 세 보살의 회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각 보살은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하고 그 주위에 각각의 권속들이 시립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화면에 비하여 많은 권속들을 표현하면

서도 비교적 여유있는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조선 중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삼장보살도는 16세기 이후 많은 수의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각 보살의 아래 화기란에 권속들의 이름을 적고 있어 삼장보살도의 도상연구에 기준작이 되고 있다. 화기의 명칭에 의해볼 때 권속들의 명칭은 수륙재 의궤집인 『천지명왕수륙재의범음산보집』(1739년) 등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장보살도 도상연구에 기준작이 되고 삼장보살도와 수륙재 의궤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극락보전 아미타후불도와 함께 화승 信庵華連을 대표하는 불화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바탕천 훼손 및 안료 박락이 거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된 존상의 형태 및 섬세한필치와 문양, 화사하고 명랑한 분위기의 화면 처리 등에 있어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특히 화사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색채를 채용하고 자연스럽고 적당한 비례의 신체표현 및 유기적인 화면구성 등에 있어 18세기 중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되며, 또한 각 회상별 권속들의 명칭을 명기해 놓은 유일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조성연대가 1776년으로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천은사 〈삼장보살도〉(1776년)는 극락보전 중단탱으로 봉안되어 있는 횡폭이 매우 넓은 중대형 불화이다. 화면 중앙의 천장보살과 왼쪽(향우측)의 지지보살, 그리고 오른쪽(향좌측)의 지장보살로 구성된 보살 3위를 중심으로, 각 보살의 주위에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다. 천장보살은 좌우협시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을 비롯해 주위에 천부중을, 지지보살은 협시 용수보살과 다라니보살을 비롯해 신중상을, 그리고 지장보살은 협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비롯해 시왕상과 명부권속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같은 삼장보살의 도상구성은 天界·地上界·幽冥界와 같은 삼계신앙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도상구성은 본 작품이 수륙회를 비롯한 죽은 영혼의 천도와 三界六道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식용 불화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삼장보살도는 16세기 일본 新長谷寺 소장 조선 1550년 〈삼장보살도〉를 비롯해 10여점 정도 알려져 있으며, 18~19세기에 이르러 상당수가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 1776년에 제작된 작품이나 대형의 와이드 화면에 도상들이 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기법이

섬세하여 비교적 수작에 속한다.

특히 화면 하단에 기술된 장문의 묵서 화기외에 백서로 천장회상, 지지회상, 지장회상에 속하는 도상의 존명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어 조선후기 삼장보살 도상 연구에 기준작이 되는 매우 주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1776년 천은사에서 조성하여 대법당(大法堂)에 봉안한 삼장보살도로, 신암 화련(信庵 華連), 내숙(來淑), 민휘(敏徽) 등을 비롯하여 14명의 화원들이 제작하였다. 현재 천은사 극락보전의 향우측 벽에 봉안되어 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天藏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지지보살(持地菩薩) 등 세 보살의 회상(會上)을 묘사한 그림. 천장보살은 상계교주(上界敎主), 지지보살은 음부교주(陰府敎主), 지장보살은 유명계교주(幽冥界敎主)로서, 천상과 지상, 지하의 3교주로 신앙된다. 보통 1폭에 삼장보살이 모두 그려지지만 2 또는 3폭으로 나누어 그리는 경우도 있다. 삼장보살에 대해서는 소의경전이 알려진 바가 없어 도상이나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지반(志磐)이 찬술한『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 삼장의궤가 중단의궤로 기록되었으며 원・명대(元・明代)의 수륙화(水陸畵)에 천장・지장・지지보살이 그려져 있어 일찍이 수륙재와 관련되어 새롭게 도상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승려 지환(智還)이 불가(佛家)에서 널리 사용되던 수륙재(水陸齋) 관련 의식집을 모아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冊補集)』에 삼장보살이 중단의궤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외 수륙재관련 불교의례집에도 대부분 삼장의궤(三藏儀軌)가 실려 있는 점을 볼 때 수륙재 중단의궤용(中壇儀禮用)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상단에 천장보살(天藏菩薩)을 중심으로 지장보살(地藏菩薩), 지지보살(持地菩薩)과 권속들을, 하단에는 각 보살의 권속들을 2열로 배치하였다. 상단의 중앙에는 천장보살이 권속들에 둘러싸여 앉아있는데, 천장보살은

연화대좌 위에 이중륜광의 광배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설법인(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천장보살 아래로 왼쪽에는 진주보살(眞珠菩薩)과 대진주보살(大眞珠菩薩)이 협시하고 있고 그 좌우로 일월이 표시된 면류관을 쓴 일월천중(日月天衆)과 그 밖의 권속들이 3열로 늘어서 있으며, 천장보살의 주위로도 여러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다. 삼장보살도의 권속에 대해서는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冊補)』,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작법절차(作法節次)』,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등에 기록되었으나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화기에 묘사된 것처럼 사공천중(四空天衆)과 십팔천중(十八天衆), 육욕천중(六欲天衆), 제성군중(諸星君衆), 오통선중(五通仙衆) 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의 지장보살 역시 이중륜광 광배를 지고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승려머리에 투명한 흑갑사의 두건을 어깨아래까지 넓게 쓰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지장보살의 주위로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상비보살(常悲菩薩), 용수보살(龍樹菩薩),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의 6보살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으나 백의(白衣)에 정병을 든 관음보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구분할 수 없다. 지장보살의 연화대좌 아래에는 왼쪽에 도명존자, 오른쪽에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제1진광대왕(第一秦廣大王), 초강대왕(楚江大王), 송제대왕(宋帝大王, 오관대왕(五官大王), 염라대왕(閻羅大王), 변성대왕(變成大王), 태산대왕(泰山大王), 평등대왕(平等大王), 도시대왕(都市大王),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태산부군(太山府君) 등 시왕과 판관(判官), 귀왕(鬼王), 장군(將軍), 동자(童子), 감재(監齋), 직부(直符) 등이 협시하고 있다. 지지보살은 왼손에 경책(經冊)을 들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지지보살 아래에 용수보살(龍樹菩薩)과 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이 합장하고 협시하고 있으며, 그 주위로 합장 또는 각종의 무기를 든 신중들이 지지보살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화기에 적혀있듯이 제견뢰신중(諸堅牢神衆), 제금강신중(諸金剛神衆), 제팔부신중(諸八部神衆), 제용왕신중(諸龍王神衆), 제아수라중(諸阿修羅衆), 대야차중(大藥叉衆), 나찰바중(羅刹婆衆), 귀자모중(鬼子母衆), 대하왕중(大河王衆)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표현은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작고 가운데로 몰려있는데, 이러한 얼굴표현은 18세기 전라도지역의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의겸(義謙)의 영향이 엿보인다. 주조색은 적색, 녹색, 홍색, 황색을 주로 썼으며 거기에 갈색, 양록색, 주홍색을 간간히 썼는데 권속들의 옷에는 몰골법의 사용도 보인다.

이 불화의 수화승 신암 화련(信庵 華連)은 18세기 후반 전라남도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초기 화풍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759년 전남 곡성 태안사 봉서암 감로왕도 제작에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화련의 작품으로는 태안 봉서암 감로도(1759)와 신중도

(1761), 대흥사 괘불도(1764), 송광사 화엄전 화엄경변상도(1770),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불도(1776)와 삼장보살도(1776) 등이 전하는데, 봉서암 감로도(1759)의 구도와 표현이 의겸이 그린 운흥사 감로도(1730) 및 선암사 감로도(1736)와 유사하여 의겸 화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畵記]
향우측 : 乾隆四十一年丙申八月日敬畫三藏會奉安于南原泉隱寺大法堂」奉爲」主上殿下壽萬歲 大施主秩」孟元比丘郭再守兩主」性覺比丘韓萬芳兩主覺還比丘裵萬福兩主照叔比丘朴時三兩主再贊比丘李千栾兩主性守比丘張漢一兩主達演比丘金萬旭兩主敬叔比丘孫貞雲兩主快心比丘李智英兩主妙仁比丘李碩仁兩主○訓比丘白光純兩主重念比丘李碩華兩主允坦比丘李碩龍兩主震逸比丘鄭思海兩主惠澄比丘王孟元兩主極初比丘王孟官兩主碧虛堂贊彦朴尙雲保体圓應堂義岑持殿學仁比丘緣化秩誦呪證師中庵慕根研察比丘金魚信庵華連泰植比丘來淑比丘允岑比丘德箴比丘洪晶比丘敏徽比丘供養主泰閏比丘念煥比丘六圓比丘典益比丘幻綜比丘有贊比丘泰華比丘快澄比丘有云比丘本言比丘性岑比丘梵恩比丘性闊比丘開心比丘普岑比丘渾敏比丘幸正比丘有心比丘惺鑑比丘」

중앙 : 敎主持地菩薩」左補龍樹菩薩」右補陀羅尼菩薩」諸堅牢神衆」諸金剛神衆」諸八部神衆」諸龍王神衆」諸阿修羅衆」大藥叉衆」羅刹婆衆」鬼子母衆」大河王衆」天藏會上」
敎主天藏菩薩」左補眞珠菩薩」右補大眞珠菩薩」四空天衆」十八天衆」六欲天衆」日月天衆」諸星君衆」五通仙衆」地藏會上」
敎主地藏菩薩」左補道明尊者」右補無毒鬼王」觀世音菩薩」常悲菩薩」龍樹菩薩」陀羅尼菩薩」金剛藏菩薩」虛空藏菩薩」第一秦廣大王」楚江大王」宋帝大王」五官大王」閻羅大王」變成大王」泰山大王」平等大王」都市大王」五道轉輪大王」太山府君」判官鬼王」將軍童子」監齋直符」

향좌측 : 山中大禪師秩 施主秩聖巖敬守敬淑南波覺初桐坡○○靜庵守初昌勤退庵華日爲○肯庵景賢勤○冠谷裕妥一三鳳瑞牢湜慈允時住持如一感海三綱 初一有○眞英典軒宏淑得○前噹秩日還明贊養○法仁勝雲再贊愁○○○永察白○守一西○策英呂察守英此俊典海處善福心贊允允坦抱玄玧琯淨祐達演化主前御抱性桂閑持殿兼別座軟祐華日此寬宏哲都監前御養澄最祐極旻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宇滿持地會上」

□

ㅇ 현 상 및 보존상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어 있는 패널식 불화로서 현재 천은사

극락보전 내에 봉안되어 있으며, 화면 훼손이나 안료 박락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ㅇ 내용 및 특징

-극락보전 내 향우측 단에 모셔져 있는 <삼장보살도>로서 화기 중의 '乾隆四十一年丙申八月日敬畫三藏會奉安于南原泉隱寺大法堂'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건륭 41년인 1776년에 조성하여 남원(지금의 구례) 천은사 대법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로로 길어진 화면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중앙부의 천장보살상 무리(天藏會上)를 중심으로 좌측(향우측)에는 지지보살상 무리(持地會上)를 배치하고, 오른쪽(향좌측)에는 지장보살상 무리(地藏會上)를 자리시켰다.

화면 하단으로는 좌우측 끝부분에 조성시기 및 봉안처를 비롯하여 大施 主秩, 證師, 緣化秩, 金魚, 持殿, 誦呪, 供養主 등을 기록한 화기(향우측)와, 山中大禪師秩을 시작으로 時主持, 化主, 三綱, 持殿兼別座, 都監, 施主秩과 함께 끝부분에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라는 일반적인 발원문이 있는 화기(향좌측)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좌우측 화기 사이 각 회상 하단으로는 별도의 화기란을 마련하여 각기 중심보살상의 좌우 협시보살과 권속들의 명단을 白書로 명기해 놓았다.

-각 회상의 중심보살상은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으며, 하단과 주위로 각기의 협시보살과 권속들을 배치하여 전체로 한 화면을 이룬다.

화면 중앙부의 천장보살은 황색 연화대좌 위에서 앉아 둥근 모양의 녹색 두광과 신광을 두르고 설법인을 짓고 있다. 청색 天衣에 적색 裙衣를 착용하고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쓴 모습으로 무릎 하단으로는 좌협시 眞珠菩薩과 우협시 大眞珠菩薩이 몸을 틀어 정면을 향하여 합장하고 있으며, 주위로 四空天衆, 十八天衆, 六欲天衆, 日月天衆, 諸星君衆, 五通仙衆 등의 권속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천장보살의 좌측으로는 지지보살상이 왼손에 경권을 들고 청색 연화대 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천장보살상과 동일하게 둥근 모양의 녹색 두광과 신광을 구비하였으며, 적색 천의와 군의를 착용하였다. 무릎 아래에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는 협시는 龍樹菩薩(좌협시)과 陀羅尼菩薩(우협시)이며, 주위의 권속들은 諸堅牢神衆, 諸金剛神衆, 諸八部神衆, 諸龍王神衆, 諸阿修羅衆, 大藥叉衆 등으로 중심보살상을 빙 둘러 시위하고 있다.

그리고 천장보살 우측으로는 僧形의 지장보살상이 청색 연화대좌 위에 앉아 석장 없이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으며, 두광과 신광은 천장·지지보살상과 동일한 형태인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지장보살상 주위로는 좌우협시인 道明尊者와 無毒鬼王을 비롯하여 觀世音菩薩, 常悲菩薩, 龍樹菩薩, 陀羅尼菩薩, 金剛藏菩薩, 虛空藏菩薩과 함께 第一秦廣大王을 위시한 10대왕과 太山府君, 判官鬼王, 將軍童子, 監齋直符사자 등의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다.

-각 삼장보살상 및 권속들의 상호는 턱이 둥근 형태의 얼굴에 가늘고 둥근 눈썹,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 가늘고 긴 코, 작고 꽉 다문 입술이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밝은 하늘색과 흰색을 적절히 사용하고 피부색을 밝게 처리함으로써 화사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각 권속들의 표현을 보면 정교하고 치밀하면서도 자연스러워 생동감이 있으며, 각 회상마다 화면 상부에 공간을 두고 뻗쳐 나가는 광선모양의 적·청·황·녹색 구름과 중앙에 蓮花形 天蓋를 두어 화려하면서도 장엄스럽다.

-이 삼장보살도를 조성한 화승은 화기로 보아 수화승 信庵華連의 책임 아래 來淑, 德箴, 敏徽, 泰閏, 六圓, 幻綜, 泰華, 有云, 性岑, 性闊, 普岑, 幸正, 惺鑑 등 13인의 보조화승들이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信庵華連은 삼장보살도와 함께 극락보전 봉안의 아미타후불도(보물 제924호)를 책임 맡아 조성한 화승으로서, 1759년과 1761년에는 곡성 태안사 봉서암의 감로왕도와 신중도를 조성하고, 1764년에는 수화승 色敏과 함께 해남 대흥사 괘불도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1770년에는 수화승으로서 광주 무등산 안심사에서 조성하여 순천 송광사 화엄전에 이운·봉안한 화엄경변상도(국보 제314호)를 조성하는 등 18세기 중후반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의겸' 계열 화승임이 파악된다.

□

ㅇ 현 상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극락보전 중단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비단바탕에 채색을 베푼 패널식의 불화로, 횡폭이 매우 넓은 중대형 작품이다. 횡폭은 비단 10매와 면 1매(추정)를 잇대어 한 화폭을 형성하였다. 화면 가장자리에 과거 도난시 흔적으로 보이는 면도칼 자국이 보이고, 화면 중앙과 하단부에는 촛농 자국이 군데군데 확인된다. 게다가 녹청색 안료의 박락도 눈에 띄나, 전체적으로 화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지 하단의 묵서화기를 통해 乾隆 41년(1776)에 수화승 신암당 華連을 비롯하여 來淑, 德箴, 敏徽, 泰閏, 六圓, 幻綜, 泰華, 有云, 性岑, 性闊, 普岑, 幸正, 惺鑑 등이 함께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1) 화기 및 도상명

<화기>

① 乾隆四十一年丙申八月日敬畫三藏」會奉安于南原泉隱寺大法堂」奉爲」主上殿下壽萬歲」大施主秩」孟元比丘」性覺比丘」覺還比丘」照叔比丘」再贊比丘」性守比丘」達演比丘」敬叔比丘」快心比丘」妙仁比丘」勸訓比丘」重念比丘」允坦比

丘」震逸比丘」惠澄比丘」極初比丘」碧虛堂贊彦」圓應堂義岑」郭再守兩主」韓萬芳兩主」裵萬福兩主」朴時三兩主」李千室兩主」張漢一兩主」金萬旭兩主」孫貞雲兩主」李智英兩主」李碩仁兩主」白光純兩主」李碩華兩主」李碩龍兩主」鄭思海兩主」王盂元兩主」王盂官兩主」朴尙雲保体」緣化秩」證師中庵慕根」金魚信庵華連」來淑比丘」德箴比丘」敏徽比丘」泰閏比丘」六圓比丘」幻綜比丘」泰華比丘」有云比丘」性岑比丘」性闊比丘」普岑比丘」幸正比丘」惺鑑比丘」持殿」學仁比丘」誦呪」硏察比丘」泰植比丘」允岑比丘」洪晶比丘」供養主」念煥比丘」典益比丘」有贊比丘」快澄比丘」本言比丘」梵恩比丘」開心比丘」渾敏比丘」有心比丘」

② 山中大禪師秩」聖巖」敬守」南波」覺初」靜庵」守初」退庵」華日」肯庵」景賢」冠谷」裕妥」鳳瑞」牢混」時住持如一」三綱」初一」眞英」宏淑」前喒秩」明贊」法仁」再贊」永察」守一」策英」守英」典海」福心」允坦」玧琯」達演」化主前御抱性」持殿兼別座軟祐」此寬」都監前御養澄」施主秩」敬淑」桐坡禪心)」昌勤」爲(海)」勤(忍)」一三」慈允」感海」有(天)」典軒」得(寒)」日還」養(遠)」勝雲」愁(雲)○○」白(僧)」西(銀)」呂察」此俊」處善」贊允」抱玄」淨祐」桂閑」華日」宏哲」最祐」極旻」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宇滿」

<도상명>

① 天藏會上」敎主天藏菩薩」左補眞珠菩薩」右補大眞珠菩薩」四空天衆」十八天衆」六欲天衆」日月天衆」諸星君衆」五通仙衆」

② 持地會上」敎主持地菩薩」左補龍樹菩薩」右補陀羅尼菩薩」諸堅牢神衆」諸金剛神衆」諸八部神衆」諸龍王神衆」諸阿修羅衆」大藥叉衆」羅刹婆衆」鬼子母衆」大河王衆」

③ 地藏會上」敎主地藏菩薩」左補道明尊者」右補無毒鬼王」觀世音菩薩」常悲菩薩」龍樹菩薩」陀羅尼菩薩」金剛藏菩薩」虛空藏菩薩」第一秦廣大王」楚江大王」宋帝大王」五官大王」閻羅大王」變成大王」泰山大王」平等大王」都市大王」五道轉輪大王」太山府君」判官鬼王」將軍童子」監齋直符」

안건번호 동산 2016-01-003

3.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求禮 泉隱寺 觀世音·大勢至菩薩坐像)

가. 심의사항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14.6.20)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7.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求禮 泉隱寺 觀世音·大勢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천은사
○ 소 재 지: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천은사(방광리 70)
○ 수　　량: 불상 2구, 발원문 1점
○ 규격(cm): 대세지보살 상높이 96.7, 무릎폭 61.4
　　관음보살 상높이 93.0, 무릎폭 61.3
　　발원문 38×180.5
○ 재　　질: 목조, 견본주서(발원문)
○ 제작연대: 1614년(광해군 6)
○ 제 작 자: 현진(玄眞) 명은(明隱), 의능(義能), 언호(彦浩), 사인(思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후기 1614년 수조각승 현진에 의해 제작된 관음·대세지보살좌상과 승일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좌상으로 이루어진 삼존불상으로서 비록 본존 아미타불좌상과 좌우 협시보살좌상의 조각승은 동일하지 않으나 세 구 모두 조각적으로도 우수하고 조선후기 17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조각승들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조각으로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구례 천은사에 소장되어 있는 2구의 목조보살좌상은 좌보처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여 조각승 현진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들이 1614년 6월에 조성한 불상들임이 밝혀졌다. 조각승 현진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1622년 광해군비인 장열왕후가 발원한 불상들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수조각승으로 활동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선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조각승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7건 17점의 보물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작품성과 학술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 두 보살상은 현진의 초기 경향을 볼 수 있는 수작에 속하며, 조선후기 불교미술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이 두 관음·대세지보살좌상은 천은사 극락전의 주존불의 협시로 조성되어 최근까지 예배되어 온 보살상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14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현진, 명은, 의능, 언호, 사인 등의 조각승, 그리고 당시 불상 제작에 동참했던 사부대중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불상연구에 필요한자료는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불상은 여타 17세기 초반의 다른 불상과 달리 태능과 영원 등의 승려가 큰 원을 세워 조성한 불상이며, 불상 조성을 주도한 승려들은 대선사 선수를 비롯하여 각성, 태능 등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부휴선수 문도들이고 각성은 이후 조선후기 불교중흥 불사에 큰 별과 같은 존재였고, 벽암각성의 스승이자 당대의 최고승 부휴선수가 이 불사의 시주자로 참여할 만큼 이 불사가 갖는 상징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의 상호 표현에 있어서도 17세기 중후반대의 다소 관념적인 모습과 달리 중생의 모습과 닮아 실존감이 있으며, 불신에 사용된 주름도 탄력 있고 긴장감 있는 선묘를 사용하여 불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불상은 등신대의 아담한 크기

이지만 형태는 늘씬하고 장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7세기 전반기 조각과의 양식적 특징과 공통하는 것으로 이 불상을 통해 시대적 미감을 읽을 수 있어서 중요하다.

이 불상은 현진의 1612년 월명암 불상과 상련대 불상에 이어 1614년에 제작된 현진의 초기 작품이자 그의 대표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초기 작품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그 동안 이 불상은 본존불이 결손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보살상에서 보이는 조형적 우수성과 감각적인 표현방식 등은 다른 17세기 초기의 조각 작품들에 비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조각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보살상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명칭은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으로 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구례 천은사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후기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원래는 본존상과 좌우협시보살상의 제작시기와 조각승은 다르지만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삼존불상이다. 협시보살좌상 2구는 대세지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청색 비단에 경명주사로 쓰여진 조성발원문을 통해서 萬曆 42년(1614) 수조각승 현진에 의해 조성된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존 아미타불상은 복장발원문은 잃었으나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조각승 승일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먼저 보살상들의 세부를 살펴보면, 2구의 보살상은 거의 닮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 대세지보살상의 크기가 관음보살상에 비해 3~4cm 정도 크고, 본존아미타여래상의 좌우 협시보살이었으므로 양 손의 수인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세부표현에도 약간씩 차이점이 보인다. 두 구 모두 화려한 보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보관의 앞면은 花紋이 투각된 2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梵字가 양각된 뒷판과 이어져 있으며 일부는 종이, 일부는 동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관의 상부는 화염보주로 장식되었는데, 대세지보살상은 뒷면 중앙판과 보관 아래쪽

의 화문장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보관을 벗으면 반구형의 머리 정상에 그리 높지 않은 보계가 솟아있고 이마 위에 수평한 발제선(髮際線)에는 작고 촘촘한 앞머리가 가지런히 새겨져 있다. 얼굴을 앞으로 숙인 자세 때문에 아래쪽을 응시하는 얼굴은 반듯한 이마, 반개한 두 눈, 비량이 넓은 우뚝한 콧날, 넓은 인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띤 입술, 턱 중앙이 안으로 폭 들어간 표현에서 단엄하면서도 사실적이고 자비로운 상호를 보여준다. 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위에 두 개의 둥근 매듭을 이루며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에는 사선으로 접힌 내의 상단이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살옷은 여래의 가사와 같은 형태로 두 벌을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형식을 보여주며, 그 자락이 오른쪽 어깨위에서 접혀진 주름을 이루면서 흘러 내려온다. 양 손은 別材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손마디가 곧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었으며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 무명지, 왼손 중지 1마디씩이 훼손된 상태이다.

무릎의 높이[坐高]는 전체 신체비례에 비해 낮고 관음보살좌상은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오른쪽 발아래에서 나뭇잎 같은 형태로 길게 늘어져 있어 짧게 새겨진 대세지보살상과 다르다. 보살좌상의 대좌는 상대 앙련좌가 남아있는데, 세 줄의 단판 연잎으로 이루어진 대좌이다. 보살좌상 2구는 가슴과 배, 얼굴 왼편 턱 아래(관음보살상) 또는 등판, 오른쪽 어깨, 배(대세지보살상) 부분에 균열이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고 본존상을 잃은 상태이나 두 구의 보살상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존 아미타불상은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이목구비가 단엄하고 머리는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없이 둥근 球形을 이루며 머리 중앙에 중계주와 머리정상에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체구는 어깨가 넓지 않으며 가사를 두벌 겹쳐입은 이중착의형식으로 옷을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 위에 V자형의 옷단이 새겨져 있다. 가슴에는 내의가 수평으로 나타나며 하체에는 옷자락이 중앙에 넓은 띠주름을 이루면서 늘어져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했다.

ㅇ 내용 및 특징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력 42년(1614)에 조선 후기 17세기전반에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 玄眞이 수조각승을 담당하고 明隱, 義能, 彦浩, 思印의 네 명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佛事였다. 현진은 16세기 후반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161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620~30년대에 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전하는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은 1612년작인 함양 상련대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포함하여 같은 해에 3구가 있으

며 그 다음으로 1614년작인 本 구례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이 전한다.

현진 작풍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른쪽 어깨를 가린 가사(부견의) 복부 중앙에서 대의 속으로 삽입되는데, 삽입되기 직전에 꺾인 주름이 예리한 각을 이루는 점과 불·보살상의 상호가 매우 순수하고 차분한 표정을 보이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삼불좌상(1629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존하는 현진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서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1622년), 법주사 대웅전 소조 삼신불좌상(1626년) 등 여러 구가 전하고 있다.

한편, 본존아미타불상의 조각가로 생각되는 승일은 1620년대부터 활약이 보이는데,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현진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조성 때에 冶匠을 맡은 것이고, 조각승으로는 현진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창녕 관룡사 삼불좌상(1629년) 조성 때 제 2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이다. 승일이 수조각승을 맡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작품으로는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46년)이 알려져 있는데, 모든 면에서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의 본존상과 매우 유사하여 이 상 또한 같은 시기의 승일에 의해 제작된 불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ㅇ 문헌자료

송은석,「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美術資料』70, 2004.

송은석,「求禮 泉隱寺 修道庵의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考察」,『불교중앙박물관 2007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 2007.

문명대,「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講座美術史』29, 2007.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敎彫塑 -』, 양사재, 2007.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ㅇ 현　　상

求禮 泉隱寺의 명월료에 보관 중인 <목조이보살좌상>은 원래는 같은 명월료에 보관 중인 불좌상과 함께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라 한다. 좌보처보살상의 복장으로부터 발결된 복장발원문의 기록에 의해 조각가 玄眞과 1614년의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상이다. 발원문은 조선시대 불상 복장의 기준이었던『造像經』의 규정에 따라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발원문 기록에 상응하는 불상은 좌보처보살상과 우보처보살상만이며, 주존으로 봉안되었던 아미타불상은 이 두 보살상과 달리 17세기 중엽 승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보살상의 원래 봉안처가 어디인지를 발원문이나 조성기를 통하여 확인

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존이었던 아미타불상은 복장구 뚜껑의 묵서에 의해 천은사의 산내 암자인 內院庵에 봉안되었던 불상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즉, 천은사에 봉안되었던 이들 세 존상은 주존(고 81cm)은 내원암에 봉안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천은사 극락전으로 옮겨져 좌우 보처보살상(고 95cm, 97cm)과 함께 삼존을 이루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내용 및 특징

내원암에서 이안된 아미타불상은 현재 명월료에 함께 보관되어 있는 또다른 아미타불상(승일, 1646년), 대세지보살상(승일, 1646년)과 똑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아미타불상과 대세지보살상은 1646년 천은사 산내 암자인 修道庵에 봉안되었던 불상들로서, 내원암의 아미타불상도 수도암의 두 불상과 함께 1646년에 승일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최근까지 천은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던 세 존상 중 아미타불상은 1646년 승일에 의하여 조성되어 내원암에 봉안되었던 불상이며, 좌우 보처보살상은 1614년 현진에 의하여 조성되어 소재 불상의 사찰에 봉안되었던 보살상으로, 어느 때인가 천은사 극락전에 함께 봉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의 크기가 좌우보처상이 95-7cm이고 주존상이 81cm로 비례가 맞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봉안되었기 보다는 20세기에 들어 조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보살상의 존명은 확정하기 어렵다. 원래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던 상인지 확실하지 않고, 도상학적 지표가 남아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보살상들의 보관에 화불이나 정병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물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두 보살상은 좌보처 보살상의 腹藏發願文의 기록에 의해 전형적인 현진 작풍이 확립되기 이전의 초기작임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1620-30년대에 제작된 현진 불상들이 넓적한 얼굴과 장대한 신체가 표현된 것과 달리, 얼굴은 폭이 좁고 길며 턱이 뾰족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 장식이 단순하고 위로 높이 솟은 보관 은 조선 전기인 15-16세기의 보관 형태에 가깝다. 위쪽 끝의 뾰족한 부분마다 불꽃 모양의 장식이 달린 점은 17세기 전반기의 보관과 비슷하지만, 보관을 장식하고 있는 단순한 투조의 꽃무늬는 좀 더 전통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천은사 보살상들의 보관은 높이가 높고 화염문을 위주로 한 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1603년에 廣圓 등이 제작한 安城 靑龍寺 <소조석가삼존불좌상>의 보살상 보관과 비슷하지만, 진주 靑谷寺 보살상(1615년), 부여 無量寺 보살상(1633년), 대구 桐華寺 보살상(1629년) 등 보관 상부의 테두리에 불꽃 장식이 있고, 구름, 봉황, 꽃 등이 내부에 조각되어 있는 1610년대 후반 이후에 현진에 의해 제작된 보살상들의 보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왼쪽 어깨 측면의 대의 주름은 관음보살상의 경우 이 상을 조각한 조각승 현진이 1612년 제작한 함양 상련대 보살상처럼 어깨 아래의 앞쪽에만 '하단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의

주름 무늬가 있으나, 대세지보살상의 경우에는 가운데의 'U'자 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앞뒤로 '하단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 주름 무늬가 형성되어 있어, 현진 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하로 긴 얼굴과 높은 보관 등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16세기 불상 양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 있지만, 복부의 부견의 주름 표현과 왼쪽 어깨 아래의 대의 등 옷의 표현에는 이미 현진 특유의 표현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즉, 천은사 보살상의 길고 좁은 얼굴이나 높이가 높은 보관 등 조선 전기의 전통 위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 낸 조각승의 내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진이 조성한 불상은 현재 腹藏發願文 또는 기타의 기록으로 제작 연대와 조각승이 알려진 불상이 13건 28점의 불상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는 7건 17점의 보물과 3건 5점의 지방유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현진 작품 중 지정문화재 목록

現 奉安處	原 奉安處	佛像名	造成年代	지정문화재
晉州 月明庵 人法堂	未詳	木造阿彌陀佛坐像	1612년	보물 1686호
求禮 泉隱寺 明月寮	**求禮 泉隱寺**	**木造二菩薩坐像**	**1614년**	
南海 龍門寺 大雄殿	未詳	木造阿彌陀佛坐像	1610년대	경남 446호
晉州 靑谷寺 大雄殿	晉州 靑谷寺 大雄殿	木造釋迦三尊佛坐像	1615년	보물 1688호
서울 地藏庵 大雄殿	서울 慈壽寺 仁壽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1622년	보물 1621호
報恩 法住寺 大雄殿	報恩 法住寺 大雄殿	塑造三身佛坐像	1626년	보물 1360호
扶餘 無量寺 極樂殿	扶餘 無量寺 極樂殿	塑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33년	보물 1565호
昌寧 觀龍寺 大雄殿	未詳	木造三方佛坐像	1629년	보물 1730호
大邱 桐華寺 極樂殿	未詳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29년	보물 ???호
茂州 安國寺 極樂殿	未詳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30년대	전북 201호
大邱 北地藏寺 大雄殿	未詳	木造阿彌陀佛坐像	1630년대	대구 51호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求禮 泉隱寺 木造觀音勢至菩薩坐像 造成發願文」[1] 1614년 6월, 靑綃·紅書, 38.0×180.5cm, 明月寮.

淸信戒弟子太能靈源等敬造
靈像尊像特樹菩薩大願云
願我世世生生在在處處相好端嚴梵行淸
白常說正法具四無碍梵音淸雅令人樂聞
傳佛心燈如迦葉流通敎海如阿難大智如
文殊大行如普賢大慈如彌勒大悲如

1) 송은석 석문.

觀音大願如地藏大果如舍那虛空有
盡我願無窮
十方諸佛咸垂證明
施主秩
朴天民　兩主
智雲　比丘
金奉世　兩主
崔愛福　兩主
克玄　比丘
二月　比丘
薛文香　兩主
金太男　兩主
金大男　兩主
山福　兩主
蔡福　兩主
崔億年　兩主
毛進介　兩主
梅香　兩主
金環　兩主
李生　兩主
允石　兩主
張菴　兩主
南春種　兩主
今伊　靈駕
大禪師 善修　比丘
玉井　比丘
覺性　比丘
省均　比丘
淸雲　比丘
行機　比丘
道林　比丘
畫士 玄眞　比丘
明隱　比丘
蒙能　比丘
彦浩　比丘
思印　比丘

證明 太英　比丘
雪梅　比丘
香火 學珠　比丘
執務秩
寶湛　比丘
智寒　比丘
印宗　比丘
性林　比丘
敏正　比丘
智照　比丘
幹善大化主靈源　比丘
烏金化士優婆塞柳介屎　兩主
萬曆四十二年甲寅六月日辦擧比丘太能拜手
願以此功德普及於一
切我等與衆生皆共
成佛道

□

ㅇ 조사내용

이 불상은 원래 천은사 극락전의 삼존불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도난 우려로 현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불상의 구성은 불상 1구와 보살상 2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상과 보살상의 양식에서 시대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보살상은 복장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어 1614년에 太能, 靈源 등의 발원으로 조각승 현진, 명은, 의능, 언호, 사인 등이 조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본존불상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동 사찰 산내암자인 천은사 수도암에 이 불상과 거의 똑같은 형태와 크기,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1646년에 수조각승 승일에 의해 제작된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도 수도암 불상과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해에 같은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음·대세지보살상을 조각한 현진은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중 한명이다. 그는 1612년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86호)를 비롯하여,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1612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보물 제1621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24년, 보물 제1360호),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629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0년, 보물 제1730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36년, 보물 제1565호) 등 대소형의 불상에서 소조·목조불상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조각솜씨를 발휘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두 번째 조각승 명은은 현진을

도와 1612년에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1622년에는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조각승 의능은 현진을 도와 1612년에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과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다섯 번째 보조 조각승 사인은 1612년 태전을 도와 해남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상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1637년에는 수조각승 현진을 도와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37년)을 제작하였고, 1656년에는 수조각승 무염을 도와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오백나한상을 제작하였다. 이 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들은 대부분 초반기에 현진과 함께 활동한 현진파 조각승들이다.

본존인 아미타불상은 협시보살상의 늘씬한 신체비례와 달리 안정된 구도 속에 단아한 형태미를 보이는데,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양감이 크게 강조되지 않고 단아한 형태미를 추구한 조각승은 승일이 대표적이다. 승일은 1622년에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자인수양사 불상(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제작시 性玉에 이어 두 번째 治匠으로 참여하였고, 1629년과 1630년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는 수조각승 현진의 차조각승으로 참여할 만큼 현진파 내에서도 비중이 매우 높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일은 또 다른 유력 조각승인 청헌(淸憲), 무염(無染)과도 작품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조각활동을 거쳐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승일만의 독자적인 조각유풍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승일의 초기작품으로서, 그의 초기 작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어쨌든 아미타여래삼존상이 현진의 주도 하에 1614년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어떤 이유로 본존불이 손실되어, 다시 그의 문하 중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던 승일에게 본존 불상의 제작을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살상 2구는 아미타여래의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기와 형태 등은 거의 같고, 좌우의 수인의 위치만 달리하여 서로 상응하게 하였다. 관음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복구불사를 이끌었던 浮休 문도들이 이 불사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 불상 조성에 浮休善修(1543-1615)가 직접 시주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된다.

두 보살상은 이중으로 꽃잎 모양의 판을 겹쳐 만든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보관의 표면에는 넝쿨문을 투각하고 동판으로 화염, 구름 등의 장식을 부착하였다. 보계는 작고 세장하며, 보관의 턱을 이루는 머리만 머릿결을 표현하였다. 구레나루와 귀밑머리를 타고 내려 온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나비모양으로 고리 매듭을 짓고 다시 어깨 위로 흘려 내렸다. 세장한 얼굴형에 이마는 넓고 반반하며 살짝 부푼 눈두덩에는 반개한 눈을 표현하였다. 광대뼈는 다소곳이 돌출하였고, 콧날은 짧고 높으며 콧방울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현실감이 있다. 활모양으로

휘어진 입술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전체적으로 순박한 청년의 인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존감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얼굴은 현진의 초기 조각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후대의 다소 관념적인 얼굴과 비교되는 점이다.

무릎은 낮고 넓으며, 허리는 길어 장대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천의는 佛衣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걸쳐 입었으며 가슴에는 사선으로 한번 접어 마무리한 군의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상체에 표현된 주름은 긴장감이 있는 탄력적인 주름을 사용하였고, 길상좌로 앉은 무릎에는 철선같이 뻣뻣하고 힘 있는 주름을 사용하였다. 특히 왼쪽 아래로 흘러내린 주름을 좁은 Ω형으로 처리하였고,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된 Ω형 주름이 M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진 조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관음보살상은 소맷자락이 발가락을 살짝 덮어 무릎 아래로 펄럭이듯 크게 흘러내렸고, 대세지보살상은 발가락만 살짝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특히 오른쪽 발목을 덮고 내린 좁고 긴 띠 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사선으로 세밀하게 새긴 주름은 왼쪽 어깨의 좁은 Ω형 주름과 함께 이후 현진 조각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發願文>

淸信戒弟子太能靈源等敬造」靈像尊像特樹菩薩大願云」願我世〃生〃在〃處〃相好端嚴梵行淸」白常說正法具四無碍梵音淸雅今人樂聞」傳佛心燈如迦葉流通敎海如阿難大智如」文殊大行如普賢大慈如彌勒大悲如」觀音大願如地藏大果如舍那虛空有」盡我願無窮」十方諸佛咸垂證明」施主秩」朴天民兩主」智雲比丘」金奉世兩主」崔愛福兩主」克玄比丘」二月比丘」薛文香兩主」全太男兩主」金大男兩主」山福兩主」蔡福兩主」崔億年兩主」毛進介兩主」梅香兩主」金環兩主」李生兩主」允石兩主」張菴兩主」南春種兩主」今伊靈駕」大禪師　善修比丘」玉井比丘」覺性比丘」省均比丘」法雲比丘」行機比丘」道林比丘」畵士　玄眞比丘」明隱比丘」義能比丘」彦浩比丘」思印比丘」證明　太英比丘」雪梅比丘」香化　學珠比丘」執務秩」寶湛比丘」智寒比丘」印宗比丘」性林比丘」敏正比丘」智照比丘」幹善大化主　靈源比丘」鳥金化士　優婆寒柳介屎兩主」萬曆四十二年甲寅六月日　辨擧比丘　太能拜手」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그림 1 대세지보살상

그림 2 관음보살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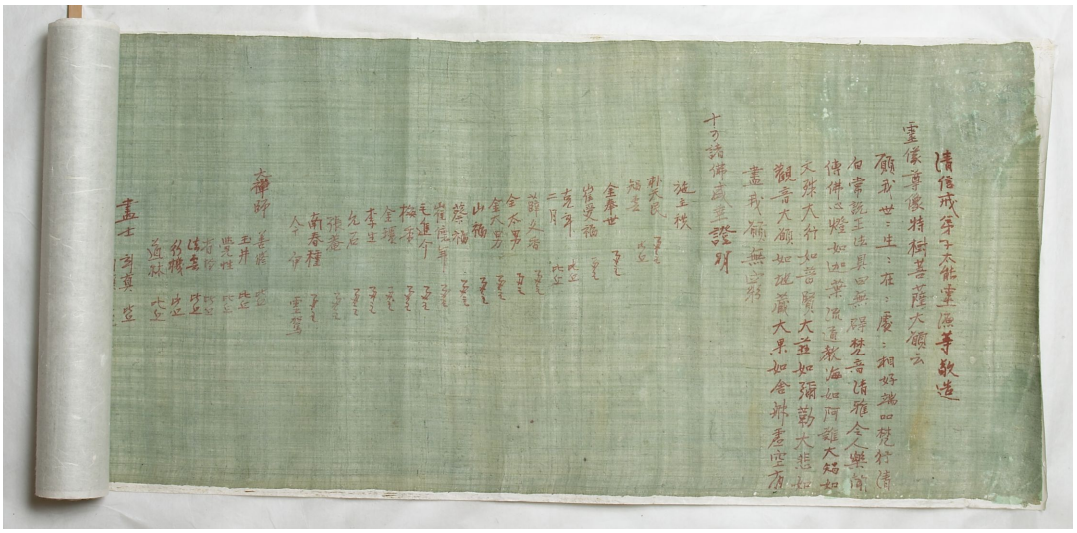


그림 3 조성발원문

안건번호 동산 2016-01-004

4.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 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七尊坐像)

가. 심의사항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관계전문가 회의('15.2.5)를 통해 지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검토된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 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七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심곡사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심곡사(낭산면 낭산리 176)

○ 수　　량: 불감 1점, 불상 7구

○ 규격(cm): 아미타불 14.5, 관음보살상 12.4, 대세지보살상 12.4
여래좌상① 7,3, 여래좌상② 7.3, 지장보살상 6.8, 관음보살상 7.4
불감 높이 18.8, 너비 22.7

○ 재　　질: 금동

○ 제작연대: 여말선초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은 여말선초에 제작된 불교조각으로서 고려말·조선초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심곡사 칠층석탑의 지대석 윗부분에 있는 사리공에서 출토된 금동불감과 불상들은 조형적으로 보아 칠층석탑이 건립되던 조선시대 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불감과 불상들은 정확한 조성 배경을 알려줄 만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으나 수준작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조각 연구에서 있어서 중요한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은 각각 후령통 등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아니라, 금동불좌상 2존과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하나의 도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학적·신앙적으로 조선시대 15세기의 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비록 절대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조형적으로 보아 조선시대 15세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점과 예술성·희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ㅇ

심곡사 칠층석탑 지대석에서 발견된 이들 불상은 높은 육계、큼직한 연봉모양의 정상계주, 잘록한 허리와 육감적인 신체 표현, 삼각형의 모양으로 仰·覆蓮이 맞닿은 연화좌, 원반모양의 귀고리, U자형으로 두껍게 늘어진 목걸이 등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던 元·明代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여말선초기 소형 금동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따라서 이 불상도 이 시기(여말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사찰의 중창 시기나 석탑의 편년 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불감에서 발견된 여말선초 양식의 소형 금동불상들은 금강산 신앙에 의거하여 금강산 일원에 봉납된 것과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및 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 출토 불감 및 불상, 그리고 순천 매곡동 석탑 출토 청동불감 및 불상 등에서 발견된 불감이나 불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으로, 이 시기 유행한 불상의 형식과 양식,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석탑 사리장엄 의식 및 신앙 양상까지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금동불감과 불상은 라마불상양식이 강한 아미타여래삼존상과 이를 수용하여

어느 정도 우리화된 4구의 불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말선초기 원·명대 외래 양식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출토지가 분명하고 7구의 불상이 한 불감 내에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익산 미륵산 자락에 위치한 深谷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이 절의 대웅전 앞에 있는 칠층석탑(전북 유형문화재 제 192호)은 심곡사가 백년쯤 전에 현재의 사찰에서 서북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옮겨오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전해온다. 칠층석탑은 2012년 6월 해체·보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단 중대석 상면에 파여진 방형의 사리공에 납입되어 있던 백자호를 비롯한 사리장엄구와 불상 9구, 금동불감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 익산 왕궁리 유적전시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칠층석탑에서 발견된 아홉 구의 금동불상 가운데, 일곱 구는 불감 속에 들어있었다. 금동불감은 경첩이 떨어져 분리된 상태인데, 불감의 내부 정면 벽에는 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 2구, 제자 6구, 신장 2구가 협시하여 11존을 이루고 있다. 10구의 협시상들은 모두 합장의 수인을 결했고 광배 뒷면과 대좌 아래로 雲紋 이 새겨져 있다. 불감의 문비는 앞, 뒤로 2개의 판을 이어 붙였는데, 정면에는 능형문과 연화문을 선각하여 실제 건물의 꽃살창을 묘사했고 안쪽 면에는 금강역사를 양각하였다.

불감에 봉안되어 있던 칠존은 금동아미타삼존상과 이 삼존상 보다 크기가 작은 여래상 2구, 관음, 지장보살상이다. 아미타삼존상의 본존 아미타불좌상은 나발의 머리 위에 정상계주가 높게 표현되었고 편단우견으로 착의한 가사의 접힌 자락에는 花紋이 장식되어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댄 說法印을 결했다. 대좌는 중대가 없이 連珠文이 돌려진 상대 앙련좌와 하대 복련좌가 서로 맞붙어있는 형태이다. 이 상의 정상계주와 대좌의 표현, 착의형식은 고려말 몽고

간섭기에 元으로부터 전해졌던 티벳 불교미술 양식을 보여준다. 등 뒤쪽에 갈라진 균열은 주조 당시의 결함으로 판단된다.

좌우 협시보살상들은 어깨위에 두른 숄 형태의 天衣와 팔찌에 본존상의 가사에 새겨진 둥근 花紋이 장식되었으며, 보관의 형태와 가슴에 U자형을 이룬 2줄의 영락장식, 유희좌로 앉아 각각 바깥쪽의 발을 대좌하단에서 위로 올라온 연화 足座 위에 올려놓은 자세에서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를 보인다. 관음보살상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었고 손에는 천의자락을 쥐었으며 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에 연꽃가지를 쥐고 있다.

앞의 삼존불상과는 달리 나머지 4구의 불상들은 전통양식을 더 많이 보인다. 2구의 여래좌상은 거의 상호가 동일하며 머리에는 나발이 큼직한데 앞의 아미타불상과 같은 정상계주는 표현되지 않았다. 착의형식도 가사를 두벌 겹쳐 입은 이중착의 형식을 보이고 가슴에는 卍字가 음각되어 있다. 수인은 한쪽은 왼손을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다른 쪽 불상은 오른손을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왼손으로도 역시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설법인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두 손을 포개어 정병을 받쳐 들고 있는 관음보살좌상(도 2)의 기본 형태는 전통적인 도상을 보이지만 허리가 잘록하고 넓게 옆으로 퍼진 보관의 형태와 밧줄처럼 굵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늘어진 모습, 화문이 달려있는 팔찌들의 형태는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를 보인다. 이에 비해서 지장보살은 전통적인 양식을 보이는데(도 3), 머리에는 화문이 새겨진 두건[風帽]을 쓰고 두 손을 포개어 보주를 받쳐 들었다. 이마 위로 보이는 두건의 앞단과 가슴의 內衣 윗단, 목걸이는 魚子紋을 새기는 원형의 도구를 써서 찍었는데, 이것은 앞의 아미타삼존불상의 가사와 天衣에 문양을 새긴 도구와 동일한데, 이 점은 칠존의 불·보살상들이 같은 공방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에서 출토한 일곱 구의 존상들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협시하는 아미타삼존불좌상과 고려후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관음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삼존불상의 두 종류의 아미타불상이 모두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도상이나 양식면에서는 고려말 이래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이국적인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반영된 모습이 보인다. 아미타삼존불의 좌우협시인 관음·대세지보살상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도 4)과 도상 뿐 아니라 상호에 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사하여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불상들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기년자료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할 것인데, 강원도 금강산에서 출토한 1429년명의 금동아미타삼존불상(도 5)이나

1451년명 금동아미타삼존불상(도 6), 1468년명의 순천 매곡동석탑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도 7)에 비해서 상호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신체의 세장화가 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양감이 좋은 것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양식을 보인다고 생각되므로 여말선초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도 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대세지보살좌상

도 2.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 여말선초, 전북 익산

도 3.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 여말선초, 전북 익산

도 4. 금동관음보살좌상, 나말여초, 국립전주박물관

도 5.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조선시대 1429년 금강산 향로봉출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도 6. 금동관음보살좌상, 조선시대 1451년, 금강산출토, 평양조선중앙력사박물관

도 7. 순천 매곡동 석탑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시대 1468년, 국립광주박물관

□

ㅇ 현　　상

2012년 6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심곡사 칠층석탑 해체 과정에서 중대석 윗면의 방형 사리공(가로 15.5cm, 세로 15cm, 깊이 10.5cm)에서 금동불입상 2존과 백자 소호 1점, 소호 속에서 나온 회색 사리 1과, 청동 원경 1점, 50여편의 향목 편, 소량의 직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지대석 윗면의 방형 사리공(가로 25cm, 세로 24cm, 깊이 18cm)에서 금동불감과 그 속에 봉안되어 있던 7존의 불상과 보살상이 발견되었다.

1. 금동불감

금동불감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밑판, 좌우 측판, 뒷판, 지붕을 각각 따로 만들어 끼운 다음 못으로 고정하여 조합한 것이다. 여닫이 형태로 고정되었던 두 개의 문은 따로 분리된 상태이다. 지붕 위쪽에는 지름 2.5cm 크기의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 안팎에 화형 판을 끼운 다음 안쪽에서 고정하였다. 측판 가장자리에는 연당초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밑판에는 불감 속에 봉안되었던 7존의 존상을 고정하기 위하여 앞쪽에 2개씩 3조, 뒷쪽에 2-5개씩 4조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2.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은 금동불감 중심에 놓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불상의 뒷면이 갈라진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불상 속에서 양면 원경, 직물, 광물, 볍씨가 들어 있던 후령통과 함께 사리호, 사리, 광물, 종이뭉치 등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불상 밑바닥을 막았던 금동판이 남아 있는데, 판을 밑바닥의 크기에 맞춰 자른 다음 끼워서 고정하였다. 불상 내부는 청동녹이 남아있지만 깨끗한 편이다.

3.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주조 때 박락된 코의 일부와 대좌 밑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면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속에서 직물과 양면원경이 들어 있던 후령통과 이것을 감싼 종이, 광물 등 복장물이 나왔다. 보살상 밑바닥을 막았던 금동판은 밑바닥 크기에 맞춰 자른 다음 고정하였다. 보살상 내부에는 해체하지 못한 후령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청동 녹도 일부 확인되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4.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속에서 직물과 양면원경이 들어 있던 후령통과 이것을 감싼 종이, 광물 등 복장물이 나왔다. 보살상 밑바닥을 막았던 금동판은 밑바닥에 고정한 다음 일부분을 구부려 부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살상 내부에는 해체하지 못한 후령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청동 녹의 흔적이 다소 있으나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5. 금동불좌상

금동불좌상은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뒤편 옆에서 출토되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밑바닥이 금동판으로 끼워 막아 놓은 상태이다. 많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대좌 일부가 남아 있으며, 그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불상 밑판에 뚫려 있는 2개의 구멍과 함께 불상을 대좌에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6. 금동불좌상

금동불좌상도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뒤편 옆에서 출토되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밑바닥이 금동판으로 끼워 막아 놓은 상태이다. 많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대좌 일부가 남아 있으며,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 또한 불상 밑판에 뚫려 있는 2개의 구멍과 함께 불상을 대좌에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7.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밑바닥을 금동판을 끼워 막아 놓았다. 훼손이 심하지만 대좌 일부가 남아 있는데,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보살상 밑판에 뚫린 2개의 구멍과 함께 보살상을 대좌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이다.

8.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밑바닥을 금동판을 끼워 막아 놓았다. 훼손이 심하지만 대좌 일부가 남아 있는데,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보살상 밑판에 뚫린 2개의 구멍과 함께 보살상을 대좌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이다.

ㅇ 내용 및 특징

1. 금동불감

청동불감의 안쪽 정면에는 위아래에 구름 무늬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불좌상을 중심으로 협시보살상 2존, 제자상 6존, 금강역사상 2존이 각각 돋을새김[타출]기법과 음각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불상은 통견 형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팔각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두었는데, 손등을 위로 한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가슴 앞에 卍자가 새겨진 불상은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는 아담한 형태이다. 양협시보살상도 불상과 같은 형태의 광배를 갖추고 있으며, 팔각연화대좌 위에서 합장한 모습이다. 보살상들의 배 부분에서 시작된 법의의 띠자락은 대좌의 상대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이들 불상과 보살상 사이에는 합장하고 있는 6존의 제자상이 있다. 또한 양쪽 아래 가장 자리에는 각각 합장하고 서 있는 금강역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불감 문은 바깥 면을

음각으로 새긴 꽃무늬로 장엄하였으며, 안쪽 면은 금강역사상을 각각 돋을새김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들 존상은 여러 부분에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조각이라기보다 마치 회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금동불감은 감의 크기와 형태, 표현 기법, 문 안쪽에 새겨진 금강역사의 모습 등에서 조선시대 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Harvard대학 새클러박물관 소장의 금동불감과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불감과 유사하다. 또한 돋을새김기법으로 표현된 존상들은 1493년 이전에 조성된 수종사 오층석탑 발견 금동불감의 도상과 1467년에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탑신석에 부조된 도상과 조형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2.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불감에 봉안되었던 7존의 존상 중에서 비교적 큰 불상 1존과 보살상 2존은 보관에 화불이 새겨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통하여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 협시하는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일 가능성이 높다. 금동아미타불좌상은 편단우견 형식으로 법의를 입고 상대와 하대가 맞붙어 있는 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불상은 오른손은 내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오른쪽 발다닥 위에 둔 채 손등을 위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금동아미타불좌상은 보주형 정상 계주와 육계, 나발의 머리카락부분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 구도와 왼쪽 어깨로부터 내려와 오른쪽 허리를 가로 지르는 법의의 자연스러운 가장자리 형태, 그 위에 표현된 꽃무늬 장식, 앙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대좌 형식, 대좌 상대와 하대에 각각 새겨져 있는 연주문 등의 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원나라 장전(藏傳)불상의 영향을 받은 고려말 조선초에 조성된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 표정과 신체 비례는 이 불상이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금동아미타불좌상은 조선시대 1450년명 보물 제1747호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등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금동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

3.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안정된 자세를 하고 있다. 보살상은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한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비스듬히 들어 올린 유희좌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왼발은 대좌 하대에서 뻗어나온 연꽃 위에 두었다. 상체는 천의만 걸쳤으며, 하체는 군의를 입고 있다. 오른손은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살짝 걸친 채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천의 자락을 잡고 있다. 높은 보계와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으며, 화려한 보관과 크고 둥근 귀걸이, 배꼽까지 드리우고 있는 목걸이, 화려한 팔찌를 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귓불 앞쪽을 가로 지른 다음, 어깨 위에서

여러 번 꼬인 후 세 가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과 천의와 군의, 대좌에 보이는 3개의 점으로 구성된 꽃무늬 장식은 이 보살상이 장전보살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 표정 등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조형적인 특징이 보인다.

4.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왼쪽 무릎을 세운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달리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관음보살상의 도상과 일치한다. 다만 보살상은 오른손으로 연꽃 줄기를 잡고 있으며, 이 줄기는 손목을 돌아나가 상박부와 하박부의 경계 부분에서 두 줄기로 나뉜 다음, 한 줄기에서는 연잎이, 어깨까지 올라간 줄기에서는 연꽃 봉오리가 나 있다. 왼손 바닥에는 손금이 새겨져 있다.

5~6. 금동불좌상

금동불좌상들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한 아담한 모습이다. 이들 불상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앙 계주가 표현된 점, 나발 형식의 머리카락, 가슴 앞에 음각으로 새겨진 卍자, 통견 형식의 법의, 대좌가 없는 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불상들은 상체를 뒤로 약간 젖힌 모습으로, 불신의 윤곽을 따라 법의를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경직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불상 중에서 오른손을 들어올려 엄지와 약지를, 왼손은 복부 앞에서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는 상은 불상 뒤편의 법의 자락 표현을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앞쪽에서 어깨 뒤로 넘어간 옷주름과 유기적이지는 못하다. 법의 표현에서 이 불상이 나머지 1존과 또 다른 점은 왼쪽 무릎 위에서 앞으로 흘러내린 뒤 집혀진 Ω자 형태의 법의자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불좌상은 왼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등을 위로 하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불상은 왼쪽 어깨 위로 넘어간 법의 자락이 왼쪽 엉덩이 윗부분까지 흘러내리며 내려오는 것 등에서 볼 때 다른 불좌상보다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은 통견 형식으로 법의를 착용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다. 머리에는 꽃무늬 장식의 각이 진 두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복부 앞에 모은 두 손으로는 지장보살의 지물인 보주를 들고 있다. 크고 화려한 귀걸이와 연주문으로 된 장엄된 목걸이를 하고 있다. 보살상은 다소 경직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형적으로 지장보살의 성격을 나타내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8.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천의와 군의를 착용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다.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각각 꽃으로 장엄된 커다란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하고 있다.

두 손은 복부 앞에 두었는데, 손바닥으로 역시 같은 꽃 무늬로 장식된 정병을 받쳐 들고 있다. 보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머리 카락은 가지런히 빗어내렸는데, 귓불 위로 가로 지른 보발은 어깨 위에서 여러 번 꼬인 다음 세 갈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양쪽 다리 사이의 군의 가장자리와 보살상 뒤쪽 허리의 군의를 묶은 매듭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뒷모습에서는 좌우 대칭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조선시대 초기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

ㅇ 조사내용

익산 심곡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미륵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찰의 창건은 통일신라시대 선문구산의 하나인 聖住山門을 개창한 無染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고고학적, 미술사적 자료는 없다. 아마도 이는 전국의 수많은 사찰이 元曉나 義湘같이 불교계의 저명인사를 창건주로 내세워 寺格을 높이려 했던 것과 같이, 심곡사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곡사와 멀지 않은 곳에 성주산문이 있기 때문에 무염대사에 의한 창건설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사찰에는 여말선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칠층석탑이 주법당인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 2012년 6월 이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소형 금동불상 2구와 여말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龕, 그리고 그 속에 봉안된 7구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칠층석탑은 연화대좌 형태의 기단과 옥개와 탑신이 좁고 얇은 전체적으로 세장한 형태를 띠는 전형적인 여말선초 양식의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은 사찰에서 전래되어 오던 것을 석탑의 건립 때 법사리로 봉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금동불감과 7구의 불상은 석탑의 양식과 거의 일치하므로 조성당시의 사리장엄구로 판단된다.

금동불감은 지대석에서 발견되었는데, 지대석의 상면에 마련된 사각형의 홈(25.0×24.0cm, 깊이 18.0cm) 안에 정확하게 맞도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석탑을 제작할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감은 밑판, 좌우측면판, 뒤판, 뚜껑 등이 각각 1판으로 제작되었고, 문비만 2판으로 제작되었다. 뚜껑과 밑판은 꺾어 측면판과 뒤판을 안쪽에 끼우도록 하였고, 양 측면과 뒤판은 별도의 넝쿨무늬가 새겨진 'ㄱ'자형 장식판을 덧 되어 못으로 고정하였다. 뚜껑은 모를 죽인 녹정형으로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2] 감실의 내면 중앙벽면에는 타출기법으로 아미타여래설

2) 진정환,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특징과 성격」,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국립전주박물관, 2014), p.47.

법도를 나타내었다. 구성은 팔각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불·보살 삼존상을 중심으로 제자상 6구, 신장상 2구로 구성되어 있다. 삼존상은 다른 존상에 비해 존격을 크게 부각하였고, 사이사이의 빈 공간에는 제자상 등 권속상과 구름문으로 채웠다. 본존은 낮고 넓은 머리에 작은 중앙계주를 가졌으며, 동그란 얼굴에 크고 뭉툭한 콧날에서 정겹고 귀여운 인상을 자아낸다. 이중착의법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가슴에는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이 꽃잎처럼 표현되었고, 무릎 앞에 흘러내린 대의자락은 마치 앞치마를 두른 듯 수평 주름으로 길게 처리하여 특이한 인상을 준다. 이와 유사한 무릎 주름은 판교 출토 금동불상입상 등 고려 전기 불상에서도 보이고, 고려말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의 벽면 부조상, 조선 초기로 추정되는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상이나 원각사 십층석탑의 부조상, 그리고 여말선초에 제작된 사경변상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門扉의 양쪽 면에는 타출기법으로 권법자세를 취한 역동적인 금강역사 2구를 나타내었는데, 부식으로 인하여 결손부위가 많다.

불감 안에서 발견된 불상은 모두 7구인데, 앞쪽 열에는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배치하였고, 뒤쪽 열에는 이 보다는 이국적인 느낌이 덜한 불상 4구를 배치하였다. 앞쪽에서 발견된 불상 3구 중 본존불은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살결이 드러날 정도로 얇게 입었다. 대의에는 삼보문을 새겨 넣었으며,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왼쪽 어깨에는 여말선초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Ω'형의 주름이 잡혀 있다. 머리는 복발모양의 큼직한 육계 위에 팽이모양의 정상계주를 올려놓은 형태이며,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이국적인으로 표현하였다. 가슴은 당당하게 발달하였고, 허리는 잘록하여 감각적인 조형의지를 보여준다. 앙·복련이 맞닿아 있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는데, 두 발은 모두 노출되어 표현되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결하였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고려후기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소재불명)이나 1450년 조성으로 추정되는 통도사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과 경태 2년명(1451년, 문종 원년) 금동아미타삼존좌상(금강산 은정골 출토) 등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금강산 일대에서 조성된 소형 금동불상들과 세부적인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거의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관음보살상은 5구의 화불이 있는 보관을 섰으며, 뒤로 둥글게 말린 보계는 각져 있고 보관 앞으로 노출된 머리는 가르마를 타고 양쪽으로 가지런히 빗겨 넘겼다. 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위에서 3겹의 둥근 고리모양을 만든 뒤 다시 3가닥으로 드리웠다. 귀에는 원반모양의 큰 귀고리를 착용하였고, 팔뚝에는 腕釧을 부착하였다. 양어깨를 걸치고 흘러내린 천의자락 중 한 자락은 팔뚝을 타고 사행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또 왼손으로는 왼쪽 팔목을 휘감은 옷자락을 잡았다. 천의의 곳곳에는 三寶文을 시문하였다. 가슴에는 U자형으로 늘어진 두꺼운 영락장식을 걸치고 있다. 앙·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 위에 반가좌의 형태로

앉았는데, 반가좌로 내린 왼발은 대좌에서 따로 피어난 연화족대에 발을 올려 둔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臺灣 鴻禧美術館所藏의 大明 永樂年施(1403-1424)에 만들어진 일련의 금동보살상들과 비교할 수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관음보살상과 달리 오른손으로 연꽃줄기를 잡고 있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관음보살상과 유사하다. 연꽃줄기를 지물로 취하고 있는 대세지보살상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경천사지 십층석탑 부조상이나 호림박물관 금동대세지보살상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관음과 지장보살이 반가좌를 취하고 있는 것은 1476년에 제작된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지장보살상이 있다. 이 삼존불에서 보이는 팽이모양의 정상계주, 이국적인 상호, 잘록한 허리, 앙복련이 맞닿은 대좌, 살결이 드러날 정도로 얇게 입은 옷 주름, 별도의 족좌대 등 표현방식과 양식적 특징은 여말선초기 크게 유행한 원·명대 라마불교 양식으로 제작된 불상들과 상통하는 요소이다.

뒤쪽에서 발견된 불상은 여래상 2구, 보살상 2구 등 모두 4구이다. 여래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의 불상으로 서로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상응하게끔 하였다. 불상은 복발모양의 높은 육계와 작고 동그란 중앙계주를 갖추었으며, 불감 뒷벽에 새겨진 불상과 마찬가지로 동그란 얼굴에 콧날을 크고 뭉툭하며, 입은 작게 표현하여 전반적으로 통통하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데, 같은 작자의 수법으로 보인다.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양 어깨를 모두 덮어 내렸으며, 내의는 표현되지 않았다. 열려있는 가슴에는 두 구 모두 '卍'자를 새겨 넣었다. 무릎은 좁고 높아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옷 주름은 비교적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관음보살상은 활짝 핀 꽃모양의 넓은 보관을 썼으며, 관대가 어깨 좌우로 넓게 드리워져 있다. 보관 앞으로 노출된 보발은 세밀하게 빗금질 하였으며, 큼직한 원반모양의 귀고리를 부착한 양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 위에서 복잡하게 엮은 뒤 다시 몇 가닥으로 흘러 내렸다. 불신에는 천의를 걸쳤는데, 양 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자락이 S형으로 사행하며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다. 치마의 가장자리 테두리에는 넝쿨문양을 시문하여 단조로움을 피했다. 옷깃에 문양을 시문하는 것은 대만 홍희미술관소장 1486년작 금동비로자나불상이나 금동금강총지좌상 등 명대의 15세기 자료들과 비교된다. 보살상의 허리는 다른 상들에 비해 뒷열의 다른 불상에 비해 더욱 잘록하며, 이목구비는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두 손은 단전 앞에서 선정인으로 포개 모으고 그 위에 꽃무늬로 장식된 정병을 올려놓았다. 허리 뒤쪽에는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이 가위모양으로 드리워져 있고, 가슴 앞과 허리, 팔뚝 등에는 꽃무늬로 이루어진 장신구를 부착하였다.

지장보살상은 꽃무늬가 새겨진 두건을 썼는데, 두건은 네 곳에 세로로 각을 잡았고 이러한 두건의 형태는 여말선초기 지장보살의 두건형태와 상통한다. 얼굴은 큼직한 콧날 등 불상과 거의 같으며, 가사는 양어깨를 모두 덮어 내린 통견식이며, 두 손은 가슴에 모아 보주를 올려놓았다. 가슴에는 작은 구슬로 이어진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이 4구의 불상은 천은사 금동불감의 불상, 순천 매곡동 석탑 출토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그리고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등 여말선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쪽 열에서 발견된 3구의 불상에 비해 좀 더 전통양식에 가까답고 할 수 있다.

ㅇ 참고문헌

- 「심곡사칠층석탑 - 정밀실측 및 보수정비수리보고서-」, 익산시・한림보존테크, 2012
-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 국립전주박물관, 2014

그림 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그림 2 금동불감 출토 모습(지대석 상면)

그림 3 불감의 지붕

그림 4 불감의 정면 벽면

그림 5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그림 6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안건번호 동산 2016-01-005

5.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서울 興天寺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가. 심의사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7.23)를 거쳐 2014년도 제3차 분과위원회('14.4.10)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제작연대 검토 및 과학적 분석 필요'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보완조사('15.8.3)를 실시하였으나 채취할 수 있는 시료가 없었으며, 제작연대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의 2차 조사('15.10.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서울 興天寺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동)

○ 수　　량 : 1구

○ 규격(cm) : 상높이 71.5　무릎폭 43.2

○ 재　　질 : 금동

○ 제작연대 : 고려~조선 초

○ 제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2차 조사자 의견】

ㅇ

홍천사 금동천수관음상은 사찰 소장의 현판기록을 통해 적어도 홍천사에서 19세기 부터는 봉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얼굴 모습이라든가 비례, 영락 등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에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려시대의 문헌기록에 천수경이라든지 천수관음상 제작에 대한 기록이나 발원문이 전하는 시대성과도 부합된다. 천수관음은 많은 손과 다양한 지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로 이끌어 주며 동시에 호국적 성격이 강한 원력을 가진 보살상이다.

42수 천수관음상은 우리나라 전 시대에 걸쳐 몇 구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식의 보살상인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고려시대의 문헌에 질병 퇴치나 호국적성격이 강한 원력을 가진 보살상으로 등장하는 점 등 불교조각사는 물론 불교신앙 및 사상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42수 천수관음상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홍천사 관음보살상은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뛰어난 작품성으로 보아 국가장인이 조성하여 왕실사원인 홍천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홍천사 사십이수관음상의 도상특징은 1면 42수를 가진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며, 이 도상특징(1면 42수)은 지통역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에서 유래했고, 구체적인 42수 도상은 상원사본(1485년) 『오대진언』 42수 수인도에서 유래한 상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1450년 전후의 티벳계 명양식에 속하는 천수관음보살상 등과 가장 흡사하므로 1450년 경에 조성된 장신 계통의 보살상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신의 늘씬한 양식을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중시된다.

넷째, 이 42수 천수천안보살상은 현존하는 4점(프랑스 기메박물관상, 국립박물관상, 개인소장, 본상)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중 사찰에서 신앙되고 있는 유일한 예이자 가장 크고 뛰어난 예이므로 그 희귀성에서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의 신앙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인 홍천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은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42수 관음보살상으로서 고려 말 조선 초의 양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천수관음상 도상 및 관음신앙 연구에 있어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비례감각이 뛰어나고 가냘픈 듯 강인함이 돋보이는 등 예술성 또한 돋보인다.

이에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조성된 매우 드문 작례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기록물로 보아 조선 말기까지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훼손과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대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차 조사자 의견】

○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현존하는 천수관음보살상의 희귀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894년명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현판에 기록을 통하여 볼 때, 尙宮 洪敬心華와 상궁 李慈仁華의 시주에 의해 조선시대 19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판의 기록을 통하여 보살상은 “사십이수관세음보살” 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보살상에는 42개의 손이 있는데, 이들은 따로 주조하여 연결하였다. 결손되어 나무로 대체된 일부 손과 후대에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持物을 제외하곤 비교적 완전한 모습이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沙土를 이용한 전통적인 주조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살상 내부에는 아직도 모래가 두껍게 붙어 남아 있다. 보살상은 전체적인 비례와 얼굴 표정, 화려한 장엄 등을 통하여 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42수를 가진 관음보살상으로서, 조선시대 19세기 작품답게 여러 시대의 양식적인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즉, 목과 상반신에 보이는 고려시대 초기의 특징, 지물로 들고 있는 金剛鈴과 2층

전각에 나타난 고려시대 중기의 특징, 몸 전체를 감싼 영락장식에 보이는 고려말 조선초의 특징, 보계 형식에 보이는 조선시대 전기의 특징, 그리고 보관에 보이는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갈고리 매듭과 같은 영락 장식과 복부와 양다리 사이로 흘러 내린 띠 자락은 기존의 보살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들이다.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일부 손상되어 후보되긴 하였지만, 42수 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1894년명 현판에 기록된 보살상의 조성 시기 "辛卯"년이 1831년인지 1891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살상이 조선시대 19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복장 발원문이 아닌 현판에 조성발원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상기한 두 명의 발원자가 각각 100량씩 돈을 내어 조성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19세기에 유행하던 발원자의 이름 표기법 등을 참고해 볼 때 불상도 대략 이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살상 안쪽 표면에 남아 있는 청동 녹들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의 보살상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다지 부식되지 않아 보살상의 조성 시기가 현판에 기록된 19세기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하겠다.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비록 조성시기가 조선시대 19세기이긴 하지만,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동반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42수 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을 이와 관련되는 현판과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ㅇ

현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상은 다소 추상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기 드문 예로서 천수관음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인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지물이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보이는 거친 주물 상태나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 등은 지정에 앞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2차)

□

ㅇ 조사내용

홍천사 천수관음좌상은 42수 천수관음상으로 현재 서울시 성북구 홍천사 극락보전에 조선시대의 다른 불상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 천수관음상은 마르고 가는 신체에 잘록한 허리, 볼록 튀어 나온 배와 낮고 좁은 무릎, 큰 얼굴과 화려하고 장식적인 높은 보관, 유난히 기다란 손가락 등이 특징이다. 여기에 군의를 묶은 허리띠가 무릎 밑으로 굴곡을 지으며 흩어지듯 흘러내렸고 지나치게 기다란 손가락과 얇은 팔, 마른 신체에 튀어 나온 배는 독특한 느낌을 준다. 각 팔을 이어 붙인 거친 조각기술로 인한 투박한 주조기법은 입이 크고 광대뼈가 튀어 나온 얼굴에 각을 넣어 무섭게 처리한 얼굴 형상과 더불어 강한 생명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얼굴 모습은 고려시대 철불과 유사성을 보이는데 특히 서산 보원사지 출토로 전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조여래좌상이라든지 강원도 원주 출토 철조여래좌상에서 좀 더 엄격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 팔에 장식된 팔찌. 팔뚝지, 중간팔찌 그리고 화려한 꽃문양으로 장식된 보관. 물방울 모양의 장식 등은 고려전기-중기 보살상에 보이는 특징들이다.

현재 홍천사 천수관음상의 지물은 대부분 거의 없어졌으며 오른손에 소라 法螺手, 왼손에는 宮殿手, 金輪手, 蓮花手, 軍持手, 如意珠手, 寶經手 정도가 확인된다. 그런데 언젠가 수리가 이루어진 듯 손에 든 지물이나 손의 위치가 이전의 사진과는 다르며 이는 육안으로 판명된다. 특히 금강령의 위치는 지금 보다 하나 위에 위치하였으며, 금강령의 모습도 똑 같지 않으며, 연화가지도 이전의 사진에서는 없는 지물이다. 현재 중간이 부러진 손도 이전의 사진에서는 없어 다시 만들어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른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소라를 든 팔 밑에는 현재 두 개의 팔이 있지만 이전의 사진에는 한 개만 남아 있다. 이는 계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데 유난히 가는 팔과 천수관음의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천수관음상은 X-ray 촬영 결과를 보면 몸통과 각 팔 마다 철심이 있어 내형토의 원형 제작 과정에서 철심과 흙으로 뼈대를 만든 다음 밀납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개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며, 보수에 의한 팔 역시 안 좋은 상태이다.

ㅇ 천수관음 관련 기록

천수관음상에 대한 기록은 사찰에 있는 현판 2건과 1929년과 1937년에 찍은

유리원판 사진이 남아 있다. 현판은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懸板(1891년 추정)>과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懸板(1898년 추정)>으로 1891년과 1898년경에 각각 상궁 및 일반신도들에 의해 시주 및 개금불사가 이루어진 내용이다. 현판에는 상의 봉안처를 삼각산 흥천사로 명시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흥천사에서 <천수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자료 1)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24×31.7cm)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文百兩」未壹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文百兩」辛卯三月日」化主釋暎曇」大房重修時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百兩」米⑪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百兩」米一石」乙酉四月日化主釋暎曇」冥府殿重建時大施主」醢醬與饌著等物亦」獻納」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文一千兩」米二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文一千兩」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자료 2)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42×26cm)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信士壬申生趙龍鎬」信女辛巳生崔喆珠」長子己亥生趙益求」次子甲辰生趙孝鎭」化主金曉星」庚戌年十月十五日」

현재 극락보전에 걸려 있는 첫 번째 현판 기록의 내용은 42수 관음보살상의 佛糧시주를 비롯하여 대방 중수(乙酉년), 명부전 중건(甲午, 1894)에 시주한 명단을 적은 것이다. 42수관음상의 불량시주는 辛卯년으로 1891년경으로 추정된다. 화주는 흥천사의 스님으로 추정되는 영운, 시주자는 상궁 홍경심화, 상궁 이자인화이다. 관음보살상에 대해 각기100량씩 돈을 내어 시주하였다는 기록으로 구체적인 물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상궁 홍경심화와 이자인화는 관음상과 대방, 명부전 중건에 각기 문1200석을 내 놓았으며 쌀도 각기 3석이상과 1석을 내는 등 흥천사 불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화주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현판에 적힌 42수관음상을 개금한 시주질이다. 김효성이 화주가 되어 임신생 조용호와 부인, 아들, 딸 4 등 가족이 주체가 되어 경술년 10월 15일 개금한 내용이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19세기에는 흥천사에 천수관음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중요성과 신앙 형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천수관음상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리원판 사진과 독일 안드레 에카르트(Ander Eckardt, 1884-1971)의『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1929)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통해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흥천사는 조선시대에 조선전기 선교양종으로 통합되면서 흥천사는 태조의 비, 신덕왕후의 추복을 위한 능침사찰로서 1396년 창건되었으며 이후 선종의 본산이

된다. 이후 1504년(연산군10)에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1669년(현종19) 정릉이 중수되면서 인근 신흥사를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나 1709(정조18)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그리고 1865년 대원군의 후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즉 현판기록에 보이는 상궁들은 대원군의 중창 이후 왕실사찰로서 불사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고려말 이전에 제작되었을 이 천수관음상이 언제 흥천사로 이안되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선종의 본산이자 관음도량의 성격이 높았던 흥천사에 다른 사찰에 있었던 관음상이 이안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19세기에는 불상을 새롭게 제작하기 보다 상궁들에 의해 다른 사찰로 이안되어 봉안된 사례들이 많았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현재 흥천사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ㅇ 조사내용

흥천사 천수관음보살상은 얼굴이 하나이고 42개의 손과 팔을 가진 이른바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다. 특히 장신의 긴 도상특징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레한 대표적 조선 초기 보살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흥천사 42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은 고려말 조선초기 불상들에서 유래해서 조선 초기인 1450년경의 티벳계 명양식 불상들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원류는 1330년대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등에 있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상들은 고려말 조선초 양식인 1395년(조성 또는 중수) 장륙사 건칠보살상이나 1477년 중수의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상 등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길고 세장한 관과, 얼굴, 신체, 손과 손가락은 물론 삼각형 상체, 잘쑥한 허리 등은 조선초기의 티벳계 명양식 금동불상들과 가장 친연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450년 금강산출토 통도사 금은아미타삼존상, 1451년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상, 최근 출현한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등이 이 관음보살상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1451년 작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상 가운데 관음보살상과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줄기형의 높은 관, 긴 얼굴, 입가의 개성적 표현, 삼각형 가슴과 잘쑥한 허리, 크고 긴 손, 영락장식 등에서 같은 계열의 도상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 자체의 구도, 형태, 양감 등도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42수관음보살상은 1450년 전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려말의 특징도 일부 있지만, 세장한 세부도상과 함께 긴 상체와 잘쑥한 허리, 화려하고 번잡하기까지 한 독특한 영락장식 등은 다른 시대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적 특징이며, 특히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불상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특징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물론 1407년 상왕산 출토 금동아미타불상에서도 유사한 도상특징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1468년의 매곡동 석탑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특히 관음보살상이나 심

곡사 탑불보살상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1450년 경의 불보살상과 가장 친연성이 많아 1450년 경 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세종32년(1449년 1월 22일)에 세종이 병이 나자 흥천사에 관음정근을 베풀었다는 기록이나 1462년(세조8년)에 국가와 세자를 위하여 여래상과 관음상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과 연계된 천수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ㅇ 현 상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興天寺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42수 중 각 손의 지물은 대부분 유실되어 오른쪽 손의 소라를 비롯하여 왼쪽 손의 궁전, 법륜, 연화, 정병, 금강령, 보주, 경전 등 몇 종류만 남아 있음.

각 팔의 이음새 및 개금 등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ㅇ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조성의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함께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으로 높은 관을 쓴 채 합장하고 앉아 있는 本體와 몸에 이어붙인 42수의 팔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는 대칭을 이루었을 것으로 계속된 보수에 따라 이어 붙인 부분이 거칠고 팔의 길이와 굵기도 일정하지 않아 대칭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성이 결여된 손의 형태와 유난히 기다랗게 표현된 손가락으로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나 多臂觀音像으로서의 신비로움과 강인함이 함께 느껴진다.

많은 팔에 비해 허리가 잘록하니 가냘픈 신체를 하고 무릎의 높이가 낮아져 안정감은 다소 떨어져 보이지만,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에 근엄하고 강한 표정의 얼굴 모습과 가슴 앞에 모아서 합장하고 있는 두 손을 큼직하게 나타내고 하복부를 볼록하게 표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힘이 넘쳐나 보이며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렇듯 뺨이 팽만하여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엄격하면서도 강인한 표정을 하는 얼굴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철조佛像 및 철조佛頭에서도 유사성을 볼 수 있어 그 흐름이 짐작된다. 또한 제공된 X-ray 촬영 사진에 몸통과 각 팔의 연결부위마다 남아 있는 철심의 흔적과 상 내부에 남아 있는 회색 조형토로 보아 철심과 흙으로 뼈대를 만들고 밀랍주조법으로 조성하였음이 짐작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금동불상이 많이 조성되는 고려 말 조선 전반기 상황과도 연결되어 흥천사 천수관음보살상의 조성시기를 고려 말 조선 초로 가늠케 하는 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 외에도 이 관음상의 조성시기를 고려 말 조선 초기로 추정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신체와 각 팔에 장식된 영락장식과 화려한 문양이 투각된 원통형 보관,

사각형적인 얼굴 형태에 길게 치켜 올라간 가는 눈과 굳게 다문 입을 하여 근엄한 듯 강인한 느낌을 주는 얼굴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신체에 장엄되어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영락장식은 고려 전기 부터 이어져와 조선 초기까지 나타나는 특징들로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천수관음상의 조성시기를 말해주는「불상조성기」「개금중 수기」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간접적인 자료로서 사중에 전해오는『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와『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현판 2건과,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판(193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십일면천수관음보살상 및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의 천수관음보살상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흥천사 관음상과 형태적 측면에서 가장 친연성을 보이는 고려말 조선 초 추정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천수관음보살상의 경우는 흥천사 상과 비교해 보아, 보다 곡선적인 신체 표현에 영락장식이 간단해지고 42수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상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판 2건과 최근 공개된 유리 원판 사진은 관음상의 조성시기와는 상관없는 자료로서 늦어도 19세기부터는 천수관음상이 흥천사에 봉안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1894년명『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현판과『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2건은 계속된 보수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천수관음상 조성과는 관계없는 중수 시의 시주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

ㅇ 현 상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興天寺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천수관음신앙이 성행하였던 점에 비하면 매우 드물게 유존한 불상이다. 42개의 팔을 갖고 있는 '사십이수관음보살'이지만, 일부 훼손되거나 유실된 팔은 보수되어 있다. 각 손마다 지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대부분의 지물은 유실되고 일부만 남겨져 있다. 보살은 하반신에 군의를 착용하고 몸에는 천의를 걸쳤으며, 가슴, 복부, 하반신 등 온몸에는 영락으로 감싸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전반적으로 세장한 신체를 갖고 있으며 하반신 폭에 비하여 상반신의 길이가 길지만, 상반신 양옆으로 뻗어나간 팔들로 인하여 상반신의 길이가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을 주고 있다. 상반신 좌우로 뻗어나간 팔들은 전면, 중간면, 후면 등 세 겹으로 배치되어 있어 단조롭지 않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발제보다 턱의 폭이 약간 넓은 편이며, 폭보다 길이가 긴 편이다. 뺨과 턱에 양감이 드러나 있는 얼굴에는 인중 폭이 매우 넓고 상하 대칭형의 입은 매우 특이

하다.

전면을 감싸는 영락장식은 고려시대 13-14세기의 보살상으로부터 조선 초기 15세기의 보살상에 이르기까지 많이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이 보살상의 연대 추정에 도움을 준다.

이 보살상과 관련된 문헌기록 2건이 전한다.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기록은 1894년의 기록으로 추정되고,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懸板」은 재질이나 구성으로 보아 1910년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식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지속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ㅇ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1894년, 나무, 24×31.7, 1점, 극락보전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　　錢文百兩

米壹石

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　　錢文百兩

辛卯三月　　日　　化主釋暎曇

大房重修時　　施主

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　　錢百兩

米□石

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　　錢百兩

米一石

乙酉四月　　日　　化主釋暎曇

冥府殿重建時大施主　　醯醬與饌著等物亦

獻納

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　文一千兩

米二石

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　文一千兩

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

조선말~근대, 나무, 42×26, 1점, 수장고

四

十 改　　信士 壬申生 趙龍鎬

二 金　　信女 辛巳生 崔喆珠
手　　長子 己亥生 趙益求
觀 施　　次子 甲辰生 趙孝鎭
音 主　　化主 金曉星
像　　庚戌年十月十五日

조사보고서(1차)

□

우리나라에서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성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분황사 '左殿'의 북쪽벽에 그려져 있던 千手大悲[천수관음]가 영험하여 어린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가『三國遺事』(권3「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에 전하고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이 이어져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려후기에 천수관음상 조성에 관한 여러 기록이 전해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천수관음상은 회화 한 점뿐이며(삼성리움미술관 소장), 조각으로는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작품으로는 흥천사 천수관음상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천수관음보살상, 파리 기메동양미술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의 3점이 전한다.

흥천사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뒷면의 등판 좌우에 팔을 이어붙인 부분이 거칠고 부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팔의 길이와 굵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길게 조각된 손의 형태에서도 사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기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보통 천수관음상은 많은 팔 때문에 몸체와 팔들을 따로 제작하여 조립하기도 하는데,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가는 몸통에 달린 팔들의 무게 때문에 일부가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갔던 듯하다.

그렇지만 보살상 자체는 뛰어난 요소를 보인다. 細長한 신체 위에 표현된 정교한 영락장식, 화려한 문양이 투각된 원통형의 보관, 보발의 가닥이 섬세하게 새겨진 보계, 세속적이면서도 신령스러운 얼굴, 착의형식 등에서 판단할 때, 고려 중·후기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조선전기의 조각으로 생각된다. 다만, 흥천사 천수관음상의 내부에 남아있는 회색의 조형토와 거친 주조 상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다른 금동상의 상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불교조각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전기에는 금동상들이 비교적 많이 제작되어 서울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은해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 남양주 수종사 석탑출토 금동불감과 여래좌상 등 비교적 여러 작품이 전하고 있는 반면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는 목조와 소

조, 석조(경주불석)의 상들이 불교조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금동상의 주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흥천사는 1396년 신덕왕후의 추복을 위해 창건되어 연산군 10년(1504)에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현종 19년(1669)에 정릉이 중수되면서 인근 신흥사를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나, 이후 다시 정조 18년(1709)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었는데, 고종 2년(1865)에는 대원군의 후원으로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다. 이와 같은 흥천사의 변천에서 미루어 볼 때,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원래부터 흥천사에 봉안되었던 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필시 서울·경기 일대의 다른 사찰에 있던 상을 흥천사로 옮겨 봉안하여 개금과 보수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오는『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와『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의 현판기록은 19세기에 이 천수관음상의 개금과 보수, 그에 따른 공양불사가 베풀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1) 명문 및 특기사항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1894년, 나무, 24×31.7, 1점, 극락보전

<銘文>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文百兩」未壹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文百兩」辛卯三月日」化主釋暎曇」大房重修時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百兩」米⑪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百兩」米一石」乙酉四月日化主釋暎曇」冥府殿重建時大施主」醢醬與饌著等物亦」獻納」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文一千兩」米二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文一千兩」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 조선말~근대, 나무, 42×26, 1점, 수장고

<銘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信士壬申生趙龍鎬」信女辛巳生崔喆珠」長子己亥生趙益求」次子甲辰生趙孝鎭」化主金曉星」庚戌年十月十五日」

2) 조사내용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흥천사 극락보전에는 42개의 팔을 지닌 천수관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우리나라에는 남아있는 예가 매우 드문 금동으로 제작된 천수관음상으로, 각 손에 자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물은 유실되어 몇 개만 남아있다.

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천의를 걸쳤으며, 상체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고 허리 부분이 긴 신체비례를 보인다.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른 상체에 비해 배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표현되었다. 얇은 천의는 신체에 밀착해 있으며, 목에는 영락장식과 함께 전신에 걸쳐 장신구가 확인된다. 장신구는 긴 줄 형태로 전

신에 드리워졌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타원 형태의 장식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운데, 양쪽 광대뼈 부분에 양감이 드러난다. 원형의 백호와 함께 눈썹 윗부분에서 깊게 파인 선으로 연결된 코는 윗부분이 평평한 모습이고, 입술은 상호에 비해 작은 편으로 인중 부분이 강조되었다. 턱 아래쪽으로는 한 줄 음각선을 넣어 양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계는 높은 편이다.

이 상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각 내부에 남아있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의 두 현판기록을 통해 적어도 19세기에는 이미 흥천사에서 봉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판 기록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미술사(Geshichte der koreanischen Kunst)』(1929)에서도 흑백사진을 통해 흥천사 천수관음보살좌상의 존재가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판(1937년) 자료에서도 극락보전에 봉안된 천수관음보살좌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수관음보살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상이 몇 구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천수관음상과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상이 현존하는 예이다. 이외에도 1322년에 작성된 천수관음주성원문이 남아있으며, 1343년에 장안사 선실에 천수천안관음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금강산장안사중흥비」에도 전한다.

□

흥천사는 1396년에 태조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정릉 부근에 창건한 사찰이다. 이후 태종은 1409년 정릉을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하고, 석축들은 명나라 사신들의 숙소인 태평관과 청계천 광평교 보수에 사용하였다. 연산군 10년(1504)에는 태조의 명에 의해 건립한 사리각을 제외한 모든 당우가 불에 탔으며, 중종 5년(1515년)에는 유생들에 의해 사리각까지 완전히 소실되었다. 현종 19년(1699)에는 송시열(宋時烈, 607~1689)의 건의로 정릉을 중수하고 인근에 있는 신흥암을 신흥사로 바꿔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며, 정조 18년(1794년)에 비로소 현재의 자리로 사찰을 이건하였다. 고종 2년(1865)에는 대원군의 지원으로 크게 중창하여 다시 寺名을 興天寺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흥천사는 창건 이래 관음신앙과 관련 깊은 도량이었다. 태조의 명에 의해 건립한 사리각에도 관음과 지장보살상을 봉안하였고, 세종 23년(1441)과 32년(1450)에는 도승지 이사철에게 명하여 관음정근을 베풀었다고 한다. 1943년에 발간된 「봉은사본말사지」 흥천사조에도 “흥천사는 중간에 신앙상으로 관음도량으로 일컬은 적도 있으나, 본래는 선종도량이다”라고 기록하여 흥천사가 관음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금동천수관음상이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는 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이러한 전통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흥천사의 주불전인 극락전에는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극락전은 철종4(1853)년에 건립한 것인데, 현재 봉안된 삼존상은 각기 다른 양식적 특징과 시기성을 가지고 있어 모두 다른 곳에서 移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아미타불상의 좌측에 봉안되어 있고, 천수관음보살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1894년에 작성된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音菩薩佛糧施主」현판이다. 이때 尙宮 洪敬心華는 錢文百兩과 米壹石을, 尙宮 李慈仁華는 錢文百兩을 佛糧施主하였다. 이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불량시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불량시주는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을 말하는 것으로 불상 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같은 현판에 불량시주 다음에 기록된 대방과 명부전의 경우 중수와 중건 등 불사 목적을 분명히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京畿右道楊洲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刱記文」과「漢陽東三角山新興寺極樂寶殿重建丹靑施主」현판에는 1867년에 법당 삼존불상을 개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주법당 건립 후 얼마 있지 않아 삼존불상에 대해서도 개금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수관음상이 불량시주가 있기 이전부터 극락전 삼존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33년 1월 24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흥천사 귀중품 중 하나로 철제도금관음보살상이 고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철제도금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에 관음보살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신앙은 통일신라 초에 관련경전이 수용된 이후 천수관음 신앙이 널리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천수관음상의 조성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널리 유행했던 천수관음 신앙에 비해 현존하는 천수관음상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 신앙은 천수관음상 자체보다 천수다라니 자체를 신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각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 11면천수관음보살상, 파리 국립기메동양미술관 금동천수관음보살상, 그리고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 정도가 알려져 있고, 그림으로는 호암미술관에 1폭이 전한다. 천수관음상은 보통 11면 40비 또는 11면 42비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면 42비로 표현된 경우도 많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1면 32비로 제작되었고, 서울 흥천사와 프랑스 기메박물관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면 42비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천수관음상의 소의경전은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智通 譯),『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菩提流志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不空 譯),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不空 譯),『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伽梵達摩 譯)등이다.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에는 천수관음상의 특징과 지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불상이나 불화로 표현될 때는 지물의 위치나 순서 등이 경전의 내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흥천사 관음보살상은 금속판을 투각한 보관을 쓰고 있고, 보관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고

수직에 가깝다. 머리와 닿는 보관의 둥근 테두리에는 聯珠文을 돌렸다. 보관의 정면과 뒷면에는 꽃잎모양의 장식판을 세우고, 그 둘레에는 줄기가 굵은 당초문과 활짝 핀 연꽃무늬를 투각하였다. 꽃잎모양의 입식 장식판 안에는 半葉의 화문을 두었고 그 안에 다시 3개의 圓文을 삼각형이 되도록 배열하여 三寶文을 이루도록 하였다. 꽃모양의 장식판 위에는 활짝 핀 연꽃을 다시 올리고, 그 위에 다시 鳥翼形 冠飾을 펼쳐 장엄하였다. 새날개 모양의 관식의 중앙과 좌우로 펼쳐진 날개의 윗면에는 둥근 구슬을 올려놓았다. 귀 뒤로는 짧게 드리운 관대가 표현되었다. 짧게 드리운 관대와 조익형 관식의 보관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수월관음도(日本 東光寺)나 제석천도(日本 光澤院), 그리고 고려 후기 사경변상도에 나타나는 보살상의 보관 장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조익형의 관식은 보수성이 짙은 불화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조각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다가 근대기에 조성된 수덕사 정혜사 보살상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모티프는 동일한 것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형태나 표현 방식에서 분명한 시대적 차이가 있다.

머리의 중앙에는 모양의 다섯 개의 능을 가진 보계가 솟아 있는데, 적절한 높이의 5능형 보계는 여말선초기에 보이는 보살상의 보계들과 비교된다. 보관 아래로는 세밀하게 빗질한 寶髮이 표현되었고, 구렛나루를 타고 내린 한 가닥의 머리카락은 귀를 가로질러 어깨 위로 드리워졌다. 보계는 보살상의 얼굴형은 갸름하나 눈썹 골의 경사가 급하면서 날카롭고 가늘게 뜬 눈매는 치켜 올렸으며 광대뼈를 드러내고 옅은 미소를 의도하며 입 주변을 움푹 파내었으나, 오히려 의도와 달리 전체적인 인상은 추상적이다. 이러한 사실성에 기반하지 않은 추상적인 얼굴과 과장스러울 만큼 잘록한 허리, 연약한 팔 등은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이나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좌상,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청동빈두루존자상,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등 고려 전·중기 다양하게 등장하는 불상 양식의 한 계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특징은 양 귀밑에서부터 U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끈 모양의 장식,치마를 2번에 걸쳐 묶어 매듭지은 띠자락, 그리고 전신에 걸쳐 표현된 고리모양의 영락장식이다. 우선 양귀 밑에서부터 흘러내린 U자형의 띠 장식은 중국 中唐 시기에 그려진 돈황 제159굴 문수·보현도살도에서 같은 장식이 이미 확인되며, 이는 돈황 오대벽화에서로 이어져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성 관음굴 석조관음보살상을 비롯하여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 등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고려 불화에서는 1294년작 일본 묘만지(妙滿寺) 미륵하생경변상도를 비롯하여 1350년작 신노인(親王院) 미륵하생경변상도의 협시보살상, 그리고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아미타삼존도 중 대세지보살상, 프랑스 기메미술관소장 수월관음보살도 등 고려 후기에 제작된 불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조선 초기에 제작된 일본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 관음보살도에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한정된 시기 조각과 불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치마를 묶어 내린 띠를 다시 한 번 더 묶은 매듭은 논산 개태사지 석조보살입상, 감지금니 대보적경 변상도(1006年刊, 日本文化廳),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의 협시상, 日本 야마구찌현(山口縣) 金銅菩薩立像, 동국대학교박물관소

장 금동보살입상,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발견 금동보살좌상 등 고려시대 작품에서 확인된다. 이외 가슴에 고리 모양의 영락장식은 일본 야마구찌현 金銅菩薩立像,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부여 무량사 금동보살좌상 등 고려시대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추상적인 얼굴과 잘록하게 허리, 꽃잎형의 입식과 조익형 관식으로 이루어진 보관, 머릿결을 표현한 多稜形의 보계, 고리모양의 영락장식과 U자형의 끈 장식, 2번에 걸쳐 묶은 치마 매듭 등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제작된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의 제작 시기도 이르면 고려 전기, 늦어도 조선 초기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편년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시기의 폭을 넓게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선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상은 다소 추상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기 드문 예로서 천수관음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인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지물이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보이는 거친 주물 상태나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 등은 지정에 앞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참고문헌

- 宋殷碩, 「高麗 千手觀音圖 圖像에 對하여」, 『湖巖美術館 硏究論文集』 4, 1999
-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도」, 『淨土學硏究』 17, 한국정토학회, 2012

안건번호 동산 2015-06-006

6. 익재난고 권6~7(益齋亂藁 卷六~七)

가. 심의사항

‘익재난고 권6~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익재난고 권6~7’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익재난고 권6~7(益齋亂藁 卷六~七)
○ 소유자(관리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수　　량: 2권1책
○ 규격(cm): 세로 24.6(17.6) × 가로 16.1(12.6)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32년(세종 14)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문신이며 학자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全10卷이다.

이 문집은 저자의 77세 때인 恭愍王 12(1363)년에 저자의 차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처음 刊行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그후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것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과 繕寫를 거쳐 1432년에 江原監營(原州)에서 「櫟翁稗說」 등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조사대상본은 그 중의 2권(권6-7) 1책의 零本이다.

이 중간본의 국내 傳本은 조사대상본과 李謙魯의 山氣文庫에 零本(권9-10)이 남아있는 정도로 전본이 희귀하다. 국외에는 일본 蓬左文庫에 일부가 전한다.

이 판본의 특징은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임에도 고려의 국왕과 元의 천자를 높이기 위한 改行과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行草가 여전히 혼용되고 있고 같은 자가 반복될때에 쓰이는 기호인 ‘ 〃 ’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전기의 한문학연구는 물론 당시의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ㅇ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10卷本이다.

調査本 「益齋亂藁」는 세종 14(1432)년에 「櫟翁稗說」과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과 함께 「益齋集」으로 10行17字로 간행된 重刊된 善本이나, 完本은 전래되지 않고 다만 국내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권6～7)과 李謙魯의 山氣文庫(권9～10)에 殘本이 傳來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蓬左文庫에 일부 전래되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 「益齋亂藁」는 益齋의 「櫟翁稗說」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益齋亂藁」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ㅇ

조사본 『익재난고(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문집으로 10권본 가운데 권6과 권7 2권에 해당한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1432년(세종 14)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역옹패설(櫟翁稗說)』과 함께 간행된 것으로서, 국내에는 조사본 외에 이겸로(李謙魯)의 산기문고(山氣文庫)에 소장된 권9～10 등 잔본(殘本)만이 전래되고 있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事項 :

益齋亂藁. 卷6~7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2(1432) 重刊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7.6×12.6㎝,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6×16.1㎝. 楮紙. 線裝.

表　題: 益齋集

板心題: 亂藁

內　容:

-卷6.

書 3수

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記 6수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碑 1수

妙蓮寺中興碑

-卷7

碑銘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祐)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幷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誠之)墓誌銘幷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益禧)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溥)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倫)墓誌銘幷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兆年)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文度)墓誌銘
金文英公(恂)夫人許氏墓誌銘幷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幷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幷序

刊　記: 조사본에는 卷7의 말미에 수록된 저자의 장모인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 다음에 別行으로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수록된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幷序>의 내용 중에 '至正十年(1350)十月壬寅卒'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44년이 이 책의 간년은 아니다. 卞韓國夫人柳氏는 지정 4년 8월에 죽어서(至正四年甲申八月 感疾 壬戌薨) 그해 9월에 장사지낸 것으로 보아(九月甲辰 窆于德水縣鉢松原之北) 저자가 장모의 묘지명을 새긴 년도로 추정된다.
李穡의 益齋亂藁序에 의하면 저자의 문집이 처음 판각된 것은 저자 77세시인 1363년(공민왕12년)에 아들 李彰路와 손자 李寶林에 의하여 편찬 간행되었다. 계명대본은 조선 세종14년(1432)에 왕명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인출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상　태 : 표지는 개장되었고, 본문의 각장은 얇은 저지로 배접하였으나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특히 권6의 妙蓮寺石池竈記의 끝부분에서 妙蓮寺中興碑의 첫부분까지의 1장과 중흥비의 뒷부분 2장 분량, 모두 3장의 낙장이 있다.

ㅇ 현　　상

전 10권 중 권6-7의 2권 1책의 零本이며, 권6에 3장 분량의 낙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문신이며 학자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全10卷이다. 조사대상본은 그 중의 2권(권6-7) 1책의 零本이다. 조사대상본의 권6에는 1323년(충숙왕 10) 都堂에 올린 글을 비롯하여 2편의 書와 6편의 記文, 그리고 妙蓮寺를 重興한 내력을 적은 비문 1편이 실려 있다.(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장의 낙장이 있다.)

권7에는 方祐・崔誠之・羅益禧・權溥(저자의 장인)・金倫・李兆年・崔文度・金恂과 저자의 장모인 卞韓國夫人柳氏 등의 碑銘과 묘지명 등 15편이 실려 있다.

이 문집은 저자의 77세 때인 恭愍王 12(1363)년에 저자의 차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처음 刊行하였다. 저자 생존 당시에도 이미 일실된 원고가 많았으므로 서명을 '亂藁'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초간본은 전래되지 않는다. 목은 이색이 쓴 '益齋先生亂藁序'(1363)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益齋亂藁」는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을 거쳐 1432년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 등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이 중간본의 국내 傳本은 조사대상본과 李謙魯의 山氣文庫에 零本(권9-10)이 남아있다. 국외에는 일본 蓬左文庫에 일부가 전한다. 이 판본의 간행과정은 金鏞이 쓴 '櫟翁稗說跋'(1432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역옹패설과 함께 간행한 관계로 익재난고에는 따로 김빈의 발이 붙어있지 않다.

이 판본의 특징은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임에도 고려의 국왕과 元의 천자를 높이기 위한 改行과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行草가 여전히 나타나 있고 같은 자가 반복될때에 쓰이는 기호인 '〃'표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전기의 한문학연구는 물론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사례

『익재난고(益齋亂藁)』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자료

- 櫟翁稗說跋文: 高麗益齋公 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 名爲亂藁 雜記時事謂之稗說 非徒詞旨典雅 前朝上下五百季之跡 大略可見 實與麗史相爲表裏者也 刊行旣久 未免缺誤 宣德六年夏 殿下命

文臣 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州 惟公道德之高 功業之盛 後輩 所欽慕而未及見 獨其英華之流及後世者 唯文章是賴耳 學者聞其風 誦其詩 必有興起者矣 此集幾至湮晦 而特命重梓 以壽其傳 我殿下尊德右文之美 猗歟盛哉 歲宣德壬子(1432) 秋 七月日 朝奉大夫集賢殿應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臣金鎭 奉敎敬跋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동해제(www.itkc.or.kr)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書誌記述 : 調査本「益齋亂藁」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益齋亂藁. 卷6～7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2(1432) 重刊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7.6×12.6㎝,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6×16.1㎝. 楮紙. 線裝.

表 題: 益齋集
板心題: 亂藁
內 容: -卷6. 書·記(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卷7. 碑銘(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幷序,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幷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墓誌銘幷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幷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幷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幷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幷序)
刊 記: 卷7 碑銘의 마지막인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 다음에 行을 달리하

여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 있으나, 이는 卷7의 碑銘 혹은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의 板刻年度로 추정된다.

狀　態: 卷末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假裝을 입히는 등 改裝되어 있다. 全冊 各張의 裏面에 薄紙를 덧대고 經典 등 備忘할 내용을 轉寫해 두었던 듯하나, 현재 卷末의 數張을 제외한 대다수의 薄紙는 탈락되고 書尾와 書脚에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所　藏: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傳來歷: 啓明大學校가 2010년 11월에 안동 소재의 고서점 安東民俗堂(대표 임동걸)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고 있다.

旣指定: 無

ㅇ 현　상

조사본 「益齋亂藁」는 계명대학교가 2010년 11월에 안동 소재의 고서점 安東民俗堂(대표 임동걸)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의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守藏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益齋亂藁」에는 全冊 各張의 裏面에 薄紙를 덧대고 經典 등 備忘할 내용을 轉寫해 두었던 듯하나, 현재 卷末의 數張을 제외한 대다수의 薄紙는 탈락되고 書尾와 書脚에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卷末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假裝을 입히는 등 改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10卷本이다.

「益齋亂藁」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1) 恭愍王 12(1363)년에 益齋의 次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初刊本이 刊行되었는데 당시 이미 없어진 原稿가 많아 書名을 ‘亂藁’라고 하였으며, 이 初刊本은 傳來되지 않고 있으나 後代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恭愍王 12(1363)년에 쓴 牧隱 李穡의 <益齋先生亂藁序>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세종 14(1432)년에 集賢殿의 校正을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 등과 함께 「益齋集」으로 10行17字의 重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과

세종 14(1432)년 金鑌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重刊本도 完本은 전래되지 않고 현재 계명대학교(권6~7)와 李謙魯의 山氣文庫(권9~10)에 殘本이 傳來되고 있을 뿐이다. (3) 선조 33(1600)년에 益齋의 11대손인 경주부윤 李時發에 의하여 舊刻의 「[益齋]亂藁」와 「[櫟翁]稗說」에 讎校를 가하고 빠진 詩文을 輯錄하고 拾遺를 붙여 慶州에서 10行18字의 三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과 선조 33(1600)년의 李時發의 識文이 수록되었으며, 후대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선조 33(1600)년 柳成龍의<益齋先生文集跋>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숙종 19(1693)년에 許熲에 의하여 慶州府에서 私刊으로 10行18字의 四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金鑌의 跋文이 수록되고 숙종 19(1693)년 許熲의 <益齋先生文集重刊識>, 任相元의 <益齋集重刊序>,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의 刊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5) 숙종 24(1698)년 黃海道觀察使 李寅燁에 의하여 海州에서 10行18字의 五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숙종 24(1698)년 李寅燁의 識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6) 순조 14(1814)년에는 慶州에 살던 後孫들에 의하여 10行18字의 六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慶尙道觀察使 金魯應의 <益齋先生年譜後敍>가 수록되어 있다. (7) 1923년에는 十九代孫 李圭錫가 河謙鎭의 序文을 받아 鉛活字로 安東의 魯林齋에서 七刊本을 活字로 간행하였다. (8) 1911년에는 朝鮮古書刊行會에 의하여 李仁老의 「破閑集」과 崔滋의 「補閑集」 등과 함께 合本으로 刊行되었다. (9) 1973년에는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에 의하여 1814년의 六刊本을 대본으로 「河西集」·「梅湖遺稿」 등과 함께 「高麗名賢集」으로 영인·간행되었다. (10) 1979년에는 民族文化推進會에 의하여 大東文化硏究院 影印本을 대본으로 原文을 影印하고 飜譯文과 함께 合本하여 國譯叢書로 간행되었다.

「益齋亂藁」는 원래 卷1~4에 詩, 卷5에 序, 卷6에 書와 碑, 卷7에 碑銘, 卷8에 表, 卷9는 上·下로 나누어 上에는 世家, 下에는 史贊과 序·策問·論·頌, 卷10에는 長短句·巫山一段雲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 나온 民族文化推進會 國譯本 「益齋亂藁」에는 李穡의 <益齋先生亂藁序>와 任相元의 <益齋集重刊序>가 卷頭에 수록되어 있으며 柳成龍의 <益齋先生文集跋>과 李時發의 識, 金鑌의 跋, 許熲의 <益齋先生文集重刊識>, 金魯應의 <益齋先生年譜後敍>, 李圭錫의 <益齋先生文集重刊識>가 卷末에 수록되어 있다.

「益齋亂藁」에 수록된 글을 통하여 益齋가 중국에 건너가서 그곳의 文士들과 교유한 자취를 알 수 있어, 「高麗史」에서 빠져 있는 여러 가지 史料를 보충할 수 있다. 「益齋亂藁」 권1에서 권4에 실린 詩를 통하여 그의 是認으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권3의 <山中雪夜>는 그의 평생의 詩法이 모두 들어 있다고 일컬어진다. 金澤榮은 그의 詩를 평하여 "工妙淸俊하고 萬象을 구비하여 우리나라 漢詩史上 제일의 大家"라 평하였다. 李德懋도 우리나라 2천년 이래의

名家로 추앙하였다. 徐居正의 「東人詩話」에서는 "그는 樂府詩에도 능하여 字字句句가 音律에 맞았다"고 평하였다. 「益齋亂藁」 권4에 수록되어 있는 小樂府는 高麗朝에 유행하던 우리말 가요를 樂府體로 번역한 것으로 9首가 있다. 그 중에서 口碑·傳承되다가 朝鮮朝에 이르러 訓民正音이 창제된 뒤 文字로 기록되고 정착되었다. 현재 歌詞를 전하는 高麗歌謠와 부합되는 것으로 <處容歌>·<西京別曲>·<鄭瓜亭曲>이 있다. 그러나 한 노래의 全篇을 直譯한 것이 아니고 본래 歌謠가 지닌 정서를 살려 意譯한 것인데, <處容歌>의 경우는 신라의 鄕歌 및 「高麗史」 高麗俗樂 <處容歌>의 일부와 背景說話를 참작하여 意譯한 것이다. 「益齋亂藁」 小樂府의 <長巖歌>·<居士戀>·<濟危寶>·<沙里花>·<少年行>·<五冠山>은 原歌의 歌詞가 전하지 않으나, 이 小樂府를 통하여 原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9首의 小樂府에 이어서 樂府詩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社主와 妓女와의 사랑을 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耽羅島 사람들의 불평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益齋亂藁」 권10의 長短句는 益齋의 詞文學의 면모를 과시한 것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益齋의 詞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詞는 그 이후에도 더러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가 단연 독보였다고 할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그 곳의 音律과 詞曲을 익혔으며, 또한 詞에 이름이 있던 趙孟頫·張養浩·虞集 등과 교유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益齋亂藁」 권10의 長短句는 <益齋詞>라는 명칭으로 淸朝의 朱孝臧이 편찬한 中國歷代詞 總輯인 「彊村叢書」 끝에 元代詞의 하나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益齋는 散文에도 이름이 높아 「麗韓十家文鈔」에 8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 <送辛員外北上序> 등은 널리 읽혀지고 있다.

調査本 「益齋亂藁」는 세종 14(1432)년에 「櫟翁稗說」과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과 함께 重刊된 「益齋集」 권6·7의 2卷1冊의 零本이다. 表題는 '益齋集'이고 板心題는 '亂藁'이며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行字數는 10行17字에 註는 雙行이다. 판심에는 黑口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收錄內容은 卷6에는 書·記가 수록되었는데 書는 <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등 3편이 수록되어 있고 記는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등 6편이 수록되어 있다. 卷7에는 碑銘이 수록되었는데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幷序>,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幷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墓誌銘幷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幷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

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幷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幷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幷序> 등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益齋亂藁」의 본 版本에는 李穡의 序文과 세종 14(1432)년 金鑌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太祖 및 歷代 王의 稱號 앞에 존경의 의미로 擡頭와 空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권7의 마지막 記事인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 마지막에 行을 달리하여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本書의 刊行年度가 아니라 卷7의 碑銘 혹은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의 板刻年度로 추정된다.

調査本 「益齋亂藁」는 선조 원(1568)년의 乙亥字本 「故事撮要」 冊板目錄에도 강원도 原州에 본서의 木板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조사본과 동일한 重刊本의 完本은 전래되지 않고 다만 국내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권6~7)과 李謙魯의 山氣文庫(권9~10)에 殘本이 傳來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蓬左文庫에 일부 전래되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 「益齋亂藁」는 益齋의 「櫟翁稗說」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益齋亂藁」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사례

「益齋亂藁」가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ㅇ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書誌事項

益齋亂藁. 卷6~7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2(1432) 重刊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7.6×12.6㎝,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6×16.1㎝.

表 題: 益齋集

板心題: 亂藁

內　容: 卷6. 書·記(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卷7. 碑銘(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幷序,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幷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墓誌銘幷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幷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幷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幷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幷序)

刊　記: 至正四年九月日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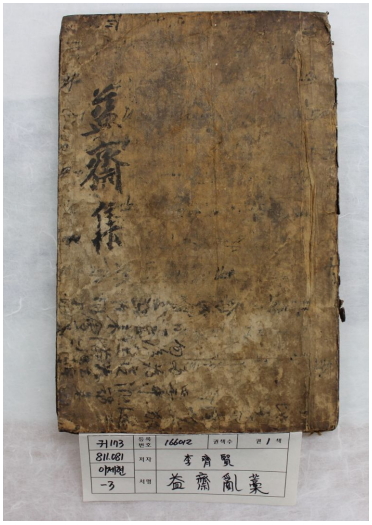
ㅇ 현　상

조사본 『익재난고(益齋亂藁)』는 계명대학교가 2010년 11월에 안동 소재의 고서점 안동민속당(安東民俗堂, 대표 임동걸)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계명대학교(啓明大學校)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 고문헌실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현재 표지는 개장되었고, 전 책에 걸쳐 판심(版心)이 분리된 장이 상당수 보이는 등 빠른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본문을 보면 현재 각장의 이면(裏面)에 엷은 종이를 덧대고 참고가 될 만한 여러 사항을 전사(轉寫)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익재난고』는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문집으로 10권본 가운데 권6과 권7 2권에 해당한다.



표지

권6 권두

『익재난고』 10권은 권1~4에 시, 권5에 서(序), 권6에 서(書)와 비(碑), 권7에 비명(碑銘), 권8에 표(表), 권9는 상·하로 나누어 상에는 세가(世家), 하에는 사찬(史贊)과 서(序)·책문(策問)·논(論)·송(頌), 권10에는 장단구(長短句)·무산일단운(巫山一段雲)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1363년(공민왕 12)에 익재 선생의 아들인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에 의해 경주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현전하지 않는다.

중간본은 1432년(세종 14)에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역옹패설(櫟翁稗說)』과 함께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李穡)의 서문과 김빈(金鑌)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 판본은 현재 계명대학교에 소장된 조사본 『익재난고』 권6~7과 이겸로(李謙魯)의 산기문고(山氣文庫)에 소장된 권9~10 등 잔본(殘本)이 전래되고 있다.

삼간본(三刊本)은 1600년(선조 33)에 익재의 11대손인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에 의하여 이미 간행된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을 수교(讎校)하고, 빠진 시문을 집록(輯錄)하고 습유(拾遺)를 붙여 경주에서 10행 18자의 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에는 이색의 서문과 1600년(선조 33) 작성된 이시발의 지문(識文)이 수록되었다. 또한 후대의 간본을 통해서 볼 때 류성룡(柳成龍)의 「익재선생문집발(益齋先生文集跋)」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간본(四刊本)은 1693년(숙종 19) 년에 허경(許熲)에 의하여 경주부에서 간행되었다. 이에는 이색의 서문, 류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 김빈의 발문이 수록되었고, 허경의 「익재선생문집 중간 지(益齋先生文集重刊識)」, 임상원(任相元)의 「익재집 중간 서(益齋集重刊序)」 그리고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의 간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간본(五刊本)은 1698년(숙종 24) 황해도관찰사 이인엽(李寅燁)에 의하여 해주에서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의 서문, 유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과 함께

이인엽의 지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 이후에도 여러 간본이 전한다. 1814년(순조 14) 경상도관찰사 김노응(金魯應)의 「익재선생 연보 후서(益齋先生年譜後敍)」가 수록된 경주 간행본,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과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 등과 함께 간행한 합본, 1923년 익재의 19대손인 이규석(李圭錫)이 안동의 노림재(魯林齋)에서 간행한 연활자본 등이 있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고려 태조 및 역대 왕의 칭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대두(擡頭)와 공격(空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 책에 걸쳐 판심(版心)이 분리된 장이 상당수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엷은 종이를 덧대고 참고가 될 만한 여러 사항을 전사(轉寫)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면

이면 첨지

한편, 권말에는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라는 간기가 있으나, 이는 조사본의 간행 연도가 아니라 권7의 비명 혹은 바로 앞의 내용인 「변한국부인 유씨 묘지명(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의 판각 연도로 추정된다.

조사본 『익재난고』와 동일한 판본은 현재 이겸로의 산기문고(山氣文庫)에 잔본(殘本)으로 권9~10의 2권만이 전래되고 있고, 일본의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일부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사본 『익재난고』는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권말 간기

ㅇ 지정사례

『익재난고(益齋亂藁)』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안건번호 동산 2016-01-007

7. 역옹패설(櫟翁稗說)

가. 심의사항

‘역옹패설’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역옹패설’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역옹패설(櫟翁稗說)
○ 소유자(관리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수　　량: 4권 1책
○ 규격(cm): 세로 25.7(17.3) × 가로 17.1(12.5)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32년(세종 14)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4卷 1책本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의 시문평론집의 대표적인 저서중 하나로서 4권 1책본이다. 처음 간행된 것은 저자 생존시기인 恭愍王 12(1363)년에, 그의 차자 李彰路와 장손 李

寶林이 편집하여 慶州에서 刊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본 계명대 소장본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것으로,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을 거쳐 1432년에 原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의 특징은 판각후 초기에 인출한 것인 듯 본문의 상태가 매우 선명한 善本이라는 점과 함께,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에 판각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왕을 높이기 위한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자가 반복될 때에 쓰이는 기호인 ' 〃 '표가 자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전기의 詩文의 비평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당시의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櫟翁稗說」은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저술한 詩話·雜錄集으로 충혜왕 복위 3(1342)년에 益齋가 56세로 宦路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고려시대 3대 詩文批評集의 하나로 4卷1冊本이다. 서명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 '낙옹비설(櫟翁稗說)'이라 하는 학자도 있으나, 현재는 '역옹패설(櫟翁稗說)'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調査本「櫟翁稗說」은 세종 14(1432)년에「益齋亂藁」와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益齋集」과 함께 10行17字로 간행된 刊本으로 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板刻 初期에 印出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초기의 刊本임에도 고려 太祖 및 歷代 王의 稱號 앞에 존경의 의미로 擡頭와 空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3종의 藏書記로 보아 南氏家의 舊藏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櫟翁稗說」은 益齋의「益齋亂藁」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櫟翁稗說」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ㅇ

『역옹패설』은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화(詩話)·잡록집(雜錄集)으로 1342년(충혜왕 복위3)에 익재가 56세로 환로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시문비평집(詩文批評集) 4권본이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1432년(세종 14)에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익재난고』와 함께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李穡)의 서문과 김빈(金鑌)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인면(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판각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간본임에도 고려 태조 및 역대 왕의 칭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대두(擡頭)와 공격(空格)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事項 :

櫟翁稗說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4(1432)].

前集2卷 後集2卷 合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7.3×12.5㎝,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7×17.1㎝. 楮紙. 線裝(改裝).

板心題: 說

自　序 : 櫟翁稗說前序

至正壬午夏 雨連月 杜門無跫音 悶不可祛 持硯承簷溜 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紙背 題其端曰櫟翁稗說 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 在木爲可樂 所以從樂也 予嘗從大夫之後 自免以養拙 因號櫟翁 庶幾其不材而能壽也 稗之從卑亦聲也 以義觀之 稗禾之卑者也 余少知讀書 壯而廢其學今老矣 顧喜爲駁雜之文 無實而可卑 猶之稗也 故名其所錄 爲稗說云 仲思序 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

跋　文: 櫟翁稗說跋文: 高麗益齋公 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 名爲亂藁 雜記時事謂之稗說 非徒詞旨典雅 前朝上下五百季之跡 大略可見 實與麗史相爲表裏者也 刊行旣久 未免缺誤宣德六年夏 殿下命文臣 釐正繕寫刊行于

江原道之原州 惟公道德之高 功業之盛 後輩所欽慕而未及見 獨其英華之流及後世者 唯文章是賴耳 學者聞其風 誦其詩 必有興起者矣 此集幾至湮晦 而特命重梓 以壽其傳 我殿下尊德右文之美 猗歟盛哉 歲宣德壬子(1432)秋七月日 朝奉大夫集賢殿應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臣金鎭奉敎敬跋

內 容: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李穡 撰).
前1. 櫟翁稗說自序, 本文.
前2. 本文.
後1. 本文.
後2. 本文.
跋文(金鎭 撰).

藏書印: 4顆(不明)

藏書記: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ㅇ 현 상

表紙는 改裝하였고, 卷頭의 몇 장과 판심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본문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ㅇ 내용 및 특징

「櫟翁稗說」은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大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저술한 詩話集이다. 저자가 56세 되던 해(1342)에 벼슬에서 은퇴하여 집에 있으면서 지은 것이라 한다. 4卷 1책本이다.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것은 저자 77세 때인 恭愍王 12(1363)년에 그의 차자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편집하여 慶州에서 刊行한 것으로 보이나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櫟翁稗說」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을 거쳐 「益齋亂藁」과 함께 1432년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의 간행과정은 金鎭이 쓴 '櫟翁稗說跋'(1432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판본의 특징은 판각후 초기에 인출한 것인 듯 책의 본문의 상태가 선명한 선본이라는 점과 함께,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에 판각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왕을 높이기 위한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자가 반복될때에 쓰이는 기호인 '〃'표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반 특징은 조선전기의 시문의 비평에 대한 연구는 물론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사례

동종의 책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www.itkc.or.kr)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書誌記述 : 調查本「櫟翁稗說」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櫟翁稗說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4(1432) 推定].

前集2卷 後集2卷 合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7.3×12.5㎝,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7×17.1㎝. 楮紙. 線裝(改裝).

板心題: 說

自 序: 櫟翁稗說前序; 至正壬午夏雨連月杜門無跫音悶不可祛/ 持硯承簷溜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 紙背題其端曰櫟翁稗說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在木爲可樂所以從樂也予/ 嘗從大夫之後自免以養拙因號櫟翁庶幾/ 其不材而能壽也稗之從卑亦聲也以義觀/ 之稗禾之卑者也余少知讀書壯而廢其學/ 今老矣顧喜爲駁雜之文無實而可卑猶之/ 稗也故名其所錄爲稗說云仲思序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

跋 文: 高麗益齋公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名爲亂藁雜記時事謂之/ 稗說非徒詞旨典雅前朝上下五百/ 季之跡大略可見實與麗史相爲表/ 裏者也刊行旣久未免缺誤宣德六/ 年夏/ 殿下命文臣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 州惟公道德之高功業之盛後輩所/ 欽慕而未及見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唯文章是賴耳學者聞其風誦/ 其詩必有興起者矣此集幾至湮晦/ 而特/ 命重梓以壽其傳我/ 殿下尊德右文之美猗歟盛哉歲宣德壬/ 子(1432)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臣金鎭奉敎敬跋.

內 容: -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李穡 撰). -前1. 櫟翁稗說自序, 本文.

-前2. 本文. -後1. 本文. -後2. 本文. - 跋文(金鑌 撰).

藏書印: 4顆(不明)

藏書記: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狀　態: 卷頭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改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所　藏: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傳來歷: 啓明大學校가 2010년 11월에 대구 소재의 고서점 그림애(대표 김성수)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고 있다.

旣指定: 無

ㅇ 현　상

조사본 「櫟翁稗說」은 啓明大學校가 2010년 11월에 대구 소재의 고서점 그림애(대표 김성수)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의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櫟翁稗說」은 현재 卷頭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改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櫟翁稗說」은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저술한 詩話·雜錄集으로 충혜왕 복위 3(1342)년에 益齋가 56세로 宦路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고려시대 3대 詩文批評集의 하나로 4卷本이다. 서명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 '낙옹비설(櫟翁稗說)'이라 하는 학자도 있으나, 현재는 '역옹패설(櫟翁稗說)'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櫟翁稗說」은 대체로 「益齋亂藁」의 別冊附錄의 성격으로 간행되었다. 「櫟翁稗說」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1) 恭愍王 12(1363)년에 益齋의 次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初刊本이 刊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初刊의 高麗本은 傳來되는 것이 없으며, 後代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恭愍王 12(1363)년에 쓴 牧隱 李穡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세종 14(1432)년에 集賢殿의 校正을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益齋集」과 함께 10行17字의 重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과 세종 14(1432)년 金鑌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선조 33(1600)년에 益齋의 11대손인 慶州府尹 李時發에 의하여 舊刻의 「[益齋]亂藁」와 「[櫟翁]稗說」에 讎校를 가하고 빠진 詩文을 輯錄하고 拾遺를 붙여 慶州에서 10行18字의

三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충혜왕 복위 3(1342)년 仲思(李齊賢)의 서문, 태종 5(1405)년 權近의 서문, 선조 33(1600)년의 李時發의 識文, 세종 14(1342)년 金鎭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萬曆庚[子](1590)月城重[刊]"이라는 刊記와 "萬曆庚子(1600)鷄林府刊"이라는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선조 33(1600)년 柳成龍의 발문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숙종 19(1693)년에 許熲에 의하여 慶州府에서 私刊으로 10行18字의 四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 숙종 19(1693)년 許熲의 識文, 任相元의 서문,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金鎭의 跋文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이라는 刊記가 수록되어 있다. (5) 숙종 24(1698)년 黃海道觀察使 李寅燁에 의하여 海州에서 10行18字의 五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숙종 24(1698)년 李寅燁의 識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6) 순조 14(1814)년에는 慶州에 살던 後孫들에 의하여 10行18字의 六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慶尙道觀察使 金魯應의 年譜後敍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7) 1911년에는 朝鮮古書刊行會에서 活字版 洋裝本으로 출판된 바 있고, (8) 1913년에 日本 東京에서 影印되기도 하였다.

「櫟翁稗說」의 원래 體制는 前集·後集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各集이 다시 1·2권으로 구분되어 있어 권수는 도합 4권이다. 前集에는 著者의 自序가 있고 권1에 17조, 권2에 43조의 歷史·人物逸話·滑稽 등이 수록되어 있다. 後集에는 저자의 自序와 권1에 28조, 권2에 25조의 詩話와 世態談이 있다. 「櫟翁稗說」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益齋는 高麗가 蒙古 즉 元朝로부터 치욕을 당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한 방법으로 民族自尊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당한 事大主義에 저항하고 있다. (2) 益齋는 傳統性 즉 民心의 기반이 없는 僞朝의 영화로운 생활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本書에서 삼별초정권을 부정적 입장으로 보아 僞朝라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3) 益齋는 武臣政權의 전횡을 폭로하고 그 폐단을 고발하고 있는데 文風이 진작되는 시점이 되어도 학생들이 글을 배울 만한 스승이 없어 도피한 학자였던 중들을 찾아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지적은 武臣執權期가 초래한 반문화적 폐해를 단적으로 밝혀준 좋은 사례이다. ④ 「櫟翁稗說」에는 고려시대 말기의 文學論에 있어서 用事論과 新意論의 현황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益齋는 韓愈·李白 등 唐代의 시인들을 비롯한 유명한 중국 문인들의 詩를 거론하기도 하고 鄭知常을 비롯한 우리나라 詩人들도 거의 망라해서 그들의 詩에 대해 비평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排斥이나 惡評은 삼갔다. 用事에 있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단어의 사용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地名의 사용도 실제정황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된 비판을 가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평태도는 詩語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櫟翁稗說」은 저자가 스스로 뒤섞여 어수선한 글로 열매 없는 피 같은 雜文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後代의 사람들에게 作者 當代의 現實과

文學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남긴 요긴한 서적이다. 또한 「破閑集」이나 「補閑集」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調査本 「櫟翁稗說」은 세종 14(1432)년에 「益齋亂藁」와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益齋集」과 함께 간행된 前集 2卷 後集 2卷 合 4卷 1冊本이다.

調査本 「櫟翁稗說」의 版心題는 '說'이고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行字數는 10行17字이고 註는 雙行이다. 版心에 黑口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冊頭에는 牧隱 李穡이 찬한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이 수록되어 있고 前集1의 머리에는 <櫟翁稗說自序>가 있으며, 이어서 前集과 後集의 本文이 수록되어 있고 冊末에는 세종 14(1432)년에 세종의 명으로 간행의 경위를 설명한 集賢殿 應敎 金鏞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櫟翁稗說」 前集1의 自序는 "至正壬午夏雨連月杜門無跫音悶不可祛/ 持硯承簷溜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 紙背題其端曰櫟翁稗說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在木爲可樂所以從樂也予/ 嘗從大夫之後自免以養拙因號櫟翁庶幾/ 其不材而能壽也稗之從卑亦聲也以義觀/ 之稗禾之卑者也余少知讀書壯而廢其學/ 今老矣顧喜爲駁雜之文無實而可卑猶之/ 稗也故名其所錄爲稗說云仲思序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이며, 冊末의 跋文은 "高麗益齋公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名爲亂藁雜記時事謂之/ 稗說非徒詞旨典雅前朝上下五百/ 季之跡大略可見實與麗史相爲表/ 裏者也刊行旣久未免缺誤宣德六/ 年夏/ 殿下命文臣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 州惟公道德之高功業之盛後輩所/ 欽慕而未及見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唯文章是賴耳學者聞其風誦/ 其詩必有興起者矣此集幾至湮晦/ 而特/ 命重梓以壽其傳我/ 殿下尊德右文之美猗歟盛哉歲宣德壬/ 子(1432)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臣金鏞奉敎敬跋"이다.

調査本 「櫟翁稗說」은 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板刻 初期에 印出된 것으로 보이며, 朝鮮時代 초기의 刊本임에도 고려 太祖 및 歷代 王의 稱號 앞에 존경의 의미로 擡頭와 空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서의 첫張에는 判讀하기 어려운 藏書印 4顆가 있으며,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등 3종의 墨書된 藏書記로 보아 南氏家의 舊藏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櫟翁稗說」은 益齋의 「益齋亂藁」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櫟翁稗說」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사례

「益齋亂藁」가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ㅇ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書誌事項

櫟翁稗說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4(1432) 推定].

前集2卷 後集2卷 合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7.3×12.5㎝,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7×17.1㎝. 楮紙. 線裝(改裝).

板心題: 說

自　序: 櫟翁稗說前序; 至正壬午夏雨連月杜門無跫音悶不可祛/ 持硯承簷溜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 紙背題其端曰櫟翁稗說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在木爲可樂所以從樂也予/ 嘗從大夫之後自免以養拙因號櫟翁庶幾/ 其不材而能壽也稗之從卑亦聲也以義觀/ 之稗禾之卑者也余少知讀書壯而廢其學/ 今老矣顧喜爲駁雜之文無實而可卑猶之/ 稗也故名其所錄爲稗說云仲思序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

跋　文: 高麗益齋公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名爲亂藁雜記時事謂之/ 稗說非徒詞旨典雅前朝上下五百/ 季之跡大略可見實與麗史相爲表/ 裏者也刊行旣久未免缺誤宣德六/ 年夏/ 殿下命文臣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 州惟公道德之高功業之盛後輩所/ 欽慕而未及見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唯文章是賴耳學者聞其風誦/ 其詩必有興起者矣此集幾至湮晦/ 而特/ 命重梓以壽其傳我/ 殿下尊德右文之美猗歟盛哉歲宣德壬/ 子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臣金鎔奉敎敬跋.

內　容: -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李穡 撰). -前1. 櫟翁稗說自序, 本文. -前2. 本文. -後1. 本文. -後2. 本文. - 跋文(金鎔 撰).

藏書印: 4顆(不明)

藏書記: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ㅇ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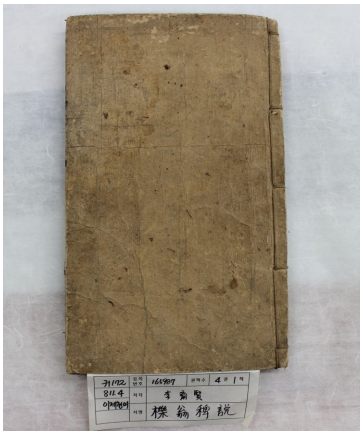
조사본 『역옹패설(櫟翁稗說)』은 계명대학교가 2010년 11월에 대구 소재의 고서점 그림애(대표 김성수)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 고문

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 『역옹패설』의 표지는 개장되었고, 전 책에 걸쳐 판심(版心)이 분리된 장이 상당수 보이는 등 빠른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역옹패설』은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화(詩話)·잡록집(雜錄集)으로 1342년(충혜왕 복위3)에 익재가 56세로 환로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시문비평집(詩文批評集) 4권본이다.



표지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

『역옹패설』은 본래 전집·후집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각각 다시 1·2권으로 구분되어 있어 권수는 모두 4권이다. 전집에는 저자의 자서(自序)가 있고 권1에 17조, 권2에 43조의 역사·인물과 일화·골계(滑稽) 등이 수록되어 있다. 후집에는 저자의 자서와 권1에 28조, 권2에 25조의 시화(詩話)와 세태담(世態談)이 있다.

『역옹패설』은 『익재난고』와 함께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초간본은 1363년(공민왕 12)에 익재 선생의 아들인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현전하지 않는다.

중간본은 1432년(세종 14)에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익재난고』와 함께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李穡)의 서문과 김빈(金鑌)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삼간본(三刊本)은 1600년(선조 33)에 익재의 11대손인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에 의하여 이미 간행된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을 수교(讎校)하고, 빠진 시문을 집록(輯錄)하고 습유(拾遺)를 붙여 경주에서 10행 18자의 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에는 이색의 서문과 1405년(태종 5)의 권근(權近) 서문, 1600년(선조 33) 작성된 이시발의 지문(識文)이 수록되었다. 또한 “萬曆庚[子](1590)月城重[刊]”이라

전집 권2

후집 권2

는 간기와 “萬曆庚子(1600)鷄林府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사간본(四刊本)은 1693년(숙종 19) 년에 허경(許熲)에 의하여 경주부에서 간행되었다. 이에는 이색의 서문, 류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 김빈의 발문이 수록되었고, 허경의 지문, 임상원(任相元)의 서문 그리고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이라는 간기가 수록되었다.

오간본(五刊本)은 1698년(숙종 24) 황해도관찰사 이인엽(李寅燁)에 의하여 해주에서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의 서문, 유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과 함께 이인엽의 지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 이후에도 여러 간본이 전한다. 1814년(순조 14) 경상도관찰사 김노응(金魯應)의 경주 간행본,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책이 전한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인면(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판각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간본임에도 고려 태조 및 역대 왕의 칭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대두(擡頭)와 공격(空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첫 장에는 판독하기 어려운 장서인(藏書印) 4과(顆)가 있으며, ‘남씨가장(南氏家藏)’(前二末), ‘사계책주남씨(沙溪冊主南氏)’(後一末), ‘사계책주남씨(沙溪［冊]主南[氏])’(後二末) 등 3종의 묵서(墨書)된 장서기(藏書記)로 보아 남씨가(南氏家)의 구장본으로 추정된다.

한편, 권말에는 “宣德壬/子(1432)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鑌奉教敬跋”이라는 김빈(金鑌)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ㅇ 지정사례

『역옹패설』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ㅇ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안건번호 동산 2016-01-008

8.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가. 심의사항

'퇴계선생문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퇴계선생문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 소유자(관리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수　　량: 46권 24책
　　[本集 45권 23책(卷1~31, 34~43, 46~49), 別集 1권 1책(目錄·卷1)]
○ 규격(cm): 세로 30.5(21.7) × 가로 21.0(16.5)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板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600년(선조 33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退溪 李滉(1501~1570)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이다. 퇴계가 그러한 인물이기에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성한 문집인 退溪

先生文集의 가치 또한 높다.

「退溪先生文集」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은 물론, 이를 편집하고 간행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문집편집의 방법과 성과가 조선후기 문집의 편집과 판각의 典範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명대소장 퇴계집은 퇴계의 문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심이 되고 여러 문인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하에 퇴계선생 사후 30여년 만에 완성을 본 庚子本(1600)이다. 편집기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판각되면서 오류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수정판이 간행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 책 가운데 退溪先生文集別集目錄卷의 첫 장의 邊欄 여백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이라는 墨書가 있어서 이 책들이 퇴계집의 초간본인 경자본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는데, 李時發(1569-1626)은 本貫이 月城(慶州)이고 字가 養久이다. 퇴계집이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몇 책은 '玉山書院上'이라는 寄贈記를 塗抹하고 '驪江李氏家藏'이라는 藏書記를 墨書한 것도 있다. 책의 소유주에 수차의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문집은 퇴계집의 초판본으로, 퇴계집의 초판본이 판각되던 시기에 초래된 여러 곡절과, 오랜 진통 끝에 판각되면서 안게 된 제반 문제를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문집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다양한 장서인과 장서관련 墨記는 장서의 변천에 관한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본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ㅇ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1524~1606)의 主導로 本集目錄 2권, 本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도합 57卷 31冊으로 간행된 庚子年 初刊本으로, 啓明大學校 동산도서관에는 현재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권2책(32~33, 44~45),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11卷 7冊이 缺落된 本集 45卷 23冊(권1~31, 34~43, 46~49), 別集(목록·권1) 등 도합 46권 24冊의 殘本이 소장되고 있으며, 玉山書院에도 일부 殘本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硏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 思想史硏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인 만큼 書誌學硏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硏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한편,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할 당시의 木板이 현재 陶山書院의 所有로 韓國國學振興院에 752매가 殘板으로 전존되고 있다.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木板은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硏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硏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소장의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殘板 752매도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文化財廳의 職權調査를 통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ㅇ

『퇴계선생문집』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이다.

조사본『퇴계선생문집』은 1600년 간행된 경자본(庚子本) 초간본으로 원래 본집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이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권 2책(32～33, 44～45),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11권 7책이 결락된 본집 45권 23책(권1～31, 34～43, 46～49) 그리고 별집(목록·권1) 1권1책 등 모두 46권 24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퇴계선생문집』은 조선 중기에 성리학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영남학파의 종주가 된 퇴계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퇴계의 학문과 성리학사상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문헌사학적으로도 그 전래가 드문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退溪先生文集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木板本.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推定].
本集 45卷23冊 別集 1卷1冊 合46卷24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1.7×16.5㎝,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30.5×22.0㎝. 楮紙. 線裝.

表　題 :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 退溪先生文集
寄贈記 : 萬曆庚子玉山書院上, 玉山書院上 등
藏書印 : 慶州府印,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
藏書記 : 驪江李氏家藏
魚　尾 :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卷冊數 : 本集 45권 23책(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도합 46卷 24冊
缺　本 : 本集 目錄 2卷2冊, 本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　冊 등 도합 11卷7冊

취득경위 :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라 함.
기지정: 無

ㅇ 현　　상

조사 대상본 「退溪先生文集」의 본존상태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다. 保存修理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退溪 李滉(1501～1570)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이다. 퇴계가 그러한 인물이기에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성한 문집인 退溪先生文集의 가치 또한 높다.

조사 대상 퇴계선생문집은 퇴계의 문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심이 되고

여러 문인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하에 퇴계선생 사후 30여년 만에 완성을 본 庚子本(1600)이다. 편집기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판각되면서 오류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수정판이 간행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조사대상본은 바로 이때 판각한 초간본으로 이른바 경자본이다.

이 책 가운데 退溪先生文集別集目錄卷의 첫 장의 邊欄 여백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이라는 墨書가 있어서 이 책들이 퇴계집의 초간본인 경자본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는데, 李時發(1569-1626)은 本貫이 月城(慶州)이고 字가 養久이다. 퇴계집이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몇 책은 '玉山書院上'이라는 寄贈記를 塗抹하고 '驪江李氏家藏'이라는 藏書記를 墨書한 경우도 있다. 책의 소유주에 수차의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사 대상본은 「退溪先生文集」 庚子本(1600) 가운데,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권2책(32-33, 44-45),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11권 7책이 결락된 本集 45권23책(권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도합 46권 24책이다.

이 문집은 퇴계집의 초판본으로, 퇴계집의 초판본이 판각되던 시기에 초래된 여러 곡절과, 오랜 진통 끝에 판각되면서 안게 된 제반 문제를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문집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다양한 장서인과 장서관련 墨記는 장서의 변천에 관한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본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 도서를 인출한 책판이 현존하고 있는 바(한국국학진흥원수탁장판), 이 들 책판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지정사례

동종의 도서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ㅇ 문헌정보

- 신승운,퇴계집해제(한국문집총간. www.itkc.or.kr)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書誌記述 : 調査本「退溪先生文集」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文集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木板本.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推定].
本集 45卷23冊 別集 1卷1冊 合46卷24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1.7×16.5㎝,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30.5×22.0㎝. 楮紙. 線裝.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寄贈記: 萬曆庚子玉山書院上, 玉山書院上 등
藏書印: 慶州府印,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
藏書記: 驪江李氏家藏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卷冊數: 本集 45卷23冊(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도합 46卷 24冊
缺　本: 本集 目錄 2卷2冊, 本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冊 등 도합 11卷7冊
狀　態: 대체로 良好한 편임
所　藏: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연구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傳來歷: 啓明大學校가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고 있다.
旣指定: 無

ㅇ 현　상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啓明大學校가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의 상태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退溪는 朱子의 학문과 사상을 이은 道學者로서 理氣互發說 등 性理學 관련 분야에서 고명한 탁견과 학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특히 退溪가 당시

君王인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는 聖學에 대한 先學들의 圖와 說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儒學의 핵심을 10개의 圖로써 정리한 것으로, 君主는 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本性을 회복한 聖人이 되는 學問인 聖學을 돈독히 닦아 그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退溪는 평소에 자신의 著作을 매우 유의하여 정리해 놓았던 듯하다. 生前에 「自省錄」을 편집한 것이라든지, 순조 7(1807, 정묘)년에 후손 李野淳(1755~1831)이 편찬한 「退溪先生年譜補遺」은 그 凡例에서 선생의 文集·逸集·雜錄·手本·日記·來歷·草記 등에 의하여 追補된 것이라고 한 사실이라든지, 고종 6(1869, 기사)년에 「陶山全書」를 編纂할 때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되어 있던 「退陶集」·「退溪先生集」·「先生文集草本」·「文集草本」·「退溪先生文集拾遺」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든지 하는 등의 사실은 退溪의 著述이 잘 보전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퇴계의 生前부터 잘 보전된 遺文에 대한 정리로 「退溪先生文集」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편찬은 退溪가 卒去한 직후인 선조 4(1571, 신미)년부터 시작되었다. 退溪의 高弟인 月川 趙穆(1524~1606)을 중심으로 그의 弟子들은 선조 4(1571)년부터 易東書院에 모여 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각처에 있던 弟子들도 각자가 정리한 草稿를 易東書院으로 보내오자 선조 6(1573, 계유)년에는 宣祖가 柳成龍(1542~1607) 등의 요청에 따라 「退溪集」을 校書館에서 印出하라고 하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11(1578, 무인)년에 退溪의 손자인 李安道(1541~1584)가 어느 정도 정리된 草稿를 가지고 漢陽으로 올라와 在京門徒인 柳成龍을 중심으로 乙覽을 위한 編輯과 校正 그리고 淨寫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覽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의 文集의 編輯은 대체로 禮安에 있던 趙穆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月川年譜」에는 "甲申(1584)年 9월에 「退溪先生文集」을 裒集하였다"고 하였고 柳雲龍(1539~1601)의 年譜에서도 동(1584)년 9월에 陶山書院에서 모여 「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참여자였던 趙穆, 琴應壎(1540~1616), 權宇(1552~1590), 金澤龍(1547~1627), 金垓(1555~1593), 洪汝栗(1563~1600) 등의 姓名이 脚註에 수록되어 있다. 이때에 대략 초고의 編輯이 완성되고 草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草本의 교정과 편찬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鶴峯 金誠一(1538~1593)이 선조 19(1586, 병술)년경에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서 文集의 草本이 趙穆을 중심으로 琴應壎과 琴應夾(?~?) 등에 의하여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초본에는 退溪의 모든 著作이 수록되었으며 심지어 手錄本의 詩稿에서 退溪가 刪節한 것까지도 別集 등으로 編次하여 편입되었다. 이렇게 文集의 草本이 완성된 후에 柳成龍은 선조 19(1586, 병술)년에 趙穆에게 편지를 보내 "編輯의 원칙은 次第가 분명해야 하고 상세하고 간명한 것이 모두 적당해야 합니다"고 하며 刪節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20(1587, 정해)년 5월에 趙穆, 柳雲龍, 金誠一이 廬江書院에서 모였으나 이 회합에 柳成龍이 참석하지 않아 刪節에 대

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다만 이 모임에서는 文集의 草本에 대한 校正의 方案과 分擔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刪節이 결정된 것은 동(1587)년 8월 屛山의 會合에서였다. 이때 刪節에 부정적인 趙穆과 刪節을 주장한 柳成龍의 대립을 金誠一이 중재하여 일단 柳成龍의 의견에 따라 刪節하기로 결정되었던 듯하다. 이에 따라 柳成龍은 선조 21(1588, 무자)년 초까지 刪節을 모두 마치고 이를 다시 繕寫하여 中草本의 작성에 착수하였는데, 이 中草本의 작성은 柳成龍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동(1588)년 6월 15일에는 屛山에서 中草本에 대한 교정과 편집 회의가 열렸으며, 대체로 柳成龍을 중심으로 교정을 진행하여 조속히 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柳成龍의 刪節本으로 中草本이 작성되는 것에 반대한 趙穆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禹性傳(1542~1593)과 같이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全稿收錄의 원칙을 견지하는 門徒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동(1588)년 10월에 柳成龍이 형조판서에 제수되어 入京하자 그를 따라 서울에서 中草本의 작업이 진행된 듯하나, 이 中草本의 작성은 선조 22(1589, 기축)년에 일어난 己丑獄事로 인하여 지지부진해지고 선조 25(1592, 임진)년의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退溪先生文集」의 본격적인 刊行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의 主導로 이루어지는데, 趙穆의 <文集告成文>에 의하면 선조 32(기해, 1599)년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開刊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趙穆은 柳成龍이 刪節한 中草本을 무시하고 刪節되지 아니한 草本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柳成龍이 선조 39(1606, 병오)년경에 李好閔(1553~1634)에게 보낸 편지에서 "宣城人(趙穆)이 갑자기 草本으로 板刻할 줄은 몰랐다"고 하여, 趙穆이 柳成龍의 中草本이 아닌 자신이 編輯한 草本을 바탕으로 간행함으로써 刊行事業에서 柳成龍이 배제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庚子(1600)年의 初刊本이 간행되자마자 柳成龍을 중심으로 改刊이 의논되었는데, 李好閔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소에 이 文集을 펴볼 때마다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다 쓰고 버린 빗자루 같아서 改刊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하여, 庚子本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改刊의 의도는 우선 庚子本을 교정하는 일로 표현되었는데, 柳成龍의 제자인 鄭經世(1563~1633) 등이 이를 교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改刊에 이르지는 못하고 문인 柳成龍에 의하여 「退溪先生年譜」 3권과 附錄 1권이 편찬되어 庚子本에 추가된 듯하다. 이렇게 本集目錄 2권, 本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간행된 「退溪先生文集」의 庚子年 初刊本은 현재 玉山書院 및 啓明大學校 등에 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庚子本 이후의 「退溪先生文集」의 간행은 모두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1) 첫째는 庚子本이 간행된 직후에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부분만을 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庚子本類이다. 庚子本補刻本, 擬庚子本, 庚子本覆

刻本 등으로 불리는 이런 板本은 庚子本이 간행된 선조 33(1600)년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退溪先生文集」이 어느 정도 완전한 판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板本으로 보인다. 따라서 修正이 상당부분 진행된 庚子本의 覆刻本을 제외하고는 그 유포도 비교적 넓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2) 둘째는 重刊本類이다. 重刊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① 이른바 "中本"으로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과 ② 甲辰本(1724) 및 ③ 癸卯本(1843)이 그것이다. ① 中本의 경우 丁丑補刻本(1817)의 刻板日記에 李頤淳(1754~1832)이 쓴 <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文集은 數次 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初本은 萬曆 庚子年(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年譜의 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英廟 甲辰(1724)年間에 傍祖인 三嘉公이 洞主로서 다시 刊板하였는데 당시의 日記가 本家에 있다고 하며 이 板本이 현재 通行되는 板本이다"라고 하여 中本은 그 板本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그 刊行의 時期나 경위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당시에도 이미 이 판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② 甲辰本은 李頤淳의 글에서 나타나듯 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英祖 甲辰年(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頭註가 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甲辰本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刷出되고 流布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板木의 마모에 따라 補刻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甲辰本에 대대적으로 補刻된 경우가 있었는데 위의 「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1817)년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補刻되었다. 이때 廣瀨 李野淳의 箚疑 100餘條 등을 頭註로 添刻하였는데, 새로 刻板한 것이 아닌 舊板에 頭註를 添刻할 때는 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保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補刻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重刊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③ 癸卯本은 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헌종 9(1843, 계묘)년에 간행된 重刊本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嶺南의 전체 士林이 완정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文集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癸卯本은 甲辰本처럼 頭註가 添刻되었으며 전체적으로 板式이 嚴格하고 字體도 楷正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癸卯本은 本集 49권, 別集, 外集, 年譜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年譜에는 憲宗 5(1839, 기해)년에 내린 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癸卯重刊本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續集(8권)은 退溪의 후손 李守淵(1693~1748)이 陶山書院에

소장된 拾遺를 바탕으로 자신이 10여 년간 수집한 著作을 더하여 영조 40(1764, 갑신)년에 편찬한 것이다. 그의 跋文을 보면 續集의 編纂은 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서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편자인 李守淵이 간행까지 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續集의 간행에 대한 다른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정조 12(1788, 무신)년경에 편찬이 완료된 「退溪先生文集考證」에 續集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조 40(1764)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續集의 初刊本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言行錄」은 정조 17(1793, 계축)년에 權斗經(1654～1725)이 편찬한 「退溪言行通錄」 8권을 개정하여 陶山書院에서 6권으로 간행되었다. 「退溪先生文集考證」은 고종 28(1891, 신묘)년에 柳建鎬(?～?)가 간행한 것이다. 처음에 柳道源(1721～1791)이 자신의 隨錄과 洪汝河(1621～1678)가 詩卷에 隨記한 訓解, 그리고 金江漢(1719～1779)이 書簡부분을 주석한 「退溪集考證」을 합하여 정조 12(1788)년에 정리·편집되었다. 그 후 그의 현손인 柳建鎬가 退溪의 후손 李野淳이 隨記한 <要存錄>을 각 卷末에 첨부하여 고종 28(1891, 신묘)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하여 정리한 筆寫本인 「退溪先生全書」가 3種이 있는데 ① 樊南本과 ②上溪本 및 ③ 下溪本으로, 이 중에서 下溪本은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① 樊南本은 고종 6(1869)년에 退溪의 후손 癡翁 李彙溥(1809～1869)·李彙載(1795～1875)·李晩浩(?～?)·李晩慤(1815～1874) 등과 禮安의 유생 40여명이 陶山書院에 모여 重刊本을 내되 「朱子大全」의 체재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된 文集의 草本을 바탕으로 傳存된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정리한 것이다. 이때 光明室에 소장되었던 草本은 최초의 초본인 「退陶集」 20책, 中本으로 불리는 「退溪先生集」 40책, 庚子本의 底本인 「退溪先生文集」 30책 및 「退溪先生手簡」 2책, 「先生文集草本」 1책, 「文集草本」 2책, 「退溪先生集拾遺」 12책 등이었다.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中本인 「退溪先生集」 40책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稿本 중 이 中本에 수록되지 않은 저작을 모두 遺集 13책으로 편차하였으며 李彙溥(1809～1868)가 외부에서 수집한 것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전체는 目錄 1책, 逸書目錄 1책, 本集 66권49책, 外集 1권1책, 別集 2권2책, 續集 8권6책이고, 遺集은 卷次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13책이며 기타 編次가 분명하지 않은 雜著 2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찬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退溪先生文集」과 비교하면 대략 1,000편 정도의 저작이 「退溪先生文集」보다 많으며, 동일한 저작에 있어서도 1,000여 군데 이상이 「退溪先生文集」에서보다 더 첨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版本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특히 遺集의 경우에는 그 目錄과 실제 수록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으며, 편찬원칙을 밝힌 凡例에는 附錄에 <言行通錄.과 <年譜> 등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편의 글도 수집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詩文에 중점을 두어 다른 著

述은 소홀히 취급된 한계가 있다. 이 樊南本 97권 75책은 경비를 전담한 李彙溥가 자신의 樊南家塾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樊南本이라고 하며, 1980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陶山全書」로 영인·출간되었다. ② 上溪本은 1910년 이후에 후손들이 樊南本을 저본으로 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上溪의 光明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上溪本이라 하며 本集目錄 1책, 本集 66권26책, 續集 8권3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遺集 20권 6책의 도합 96권 39책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 중 數冊은 韓國動亂으로 遺失되었다고 한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 庚子(1600)年 初刊本은 원래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9권25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는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권2책(32~33, 44~45),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11권 7책이 결락된 本集 45권23책(권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도합 46권 24책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 庚子年 初刊本의 表題·卷首題·卷末題·版心題 등은 모두 '退溪先生文集'이고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行字數는 10行18字이다. 版心의 魚尾는 주로 上下內向花紋魚尾이나 간혹 上下內向黑魚尾와 上下內向有紋魚尾 등이 있기도 하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別集)와 '玉山書院上'(本集) 등의 寄贈記가 墨書되어 있고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다. 李時發(1569~1626)은 本貫이 月城(慶州)이고 字가 養久로 本書가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을 역임하고 있었다. 本集에서 간혹 '玉山書院上'이라는 寄贈記를 지우고 그 위에 '驪江李氏家藏'이라는 藏書記를 墨書한 경우도 있다. 이로 보아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宣祖 33(1600)년에 陶山書院에서 印出되어 玉山書院에 기증된 書籍인데, 어떤 緣由에서인지 李時發에 의하여 守藏되기도 하고 晦齋 李彦迪의 후손 중의 누군가에 의하여 守藏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慶州府印'의 官印이 날인된 이유는 본서가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을 역임하던 李時發과의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硏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硏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인 만큼 書誌學硏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硏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할 당시의 木板이 현재 陶山書院의 所有로 韓國國學振興院에 752매가 殘板으로 전존되고 있다. 庚子年 初

刊「退溪先生文集」의 木板은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硏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硏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소장의 庚子年 初刊「退溪先生文集」의 殘板 752매도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文化財廳의 職權調査를 통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初刊「退溪先生文集」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ㅇ 지정사례

<退溪先生文集>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ㅇ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書誌事項

退溪先生文集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木板本.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推定].

本集 45卷23冊 別集 1卷1冊 合46卷24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1.7×16.5㎝,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30.5×22.0㎝. 楮紙. 線裝.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寄贈記: 萬曆庚子玉山書院上, 玉山書院上 등
藏書印: 慶州府印,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
藏書記: 驪江李氏家藏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卷冊數: 本集 45卷23冊(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1권1책 등 도합 46卷24冊

缺　本: 本集 目錄 2卷2冊, 本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冊 등 도합 11卷7冊

ㅇ 현　상

조사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은 계명대학교가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로 현재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본집(本集) 45권 23책(권1～31, 34～43, 46～49), 별집(別集) 1권 1책(목록·권1) 등 도합 46권 24책이 전하고 있다. 결본은 본집가운데 목록 2권 2책, 본집 4권 2책(권32～33, 권44～45) 그리고 외집(外集)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도합 11권 7책 등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이다. 퇴계는 주자(朱子)의 학문과 사상을 이은 도학자로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등 성리학 관련 분야에서 고명한 탁견과 학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특히 퇴계가 당시 군왕인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는 성학(聖學)에 대한 선학들의 도(圖)와 설(說)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유학의 핵심을 10개의 도(圖)로써 정리한 것으로, 군주는 사단(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본성(本性)을 회복한 성인(聖人)이 되는 학문인 성학(聖學)을 돈독히 닦아 그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선생문집』의 편찬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571년(선조 4, 신미)부터 시작되었다.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은 1571년부터 역동서원(易東書院)에 모여 유문(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각처에 있던 제자들도 각자가 정리한 초고를 역동서원으로 보내오자 1573년(선조 6, 계유)에는 선조가 류성룡(柳成龍, 1542～1607) 등의 요청에 따라 『퇴계집(退溪集)』을 교서관에서 인출하라고 하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후 문집의 편집은 대체로 예안(禮安)에 있던 조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 1584년 9월에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모여 『퇴계선생문집』을 교정하였는데 당시 대략 초고의 편집이 완성되고 초본(草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퇴계선생문집』의 본격적인 간행은 1600년(선조 33, 경자)에 도산서원에서 조목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조목의 「문집고성문(文集告成文)」에 의하면 1599년(선조 32, 기해)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개간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자본(庚子本)의 간행 이후 류성룡에 의하여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 3권과 부록 1권이 편찬되어 경자본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본집(本集) 목록 2권, 본집(本集) 49권, 별집(別集) 1권, 외집(外集) 1권, 연보(年譜) 4권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간행된 경자본(庚子本)은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 및 계명대학교 등에 잔본(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경자본 이후의 『퇴계선생문집』의 간행은 모두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자본이 간행된 직후에 경자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 부분만을 개각(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경자본류(庚子本類)이다. 경자본 보각본(庚子本補刻本), 의경자본(擬庚子本), 경자본복각본(庚子本覆刻本) 등으로 불리는 이런 판본은 경자본이 간행된 1600년경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중간본류(重刊本類)이다. 중간본에는 ① 이른바 '중본(中本)'으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甲辰本(1724) ③ 癸卯本(184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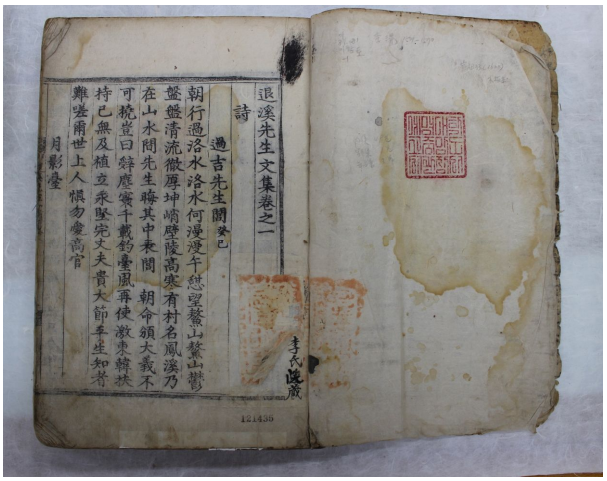
'중본(中本)'에 대해서는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1817)의 각판일기(刻板日記)에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이 쓴 「제문집개간일기후(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문집은 수차 간판(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초본(初本)은 만력(萬曆) 경자년(庚子年, 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연보의 문집조성문(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본(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영묘(英廟) 갑진(甲辰, 1724) 연간에 방조(傍祖)인 삼가공(三嘉公)이 동주(洞主)로서 다시 간판하였는데 당시의 일기가 본가(本家)에 있다고 하며 이 판본이 현재 통행되는 판본이다"라고 하여 '중본'은 그 판본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그 간행의 시기나 경위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당시에도 이미 이 판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갑진본(甲辰本)은 이이순의 글에서 나타나듯 경자본(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조 갑진년(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두주(頭註)가 첨각(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갑진본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쇄출(刷出)되고 유포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목의 마모에 따라 보각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진본에 대대적으로 보각된 경우가 있었는데 「선조문집개간일기(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년(1817)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보각되었다. 이때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의 차의(箚疑) 100 여 조 등을 두주(頭註)로 첨각하였는데, 새로 각판한 것이 아닌 구판(舊板)에 두주를 첨각할 때는 판두(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보각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간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갑진중간보각본(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계묘본은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1843년(헌종 9, 계묘)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퇴계선생문집중간시일기(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계묘교정중간본(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영남의 전체 사림이 완정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문집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계묘본은 갑진본처럼 두주가 첨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판식(板式)이 엄격하고 자체도 해정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계묘본은 본집 49권, 별집, 외집, 연보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연보에는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내린 치제문(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계묘중간본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퇴계선생문집』은 1600년 간행된 경자본(庚子本) 초간본으로 원래 본집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이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권 2책(32~33, 44~45),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11권 7책이 결락된 본집 45권 23책(권1~31, 34~43, 46~49) 그리고 별집(목록·권1) 등 모두 46권 24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본집 권1 표지



본집 권1 권두

별집 권1 표지

별집 목록

조사본『퇴계선생문집』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별집)와 ‘玉山書院上’(본집) 등의 기증기(寄贈記)가 묵서되어 있고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다.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은 본관이 월성(月城;慶州)이고 자가 양구(養久)로 본서가 간행되던 1600년 당시 경주부윤을 지냈던 인물이다.

본집에서 간혹 ‘玉山書院上’이라는 기증기를 지우고 그 위에 ‘驪江李氏家藏’이라는 장서기(藏書記)를 묵서한 경우도 있다. 이로 보아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은 1600년에 도산서원에서 인출되어 옥산서원(玉山書院)에 기증된 서적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시발에 의하여 수장되기도 하고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후손 중의 누군가에 의하여 수장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퇴계선생문집』은 조선 중기에 성리학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영남학파의 종주가 된 퇴계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퇴계의 학문과 성리학사상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문헌사학적으로도 그 전래가 드문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ㅇ 지정사례

『퇴계선생문집』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안건번호 동산 2016-01-009

9. 퇴계선생문집 목판(退溪先生文集 木板)

가. 심의사항

'퇴계선생문집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3.4.29)된 '퇴계선생문집'에 대한 관계전문가 조사('15.1.23) 결과,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퇴계선생문집 목판'과 함께 지정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15.4.22)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퇴계선생문집 목판(退溪先生文集 木板)
○ 소유자(관리자): 도산서원(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 소 재 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 수　　량: 752매 (본집 709매, 외집 15매, 별집 28매)
○ 규격(cm): 세로 19.5(18.9)×가로 55.9(17.7)×두께 3.0 내외
○ 재　　질: 목(木, 松木 등)
○ 판　　종: 목판(木板)
○ 형　　식: 양면(兩面)·양각(陽刻)
○ 제작연대: 1600년(선조 33) 판각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退溪先生文集冊版」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인 退溪 李滉(1501-1570)의 학문적 성과를 集成한 퇴계선생문집을 인출하기 위하여, 1600년(선조33)에 門人 趙穆등이 중심이 되고 여타 후학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판각한 庚子板의 일부가 전래된 것이다.

이들 冊版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은 물론, 이를 편집하고 板刻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문집편집의 방법과 성과가 조선후기의 문집 편집과 판각의 典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책판은 바로 서적출판의 필름과도 같은 그 本體라는 점에서, 유교사회 공동체의 이해를 비롯하여 당시의 출판문화사 연구 등에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된다. 따라서 이들 책판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ㅇ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退溪先生文集」 庚子(1600)年 初刊本을 印出해낸 木板이다. 「退溪先生文集」은 원래 本集 目錄 2권2책, 本集 49권25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57卷 31冊으로 구성된 退溪의 全集이나 全集의 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원래 木板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에는 현재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매의 殘存 木板이 所藏되어 있을 뿐이다.

庚子年 初刊本의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全集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硏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硏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조사문화재 庚子年 初刻의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硏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硏究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 소장의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殘板 752매는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ㅇ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退溪先生文集木板)』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인 『퇴계선생문집(退溪先

生文集)』 경자본(庚子本) 초간본(初刊本)을 인출해낸 목판이다.

『퇴계선생문집』은 원래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계선생문집목판』은 본래 수량은 경자년 초간본 『퇴계선생문집』의 전질(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은 경자년 초간본인 『퇴계선생문집』과 함께 중요한 유물로 조선 중기의 사회사, 문헌학상 목판본 연구를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形態事項 :

退溪先生文集 木板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板刻者 不明]. -- 木板.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都合 752枚 : 四周雙邊, 半郭 18.9×17.7㎝,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19.5×55.9×3.0㎝ 內外.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木板數: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도합 752枚가 保傳되어 있음.
所藏板: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제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기지정: 무

ㅇ 현 상

조사대상 문화재인 退溪先生文集冊板(752매)은 2003년도에 陶山書院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관리중이다.

冊板의 保存狀態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일부의 책판은 마구리가 훼손되어 있고, 上邊欄 위에 추가로 판각하여 연결한 校勘記 등의 연결상태가 부실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리할 필요가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退溪先生文集冊版」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인 退溪 李滉(1501~1570)의 학문적 성과를 集成한 퇴계선생문집을 인출하기 위하여 1600년(선조33)에 판각한 책판 중에 지금까지 전래된 752枚이다.

「退溪先生文集冊版」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은 물론, 이를 편집하고 板刻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문집편집의 방법과 성과가 조선후기 문집의 편집과 판각의 典範이 된 그 本體라는 점에서,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학진흥원소장 퇴계집책판은 선생의 門人인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심이 되고, 여러 문인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하에 퇴계선생 사후 30여년 만에 완성을 본 庚子板(1600)이다. 편집기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판각되면서 오류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수정판이 간행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들 책판에는 上邊의 윗 부분에 나무에 새겨 철판으로 연결시킨 교감기나 주석등을 보게 되는데, 이는 경자본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방법의 흔적들이다.

ㅇ 지정사례

退溪先生文集冊板과 동종의 유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ㅇ 문헌정보

- 신승운,퇴계집해제(한국문집총간. www.itkc.or.kr)
- 신승운,유교사회의 출판문화,대동문화연구39권(365-394),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2001.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韓國國學振興院(http://mokpan.ugyo.net/index.do)
- 陶山書院(http://www.dosanseowon.com/)
-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硏究所 提供 <退溪先生文集 木板目錄>(陶山書院)

□

▢ 形態記述 :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文集 木板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板刻者 不明]. -- 木板.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刻 推定].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都合 752枚 : 四周雙邊, 半郭 18.9×17.7㎝,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19.5×55.9×3.0㎝ 內外. 木(松木 등). 兩面·陽刻.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木板數: 原板의 數量은 알 수 없으며, 현재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枚가 殘板으로 傳存되고 있음.
所藏板: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도합 752매)
狀　態: 殘存 木板 752매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요망한다.
所　藏: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硏究所(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傳來歷: 韓國國學振興院이 2003년 4월 14일에 陶山書院으로부터 受託함.
旣指定: 無

ㅇ 현　상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의 陶山書院의 소유로 현재 慶尙北道 安東市 陶山面 退溪路 1997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에 陶山書院의 寄託으로 守藏되고 있으며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硏究所에 의

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保存狀態는 殘存 木板 752매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요망한다.

ㅇ 내용 및 특징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退溪는 朱子의 학문과 사상을 이은 道學者로서 理氣互發說 등 性理學 관련 분야에서 고명한 탁견과 학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특히 退溪가 당시 君王인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는 聖學에 대한 先學들의 圖와 說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儒學의 핵심을 10개의 圖로써 정리한 것으로, 君主는 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本性을 회복한 聖人이 되는 學問인 聖學을 돈독히 닦아 그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退溪는 평소에 자신의 著作을 매우 유의하여 정리해 놓았던 듯하다. 生前에 「自省錄」을 편집한 것이라든지, 순조 7(1807, 정묘)년에 후손 李野淳(1755～1831)이 편찬한 「退溪先生年譜補遺」은 그 凡例에서 선생의 文集·逸集·雜錄·手本·日記·來歷·草記 등에 의하여 追補된 것이라고 한 사실이라든지, 고종 6(1869, 기사)년에 「陶山全書」를 編纂할 때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되어 있던 「退陶集」·「退溪先生集」·「先生文集草本」·「文集草本」·「退溪先生文集拾遺」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든지 하는 등의 사실은 退溪의 著述이 잘 보전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퇴계의 生前부터 잘 보전된 遺文에 대한 정리로 「退溪先生文集」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편찬은 退溪가 卒去한 직후인 선조 4(1571, 신미)년부터 시작되었다. 退溪의 高弟인 月川 趙穆(1524～1606)을 중심으로 그의 弟子들은 선조 4(1571)년부터 易東書院에 모여 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각처에 있던 弟子들도 각자가 정리한 草稿를 易東書院으로 보내오자 선조 6(1573, 계유)년에는 宣祖가 柳成龍(1542～1607) 등의 요청에 따라 「退溪集」을 校書館에서 印出하라고 하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11(1578, 무인)년에 退溪의 손자인 李安道(1541～1584)가 어느 정도 정리된 草稿를 가지고 漢陽으로 올라와 在京門徒인 柳成龍을 중심으로 乙覽을 위한 編輯과 校正 그리고 淨寫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覽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의 文集의 編輯은 대체로 禮安에 있던 趙穆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月川年譜」에는 "甲申(1584)年 9월에 「退溪先生文集」을 裒集하였다"고 하였고 柳雲龍(1539～1601)의 年譜에서도 동(1584)년 9월에 陶山書院에서 모여 「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참여자였던 趙穆, 琴應壎(1540～1616), 權宇(1552～1590), 金澤龍(1547～1627), 金垓(1555～1593), 洪汝栗(1563～1600) 등의 姓名이 脚

註에 수록되어 있다. 이때에 대략 초고의 編輯이 완성되고 草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草本의 교정과 편찬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鶴峯 金誠一(1538~1593)이 선조 19(1586, 병술)년경에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서 文集의 草本이 趙穆을 중심으로 琴應壎과 琴應夾(?~?) 등에 의하여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초본에는 退溪의 모든 著作이 수록되었으며 심지어 手錄本의 詩稿에서 退溪가 刪節한 것까지도 別集 등으로 編次하여 편입되었다. 이렇게 文集의 草本이 완성된 후에 柳成龍은 선조 19(1586, 병술)년에 趙穆에게 편지를 보내 "編輯의 원칙은 次第가 분명해야 하고 상세하고 간명한 것이 모두 적당해야 합니다"고 하며 刪節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20(1587, 정해)년 5월에 趙穆, 柳雲龍, 金誠一이 廬江書院에서 모였으나 이 회합에 柳成龍이 참석하지 않아 刪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다만 이 모임에서는 文集의 草本에 대한 校正의 方案과 分擔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刪節이 결정된 것은 동(1587)년 8월 屛山의 會合에서였다. 이때 刪節에 부정적인 趙穆과 刪節을 주장한 柳成龍의 대립을 金誠一이 중재하여 일단 柳成龍의 의견에 따라 刪節하기로 결정되었던 듯하다. 이에 따라 柳成龍은 선조 21(1588, 무자)년 초까지 刪節을 모두 마치고 이를 다시 繕寫하여 中草本의 작성에 착수하였는데, 이 中草本의 작성은 柳成龍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동(1588)년 6월 15일에는 屛山에서 中草本에 대한 교정과 편집회의가 열렸으며, 대체로 柳成龍을 중심으로 교정을 진행하여 조속히 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柳成龍의 刪節本으로 中草本이 작성되는 것에 반대한 趙穆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禹性傳(1542~1593)과 같이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全稿收錄의 원칙을 견지하는 門徒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동(1588)년 10월에 柳成龍이 형조판서에 제수되어 入京하자 그를 따라 서울에서 中草本의 작업이 진행된 듯하나, 이 中草本의 작성은 선조 22(1589, 기축)년에 일어난 己丑獄事로 인하여 지지부진해지고 선조 25(1592, 임진)년의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退溪先生文集」의 본격적인 刊行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의 主導로 이루어지는데, 趙穆의 <文集告成文>에 의하면 선조 32(기해, 1599)년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開刊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趙穆은 柳成龍이 刪節한 中草本을 무시하고 刪節되지 아니한 草本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柳成龍이 선조 39(1606, 병오)년경에 李好閔(1553~1634)에게 보낸 편지에서 "宣城人(趙穆)이 갑자기 草本으로 板刻할 줄은 몰랐다"고 하여, 趙穆이 柳成龍의 中草本이 아닌 자신이 編輯한 草本을 바탕으로 간행함으로써 刊行事業에서 柳成龍이 배제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庚子(1600)年의 初刊本이 간행되자마자 柳成龍을 중심으로 改刊이 의논되었는데, 李好閔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소에 이 文集을 펴볼 때마다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다 쓰고 버린 빗자루 같아서 改刊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하여, 庚子本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토로하

고 있다. 이러한 改刊의 의도는 우선 庚子本을 교정하는 일로 표현되었는데, 柳成龍의 제자인 鄭經世(1563~1633) 등이 이를 교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改刊에 이르지는 못하고 문인 柳成龍에 의하여 「退溪先生年譜」 3권과 附錄 1권이 편찬되어 庚子本에 추가된 듯하다. 이렇게 本集目錄 2권, 本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간행된 「退溪先生文集」의 庚子年 初刊本은 현재 玉山書院 및 啓明大學校 등에 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庚子本 이후의 「退溪先生文集」의 간행은 모두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1) 첫째는 庚子本이 간행된 직후에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부분만을 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庚子本類이다. 庚子本補刻本, 擬庚子本, 庚子本覆刻本 등으로 불리는 이런 板本은 庚子本이 간행된 선조 33(1600)년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退溪先生文集」이 어느 정도 완전한 판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板本으로 보인다. 따라서 修正이 상당부분 진행된 庚子本의 覆刻本을 제외하고는 그 유포도 비교적 넓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2) 둘째는 重刊本類이다. 重刊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① 이른바 "中本"으로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과 ② 甲辰本(1724) 및 ③ 癸卯本(1843)이 그것이다. ① 中本의 경우 丁丑補刻本(1817)의 刻板日記에 李頤淳(1754~1832)이 쓴 <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文集은 數次 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初本은 萬曆 庚子年(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年譜의 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英廟 甲辰(1724)年間에 傍祖인 三嘉公이 洞主로서 다시 刊板하였는데 당시의 日記가 本家에 있다고 하며 이 板本이 현재 通行되는 板本이다"라고 하여 中本은 그 板本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그 刊行의 時期나 경위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당시에도 이미 이 판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② 甲辰本은 李頤淳의 글에서 나타나듯 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英祖 甲辰年(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頭註가 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甲辰本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刷出되고 流布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板木의 마모에 따라 補刻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甲辰本에 대대적으로 補刻된 경우가 있었는데 위의 「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1817)년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補刻되었다. 이때 廣瀨 李野淳의 箚疑 100餘條 등을 頭註로 添刻하였는데, 새로 刻板한 것이 아닌 舊板에 頭註를 添刻할 때는 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保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補刻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重刊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③ 癸卯本은 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

인 헌종 9(1843, 계묘)년에 간행된 重刊本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嶺南의 전체 士林이 완정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文集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癸卯本은 甲辰本처럼 頭註가 添刻되었으며 전체적으로 板式이 嚴格하고 字體도 楷正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癸卯本은 本集 49권, 別集, 外集, 年譜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年譜에는 憲宗 5(1839, 기해)년에 내린 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癸卯重刊本은 奎章閣과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續集(8권)은 退溪의 후손 李守淵(1693~1748)이 陶山書院에 소장된 拾遺를 바탕으로 자신이 10여 년간 수집한 著作을 더하여 영조 40(1764, 갑신)년에 편찬한 것이다. 그의 跋文을 보면 續集의 編纂은 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서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편자인 李守淵이 간행까지 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續集의 간행에 대한 다른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정조 12(1788, 무신)년경에 편찬이 완료된 「退溪先生文集考證」에 續集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조 40(1764)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續集의 初刊本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言行錄」은 정조 17(1793, 계축)년에 權斗經(1654~1725)이 편찬한 「退溪言行通錄」 8권을 개정하여 陶山書院에서 6권으로 간행되었다. 「退溪先生文集考證」은 고종 28(1891, 신묘)년에 柳建鎬(?~?)가 간행한 것이다. 처음에 柳道源(1721~1791)이 자신의 隨錄과 洪汝河(1621~1678)가 詩卷에 隨記한 訓解, 그리고 金江漢(1719~1779)이 書簡부분을 주석한 「退溪集考證」을 합하여 정조 12(1788)년에 정리·편집되었다. 그 후 그의 현손인 柳建鎬가 退溪의 후손 李野淳이 隨記한 <要存錄>을 각 卷末에 첨부하여 고종 28(1891, 신묘)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현재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하여 정리한 筆寫本인 「退溪先生全書」가 3種이 있는데 ① 樊南本과 ②上溪本 및 ③ 下溪本으로, 이 중에서 下溪本은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① 樊南本은 고종 6(1869)년에 退溪의 후손 癡翁 李彙溥(1809~1869)·李彙載(1795~1875)·李晩浩(?~?)·李晩慤(1815~1874) 등과 禮安의 유생 40여명이 陶山書院에 모여 重刊本을 내되 「朱子大全」의 체재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된 文集의 草本을 바탕으로 傳存된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정리한 것이다. 이때 光明室에 소장되었던 草本은 최초의 초본인 「退陶集」 20책, 中本으로 불리는 「退溪先生集」 40책, 庚子本의 底本인 「退溪先生文集」 30책 및 「退溪先生手簡」 2책, 「先生文集草本」 1책, 「文集草本」 2책, 「退溪先生集拾遺」 12책 등이었다.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中本인 「退溪先生集」 40책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稿本 중 이 中本에 수록되지 않은 저작을 모두 遺集

13책으로 편차하였으며 李彙溥(1809~1868)가 외부에서 수집한 것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전체는 目錄 1책, 逸書目錄 1책, 本集 66권49책, 外集 1권1책, 別集 2권2책, 續集 8권6책이고, 遺集은 卷次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13책이며 기타 編次가 분명하지 않은 雜著 2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찬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退溪先生文集」과 비교하면 대략 1,000편 정도의 저작이 「退溪先生文集」보다 많으며, 동일한 저작에 있어서도 1,000여 군데 이상이 「退溪先生文集」에서보다 더 첨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版本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특히 遺集의 경우에는 그 目錄과 실제 수록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으며, 편찬원칙을 밝힌 凡例에는 附錄에 <言行通錄.과 <年譜> 등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 편의 글도 수집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詩文에 중점을 두어 다른 著述은 소홀히 취급된 한계가 있다. 이 樊南本 97권 75책은 경비를 전담한 李彙溥가 자신의 樊南家塾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樊南本이라고 하며, 1980년에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陶山全書」로 影印·出刊되었다. ② 上溪本은 1910년 이후에 후손들이 樊南本을 저본으로 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上溪의 光明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上溪本이라 하며 本集目錄 1책, 本集 66권26책, 續集 8권3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遺集 20권 6책의 도합 96권 39책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 중 數冊은 韓國動亂으로 遺失되었다고 한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退溪先生文集」 庚子(1600)年 初刊本을 印出해낸 木板이다. 「退溪先生文集」은 원래 本集 目錄 2권2책, 本集 49권25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57卷 31冊으로 구성된 退溪의 全集이다. 그러나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원래 木板數는 庚子(1600)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의 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에는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 등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매의 殘存 木板이 所藏되어 있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書名은 表題·卷首題·版心題·卷末題 등이 모두 '退溪先生文集'이다. 板式은 邊欄이 四周雙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9㎝이고 가로 17.7㎝이다. 板面에는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10行 18字이다. 板口는 白口이며 版心의 魚尾는 上下內向花紋魚尾와 上下內向黑魚尾 및 上下內向有紋魚尾 등이 혼재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19.5㎝, 가로 55.9㎝, 두께 3.0㎝ 내외이다. 나무의 종류는 松木 등이며 板面의 兩面에 陽刻되어 있다.

庚子年 初刊本의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全集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硏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硏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조사문화재 庚子年 初刻의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硏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硏究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 소장의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殘板 752매는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ㅇ 지정사례

<退溪先生文集 木板>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ㅇ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韓國國學振興院(http://mokpan.ugyo.net/index.do)
- 陶山書院(http://www.dosanseowon.com/)
-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硏究所 提供 <退溪先生文集 木板目錄>(陶山書院) 參看

□

書誌事項

退溪先生文集 木板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板刻者 不明]. -- 木板.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刻 推定].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都合 752枚 : 四周雙邊, 半郭 18.9×17.7㎝,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19.5×55.9×3.0㎝ 內外. 木(松木 등). 兩面·陽刻.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木板數: 原板의 數量은 알 수 없으며, 현재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枚가 殘板으로 傳存되고 있음.
所藏板: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도합 752매)

ㅇ 현　상

조사본 『퇴계선생문집목판(退溪先生文集木板)』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소유로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도산서원의 기탁으로 수장되어 있다.

본래 원판(原板)의 수량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본집 709매, 외집 15매, 별집 28매 등 모두 752매가 잔판으로 전존되고 있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退溪先生文集木板)』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경자본(庚子本) 초간본(初刊本)을 인출해낸 목판이다.

『퇴계선생문집』은 원래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계선생문집목판』은 본래 수량은 경자년 초간본 『퇴계선생문집』의 전질(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는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6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2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2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 등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등 모두 752매의 잔존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 진행

목록 권1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의 서명은 표제·권수제·판심제·권말제 등이 모두 '퇴계선생문집'이다. 판식(板式)은 변란이 사주단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

의 크기는 세로 18.9㎝이고 가로 17.7㎝이다. 판면(板面)에는 계선(界線)이 있고 행자수는 10행 18자이다. 판구(板口)는 백구(白口)이며 판심(版心)의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화문어미(上下內向花紋魚尾)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및 상하내향유문어미(上下內向有紋魚尾) 등이 혼재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19.5㎝, 가로 55.9㎝, 두께 3.0㎝ 내외이다. 나무의 종류는 송목(松木) 등이며 판면의 양면에 양각(陽刻)되어 있다.

『퇴계선생문집』의 본격적인 간행은 1600년(선조 33, 경자)에 도산서원에서 조목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조목의 「문집고성문(文集告成文)」에 의하면 1599년(선조 32, 기해)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개간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자본(庚子本)의 간행 이후 류성룡에 의하여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 3권과 부록 1권이 편찬되어 경자본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본집(本集) 목록 2권, 본집(本集) 49권, 별집(別集) 1권, 외집(外集) 1권, 연보(年譜) 4권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간행된 경자본(庚子本)은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 및 계명대학교 등에 잔본(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한편 국학진흥원에는 경자본과 함께 경자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 부분만을 개각(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목판들이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들 목판은 중간본류(重刊本類)에 해당하는데, 甲辰本(1724), 癸卯本(1843)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1817)의 「각판일기(刻板日記)」에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이 쓴 「제문집개간일기후(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문집은 수차 간판(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초본(初本)은 만력(萬曆) 경자년(庚子年, 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연보의 문집조성문(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본(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영묘(英廟) 갑진(甲辰, 1724) 연간에 방조(傍祖)인 삼가공(三嘉公)이 동주(洞主)로서 다시 간판하였는데 당시의 일기가 본가(本家)에 있다고 하며 이 판본이 현재 통행되는 판본이다"라고 하여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갑진본(甲辰本)은 이이순의 글에서 나타나듯 경자본(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조 갑진년(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두주(頭註)가 첨각(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갑진본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刷出(刷出)되고 유포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목의 마모에 따라 보각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진본에 대대적으로 보각된 경우가 있었는데 「선조문집개간일기(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년(1817)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보각되었다. 이때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의 차의(箚疑) 100 여 조 등을 두주(頭註)로 첨각하였는데, 새로 각판한 것이 아닌 구판(舊板)에 두주를 첨각할 때

는 판두(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보각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간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갑진중간보각본(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계묘본은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1843년(헌종 9, 계묘)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퇴계선생문집중간시일기(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계묘교정중간본(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영남의 전체 사림이 완정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문집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계묘본은 갑진본처럼 두주가 첨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판식(板式)이 엄격하고 자체도 해정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계묘본은 본집 49권, 별집, 외집, 연보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연보에는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내린 치제문(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계묘중간본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경자본과 정축보각본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은 경자년 초간본인 『퇴계선생문집』과 함께 중요한 유물로 조선 중기의 사회사, 문헌학상 목판본 연구를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지정사례

『퇴계선생문집목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6-01-10

1. 보물 제1168호‘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및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프랑스, 러시아 순회전을 통해 한국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신청한 보물 제1168호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및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2건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청한 보물 제1168호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및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2건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 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대상문화재 및 수량

- 보물 제1168호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1건 1점
-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1건 1점

○ 장소 및 기간

- 반출기간 : 2016년 4월 10일 ~ 11월 20일
- 전시기간
  · 프랑스 그랑팔레 : 2016년 4월 27일 ~ 2016년 6월 20일
  ·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 2016년 7월 29일 ~ 2016년 11월 6일

○ 전시 명칭 : 흙, 불, 혼 - 한국 도자 명품전

Earth, Fire, Spirit - Masterpieces of Korean Ceramics

라. 국외반출 대상 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6. 1. 25(월) / 1. 28(목)

○ 조사장소 : 국립진주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 조사자 의견

<보물 제1168호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별한 손상진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보수와 보존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충격에 약한 유물의 재질상 보존보다는 이동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 회화성이 가미된 고품격의 명품 상감청자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유물이다. 철저한 안전이 보장된다면 고려 예술의 정수 가운데 하나인 상감청자의 대표적 걸작인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을 해외에 전시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알찬 문화외교의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 굽저부에서 동체 아래쪽으로 미세한 실금이 3곳 정도 있음.
- 구연, 굽, 동체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함. 별도의 보수·보존처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봄.
-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함. 별도로 수리나 보수된 부분이 없고, 결실된 부분도 없음. 미세한 실금이 일부 있으나 별도의 수리 등은 필요치 않아 보임. 포장과 운반, 현지에서의 전시 과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 잘 다룬다면 해외 전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시대상국으로부터 유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보안경비 강화, 대테러 대비방안을 선 마련한 후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 1168호	
② 명 칭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33.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진주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342호	
② 명 칭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본관 1981)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35.4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6-01-11

1. 국보 제164호 '무령왕비 베개(武寧王妃 頭枕)'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164호 '무령왕비 베개(武寧王妃 頭枕)'의 박락 및 결손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공주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164호 '무령왕비 베개'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공주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23.7cm, 길이44.2cm, 폭12cm
○ **재　　질** : 목재(木材)
○ **제작연대** : 백제시대(6세기)
○ **지 정 일** : 1974. 7. 9.
○ **문화재내용** : 무령왕비(武寧王妃)의 관(棺)에서 발견된 나무로 만든 두침(頭枕)이다. 통나무를 사다리꼴로 만든 다음 그 긴 변의 중앙에 머리가 놓일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파냈다. 전체에 붉은 주(朱)를 칠하고 그 위에 금박(金箔)을 오려 붙여서 귀갑문(龜甲文)을 만들었다.

라. 현 상태

○ 채색안료의 박락 현상 심화
○ 육각문의 금박 결실

사진 1. 무령왕비 베개(국보 제164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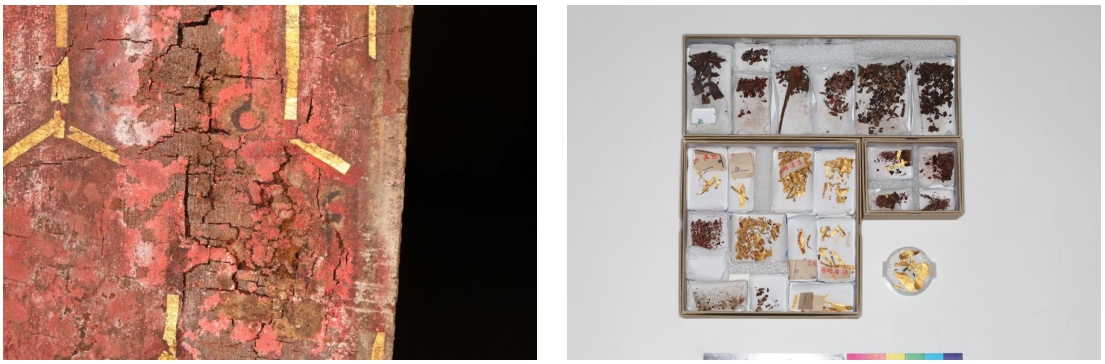


사진 2. 무령왕비 베개(국보 제164호) 세부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무령왕비 베개의 채색안료에 대한 강화처리 및 금박 결실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X-선 및 CT·촬영 : 처리 전 목재 내부의 분해 상태 확인
- 채색안료 등 재질분석, 칠기법 분석 : 제작기법 조사

○ 이물질제거 : 건식세척(부드러운 붓 사용), 칠기 부분은 습식세척 병행

○ 목재 강화처리 : 조사 결과에 따라 천연재료인 단말수지나 Paraloid-B72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범위 강화처리
○ 채색 등 표면 안정화처리 : 안료 박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천연재료인 후노리, 아교 등을 사용하여 안정화처리
○ 금박 접합 : 후노리 20~30%(in 증류수) 등으로 금박 결실부 접합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 공동으로 자체 보존처리(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임시 이관)
○ 보존처리 기간 : 2016. 2. - 2017. 12.(23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하에 실시

안건번호 동산 2016-01-12

2. 국보 제165호 ‘무령왕 발받침(武寧王 足座)’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165호 ‘무령왕 발받침(武寧王 足座)’의 박락 및 결손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공주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165호 ‘무령왕 발받침’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공주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19.5cm, 길이43.2cm, 폭9.8cm
○ **재　　질** : 목재(木材)
○ **제작연대** : 백제시대(6세기)
○ **지 정 일** : 1974. 7. 9.
○ **문화재내용** : 무령왕릉 목관 안에서 발견된 장의용 나무 발 받침으로 왕의 발 받침대이다. 윗부분이 넓고 아랫부분이 좁은 사다리꼴 통나무의 중앙을 W자로 깊게 파서 양 발을 올려놓게 만들었다. 전면에 검은색 옻칠을 하고 폭 0.7㎝정도의 금판을 오려 거북등 무늬를 만들었으나 일부는 떨어져 없어졌다.

라. 현 상태

○ 목재 부후에 따른 칠도막 들뜸 현상 발생
○ 금제장방형판식 및 금제화형장식 등의 결실

사진 1. 무령왕 발받침 현황(국보 제165호)

사진 2. 무령왕 발받침 세부현황(국보 제165호)

마. 현상변경 내용

○ 무령왕 발받침의 칠도막 고착 및 금제방형판식과 금제화형장식 등의 결실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X-선 및 CT·촬영 : 처리 전 목재 내부의 분해 상태 확인
- 채색안료 등 재질분석, 칠기법 분석 : 제작기법 조사

○ 이물질제거 : 건식세척(부드러운 붓 사용), 칠기 부분은 습식세척 병행

○ 목재 강화처리 : 조사 결과에 따라 천연재료인 단말수지나 Paraloid-B72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범위 강화처리

○ 칠 접착 : 들뜨거나 박락된 칠 부분에 대해 아교로 접착
○ 표면 안정화 처리 : 안료 박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천연재료인 후노리, 아교 등을 사용하여 안정화 처리,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에 따라 결실부 보강
○ 금제장방형판식, 금제화형장식 접합 : 기존 칠도막에 남겨진 흔적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원래 있던 곳을 찾아 고정(잔편으로 존재하는 금제못 활용)
○ 보존처리 기간 : 2016. 2. - 2017. 12.(23개월)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 공동으로 자체 보존처리(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임시 이관)
○ 보존처리 기간 : 2016. 2. - 2017. 12.(23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하에 실시

안건번호 동산 2016-01-13

3. 국보 제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 -청동팔주원령(靑銅八珠圓鈴)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청동팔주원령(靑銅八珠圓鈴)의 균열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청동팔주원령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2점
○ **규　　격** : 길이 12.6cm, 너비 2.6cm
○ **재　　질** : 청동(靑銅)
○ **제작연대** : 청동기시대
○ **지 정 일** : 1972. 3. 2.
○ **문화재내용** : 바탕에 흑수(黑銹)가 곱게 광택을 내고 있다. 변형된 8각형 4줄을 새기고 단사선문(單斜線文)들을 새겨 매우 상징적이다. 특히 8개의 영(鈴) 표면에는 각각 쌍두와문(雙頭渦文)을 새겼다. 뒷면에는 뉴(유)가 하나 있어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분히 주술적(呪術的)인 의기(儀器)의 하나로 여겨진다. 2점 중 1점은 완전한 편이나 다른 1점은 파손이 매우 심하다.

.

라. 현 상태

○ 일부 결실된 부위가 존재하며, 분리된 편을 접합하였음
○ 균열 부위와 접합 부위가 취약한 상태임

사진 1.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청동팔주원령(국보 제143호) 정면 현황

사진 2,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청동팔주원령(국보 제143호) 세부 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부식 방지를 위해 안정화 처리를 하여 부식 진행을 억제

○ 부식 인자 차단을 위해 표면 경화 처리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X선 촬영 및 현미경 관찰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 방청 처리 및 보호 코팅

- 방청처리와 함께, 코팅 효과가 우수하고 추후 제거가 가능한 가역적인 재료로 표면을 코팅한다

○ 접합 및 복원

- 균열 부위와 취약한 접합 부위는 보강한다.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보존처리

○ 보존처리 기간 : 2016. 4 - 2017. 9(6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하에 실시

안건번호 동산 2016-01-14

4. 보물 제339호 '서봉총금관(瑞鳳塚金冠)'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339호 '서봉총금관(瑞鳳冢金冠)'의 원형회복 및 기존 보존처리 부위 재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339호 '서봉총금관'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35cm, 너비18.5cm
○ **재　　질** : 금속(金屬)
○ **제작연대** : 신라시대
○ **지 정 일** : 1963. 1. 21.
○ **문화재내용** : 경주 노서동 신라 무덤인 서봉총에서 출토된 높이 30.7㎝, 지름 18.4㎝, 드리개(수식) 길이 24.7㎝인 금관이다.
넓은 관 테 위에 5개의 가지를 세웠고, 상하에 점선으로 물결무늬를 찍고 나뭇잎 모양의 원판과 굽은 옥으로 장식했다. 관 테에 못으로 고정시켜서 세운 5개의 가지 중 중앙과 그 좌우의 3가지는 山자형 장식을 3단으로 연결하고, 가지 끝은 꽃봉오리 모양으로 마무리 했다. 이 가지 주위에는 2줄씩 점선을 찍어 금판이 휘지 않도록 했고, 나뭇잎 모양의 원판과 굽은 옥을 달았다. 山자형 장식의 좌우에는 끝이 꽃봉오리 모양으로 마무리 된 사슴뿔 장식을 세웠고, 이곳에도 원판과 옥으로 장식했다.

라. 현 상태

○ 양대 및 봉황장식이 여러군데 파손되어 있으며, 파손부는 출토 이후 금속판과 금속선으로 수리되어 있음

○ 출토 당시의 형상과 현재의 유물 형상에서 양대의 위치가 서로 다름

○ 수리재료와 유물표면의 마찰로 인한 손상 우려 있음

사진 1. 서봉총금관(보물 제339호) 정면 및 측면 현황

사진 2. 서봉총금관(보물 제339호) 세부 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서봉총금관의 기존 수리재료 제거 및 이물질 제거

○ 파손부 접합 및 부속품의 잘못된 복원 위치 정정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X선 촬영 및 현미경 관찰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 기존 수리재료 제거 및 이물질 제거

- 분리부에 덧대어 있는 금속판과 유물표면에 손상을 주고 있는 금속선 등을 제거
- 표면의 이물질 제거

○ 접합 및 복원

- 양대와 봉황장식의 파손부를 접합 후, 안정한 재료로 보강
- 양대와 봉황장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올바른 위치에 고정, 함께 수습된 곱은옥의 위치 복원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보존처리

○ 보존처리 기간 : 2016. 3. - 2017. 7.(5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하에 실시

안건번호 동산 2016-01-15

5.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2016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중 원형보존 등을 위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상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465호 '도은선생집' 등 55건

○ **사업추진방법**

- 문 화 재 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총액 10,634,420천원/ 국비 7,444,094천원, 지방비 3,190,326천원)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진행
- 해당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자문회의는 가급적 3회 이상 개최)
-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대하여 사전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제도 개선 마련 권고

붙 임 :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1부

[붙임]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관악	국보 151-1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종합조사연구(2년차)	140,000	60,000	200,000
2	부산 금정	보물 1526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	280,000	120,000	400,000
3	대구 달서	보물 1051-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	분류두공부시 2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17,850	7,650	25,500
4	대구 달서	보물 1465	도은선생집	도은선생집 5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29,400	12,600	42,000
5	대구 달서	보물 1466	진일유고	진일유고 4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15,400	6,600	22,000
6	대구 달서	보물 1702	삼봉선생집 권1	삼봉선생집 1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15,400	6,600	22,000
7	대구 달서	보물 1703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3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15,400	6,600	22,000
8	대구 달서	보물 1704	신간상명산법	신간상명산법 2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22,050	9,450	31,500
9	대구 달서	보물 1707	대방광불화엄경소	대방광불화엄경소 41첩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616,350	264,150	880,500
10	대구 달서	보물 710-6	동인지문사육 권7~9	동인지문사육 권7~9 3권1책 보존처리 및 스캔	17,150	7,350	24,500
11	대구 동구	보물 1610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3폭 모사도 제작	252,700	108,300	361,000
12	경기 안성	국보 296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칠장사오불회괘불 1폭 보존처리(연차) 및 모사도 제작	245,000	105,000	350,000
13	충북 괴산	보물 1380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보존처리 5종6점, 영인본 9점)	166,250	71,250	237,500
14	충남 공주	보물 1260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괘불탱 보존처리	34,944	14,976	49,920
15	충남 공주	보물 1651	공주 갑사 석가여래 삼세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후불벽체 보강	210,000	90,000	300,000
16	충남 논산	보물 1851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과학적 조사	140,000	60,000	200,000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7	충남 당진	보물 409	당진 영탑사 금동 비로자나불삼존좌상	과학적 조사	35,000	15,000	50,000
18	충남 예산	보물 1381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266,000	114,000	380,000
19	충남 예산	보물 568-2	윤봉길의사 유품	보존처리	35,000	15,000	50,000
20	전북 고창	보물 280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좌대 설치	21,000	9,000	30,000
21	전북 김제	보물 1516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아미타불, 약사불 보존처리 및 개금	193,900	83,100	277,000
22	전남 강진	보물 1315	무위사극락전 내벽사면벽화	벽화 보존처리	196,000	84,000	280,000
23	전남 강진	보물 1843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처리	350,000	150,000	500,000
24	전남 구례	보물 1340	천은사괘불탱	모사도 제작	270,200	115,800	386,000
25	전남 구례	보물 1363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모사도 제작	315,000	135,000	450,000
26	전남 보성	보물 1800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복장유물(9점) 보존처리	80,850	34,650	115,500
27	전남 해남	보물 1552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괘불함 보존처리 및 괘불탱 모사도 제작	419,300	179,700	599,000
28	경북 경주	보물 1615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여래좌상 보존처리	70,000	30,000	100,000
29	경북 경주	보물 524-2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연차적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133,000	57,000	190,000
30	경북 고령	보물 1725	김종직 종가 고문서	연차적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113,050	48,450	161,500
31	경북 고령	보물 1835	정종 적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14,000	6,000	20,000
32	경북 문경	보물 1748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35,000	15,000	50,000
33	경북 봉화	보물 1379	축서사 괘불탱	축서사 괘불탱 1폭 (복장낭, 복장품 및 함 포함)보존처리	199,500	85,500	285,000
34	경북 봉화	보물 1666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장보살삼존상 보존처리	245,000	105,000	350,000
35	경북 봉화	보물 896	권벌 종가 전적	보존처리	99,750	42,750	142,500
36	경북 안동	보물 1018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37	경북 안동	보물 1019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보존처리	49,000	21,000	70,000
38	경북 안동	보물 1202	이현보 종가 문적	보존처리	35,000	15,000	50,000
39	경북 안동	보물 1221	김진 초상	보존처리	56,000	24,000	80,000
40	경북 안동	보물 549	권주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41	경북 안동	보물 872	이현보 초상	보존처리	56,000	24,000	80,000
42	경북 안동	보물 905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46,550	19,950	66,500
43	경북 안동	보물 906	김성일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26,600	11,400	38,000
44	경북 영주	국보46	부석사 조사당벽화	보존처리, 모사도제작, 전시케이스 제작	332,500	142,500	475,000
45	경북 영주	보물 881	장말손 유품	장말손유품 보존처리 (회맹록 및 패도)	24,500	10,500	35,000
46	경북 예천	보물 487	정탁초상	보존처리	35,000	15,000	50,000
47	경북 예천	보물 494	정탁문적-약포유고 및고문서	보존처리	133,000	57,000	190,000
48	경북 청도	보물 1432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괘불대 지주 보존처리 등 원상회복	66,500	28,500	95,000
49	경북 청도	보물 1613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동산문화재보존관리 및 종합학술조사	350,000	150,000	500,000
50	경북 칠곡	보물 1605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불상 및 좌대, 수미단에 대한 과학적 조사	210,000	90,000	300,000
51	경남 거창	보물 1700	거창 고견사 동종	보호책 설치	7,000	3,000	10,000
52	경남 양산	보물 1351	통도사 괘불탱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53	경남 창원	보물 1737	몽산화상육도보설	보존처리	28,000	12,000	40,000
54	경남 통영	보물 440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팔사품 보존처리	84,000	36,000	120,000
55	경남 하동	보물 1364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모사도 제작	350,000	150,000	500,000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6-01-16

1. 서경우·서문중 초상 및 함
(徐景雨·徐文重 肖像 및 函)

가. 검토사항

'서경우·서문중 초상 및 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서경우·서문중 초상 및 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5.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18)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경우·서문중 초상 및 함(徐景雨·徐文重 肖像 및 函)
○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 수　　량 : 2건 4점
○ 규격(cm) : 서경우 초상 175.4×98.8, 서문중 초상 155.0×103.2
○ 재　　질 : 비단
○ 제작연대 : 서경우 초상-17세기 초, 서문중 초상-18세기 초
○ 제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문중에서 잘 보관했기에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선 중기 17세기 초 및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초 시대에 따른 화풍상의 특징을 功臣像과 평상복인 時服像 양면에서 각기 잘 반영함. 사실적인 描寫와 設彩 등 이를 제작한 화가의 기량에 의해 傳神에 성공적으로 사료됨.

ㅇ

서경우 영정은 오늘날까지 원형대로 잘 보존된 17세기 초반 공신상 가운데에서도 가품(佳品)에 속하는 귀중한 초상화로서 조선 중기 초상화의 우수성과 수준을 잘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그리고 서문중 영정은 조선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두 영정은 시대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친 손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조부와 손자의 초상이라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두 영정의 영정함은 비록 후대에 제작된 것이지만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역사성을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서경우 영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익사공신상과 표현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18세기 이후에 볼 수 있는 명암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 후대에 다시 그린 모사본이라 할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렵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1613년 당시에 그린 익사공신화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초상화로 판단된다.

<서경우 영정>과 함께 전하는 영정함은 공신화상을 제작할 때 함께 만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제작기술이 뛰어나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문중 영정>은 단령의 윤곽과 주름은 간결하게 생략하여 큰 변화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단령의 안쪽에 드러난 직령에는 섬세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다. 조선중기의 초상화가 극복하지 못한 시대적인 한계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화법이 반영된 조선후기 초상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 '서경우 초상 및 함' 과 '서문중 초상 및 함'으로 분리 지정

조사보고서

□

ㅇ 내용 및 특징

기존에 알려진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 대구 서씨 문중에서 보존한 徐景雨 功臣圖像과 徐文重 時服像 세대를 달리한 두 影幀은 조선시대 초상의 위상을 대변하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秀作들로 양호한 보존상태, 작품성, 화풍상 선명한 시대성, 장황에 손을 대긴 했으나 원상태를 유지한 점, 영정함까지 갖추고 있음.

□

ㅇ 현　　상

조선 중기의 문신 서경우(徐景雨: 1573-1645)의 영정은 현재까지 알려진 광해군대의 공신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의 영정은 시복본 전신좌상으로서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높은 예술성과 함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영정함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선 중기의 문신 서경우(徐景雨: 1573-1645)의 본관은 대구(大邱, 達城),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 아버지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낸 약봉(藥峯) 서성(徐渻)이다. 1612년(광해군 4)에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으나 다음해에 아버지가 유배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10년간 은퇴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다시 등용되어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대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등을 역임했다. 1643년에는 형조판서로 성절 겸 진하사(聖節兼進賀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고 기로소(耆老所)에도 들어갔으며 그 이듬해 은퇴하여 판중추부사의 한직을 맡았다.

서경우 영정은 1613년(광해군 5년)에 책록한 위성공신(衛聖功臣), 익사공신(翼社功臣), 형난공신(亨難功臣)의 공신초상과 매우 유사하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광해군(光海君)을 호종(扈從)한 공로로 책록한 위성공신상으로는 보물 제14980호 이성윤(李誠胤: 1570-1620) 초상화, 임해군(臨海君) 옥사를 다스린 익사공신상으로는 보물 제1502호 윤효전(尹孝全: 1563-1619) 초상화와 보물 제1503호 임장(任章: 1568-1619) 초상화, 김직재(金直哉)의 역모를 평정한 형난공신상으로 보물 1479호인 유숙(柳潚: 1564-1636) 초상화가 남아있어 비교가 된다.

오사모에 흑색 단령을 입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으로서 쌍학 흉배를 하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의 안정적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양 어깨의 형태나 경사각도를 약간 과장하여 처리했다. 사모의 모정이 평평하고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모제(帽制)를 반영한다. 사모는 굵고 검은 선으로 윤곽을 규정하고, 그 안에 엷은 먹으로 운문(雲紋)을 그려 넣었다. 안색은 옅고 밝은 살빛을 주조로 하고 이목구비를 약간 짙은 갈색선으로 하였다. 17세기 전기의 공신상에서 익히 보듯이 양 미간에 몇 개의 주름 선을 집어넣어 생각에 잠긴 듯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뺨에는 약간의 홍조가 있다. 눈썹은 털의 특징을 잘 살려 그렸고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얼굴모습을 통해 40대 장년이었던 광해군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묘로 이목구비를 그렸고 눈썹과 수염의 검은 부분은 담묵처리를 한 후 털 올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한 묘사와 표현이 돋보인다. 코는 옆에서 본 형태이고 팔자주름 부위에도 약간의 선염기를 넣었다.

단령은 검은색 운문단으로 채색을 두텁게 하여 의습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름들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몸체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령의 틈새로 녹색 내공(內工)과 청색 첩리(帖裏)가 보이는데, 내공과 첩리의 문양도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한편 흉배의 묘사는 매우 화려하다. 수놓은 학의 깃털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모란과 구름 묘사 역시 섬세하고 화려하다. 바깥 양쪽으로 뻗치는 의자 손잡이의 모습은 17세기 초라는 시대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바닥에는 화려한 문양의 채전이 깔려있으며 족좌대 위에는 팔자형의 흑피화(黑皮靴)가 보인다. 화면 우측 상단의 “우의정만사서공화상(右議政晩沙徐公畵像)”은 후대의 후손이 써 넣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유소(流蘇)는 없다. 목재 영정함은 후대인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의 본관은 대구,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漁亭)이다. 약봉(藥峯) 서성(徐渻)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제조(提調) 경주(景霌)이고, 아버지는 남원부사 정리(貞履)이다. 어머니는 판서 이시발(李時發)의 딸이다. 당숙인 함경도관찰사 원리(元履)에게 입양되었다. 서원리는 서경우의 아들이다.

1657년(효종 8)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1673년(현종 14)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그 뒤 계속 승진해 청도군수·이천부사·상주목사를 역임하고, 1680년(숙종 6)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당상관에 올랐다. 예조참판·도승지·좌윤·공조참판, 공조판서, 훈련대장·형조판서·병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고 세 번에 걸쳐 영의정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소론(少論) 입장이었고, 군사제도와 그 운영에 밝았으며 기근구제 사업에 많은 구실을 하였다. 『조야기문(朝野記聞)』·『상제례가범(喪祭禮家範)』·『병가승산(兵家勝算)』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서문중 영정은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착용하고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으로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덮여 있고 족좌대에는 민돗자리가 깔려있다.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고 인물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향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주름을 뚜렷이 지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특히 풍성한 수염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오사모의 각(角)은 왼쪽을 조금 길게 하여 인물의 얼굴과 시선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령은 깊게 파이지 않았고 옷 주름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분홍색의 가는 선으로 다소 경직되게 그렸으며 옷소매도 대칭적 느낌을 준다. 알맞은 신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옷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양식이다. 옷 주름의 고식적 표현 등에서 옷소매 끝의 좁고 긴 푸른 안감의 노출은 18세기 초의 <남구만 초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인데 엄숙하고 고식적 느낌을 준다.

족좌대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혼재된 느낌이고, 돗자리 윗 부분은 역원근법으로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전반적으로 표피(豹皮)를 제외하면 흑색, 담홍색, 하늘색, 흰색 만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이나 기타 세부 표현을 제한하여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표피와 삽금대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화면 상단 우측의 글씨 “영의정몽어서공화상(領議政夢漁徐公畵像)”은 조선 후기에 후손이 써 넣은 것으로 추정되며, 영정함은 후대인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ㅇ 조사내용

서경우(徐景雨, 1573~1645)는 본관이 달성(達城).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이며 아버지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성(徐渻)이다. 1603년(선조 3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1612년(광해군 4)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고, 다음해 3월에 익사공신(翼社功臣)에 녹훈되었다. 같은 해 5월 이후 아버지 서성이 유배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10년간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재등용 되어 승지 등을 거쳐 대사간을 지냈다. 1643년 형조판서로서 성절겸진하사(聖節兼進賀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우의정에 승진하였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서경우는 1613년(광해군 5) 3월 12일 익사공신에 녹훈되었다. 서경우가 익사공신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그를 소개하는 글에서 거론되지 못했다. 초상화를 보관해 오던 후손들도 알지 못했다. 익사공신인 성시헌(成時憲)이 받은 <익사공신교서>을 통해 서경우가 3등에 녹훈된 28명 안에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광해군은 1609년에 있었던 임해군(臨海君)의 역모를 알리고 옥사를 국문한 신하들을 1613년 익사공신에 녹훈하였다. 『광해군일기』 5년(1613) 3월 12일에는 익사공신을 녹훈하던 날 백악산 아래에서 회맹제를 지냈고, 인정전으로 이동하여 공신교서축과 화상, 은단(銀段), 마(馬)·노비(奴婢), 토전(土田)을 각기 차등있게 내려 주었다고 되어 있다.

<서경우 영정>은 1613년 그의 나이 41세 때 익사공신에 녹훈되어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에 내려준 원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광해군이 1613년에 내린 위성·익사·정운·형난공신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출되자 모두 삭훈되었고, 공신교서과 초상화도 국가에서 수거하여 소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의 공신교서와 공신화상이 후손가에 전해지기도 했다. <서경우 영정>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서경우의 공신화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의좌상이다. 얼굴은 반측면에 가까운 좌안 8분면 정도로 향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右議政晩沙徐公畵像'이라 적혀 있다. 이 글씨는 후대에 후손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흉배는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였는데, 2품에 해당하는 운안흉배(雲雁胸背)에 삽금대(鈒金帶)를 두르고 있다.

이 초상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은 사모의 높이가 낮고, 단령의 옆트임이 직선으로 떨어진 점, 단령의 묘사에 있어 공수자세를 취한 소매로부터 무릎 부분에 이르기까지 돌출감이 전혀 없이 평면으로 처리된 점, 옷의 윤곽과 주름은 선묘로 나타내었지만 그 사이를 매운 문양은 연결된 무늬로 처리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선조 대의 공신상과 다른 광해군대 공신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함께 익사공신으로 녹훈된 <전 윤효전(尹孝全, 1563~1619) 초상>, <임장 초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심희수(沈喜壽) 초상>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얼굴 묘사는 갈색의 선묘로 얼굴윤곽과 귀, 코, 눈과 코 주변의 주름을 그린 뒤 옅은 살색으로 채색하였다. 명암이나 고저의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눈동자인 동공은 정 가운데인 정면을, 눈위 위쪽 윤곽은 갈색선묘 위에 먹으로 한 번 더 그었고, 눈 아래 윤곽에는 속눈썹을 그려넣었다. 코는 측면으로 그려져 있어 불합리한 구성을 보이지만, 이러한 요소는 17세기 전반기 초상화가 지닌 시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황부분에서 아래쪽 녹색계통의 하회장이 위쪽 상회장 길이의 1/2정도에 해당하며, 문양도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특색은 위성공신 <이성윤 초상>, 익사공신 <전 윤효전 초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문중(1634~170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漁亭)이다. 판서 서성(徐渻)의 증손이다. 아버지는 남원부사 서정리(徐貞履), 어머니는 판서 이사발(李時發)의 딸이다. 1657년(효종 8)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73년(현종 14)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그 뒤 상주목사 등을 지냈으며, 1680년(숙종 6)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다.

1683년 호조참판을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그 뒤에도 판서를 비롯한 여러 요직을 거쳤으며, 1689년 기사환국으로 우참찬으로 재직하다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1698년에는 우의정에 올랐으며, 1699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

고, 정치적으로 소론(少論)에 속했다. 군사제도와 기근구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서문중 영정>은 오사모에 분홍색 시복(時服)을 입고 교의좌(交椅座)에 앉은 전신의좌상(全身椅座像)이다. 얼굴은 좌안팔분면 정도로 약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몸체는 거의 정면을 향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領議政夢漁徐公畵像"이라 적혀 있다. 그림에 적힌 '영의정몽어서공화상'을 고려하면, 그가 66세로 영의정에 오른 1699년에 그린 것이된다. 영의정은 정1품이므로 서대를 매고 있다. 교의좌에는 표범 가죽을 걸쳤다. 족좌대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의 사선으로 내려오는 사선투시를 하고 있다.

사모(紗帽)는 모정이 높고, 양각(兩脚)에 매우 세밀한 문양이 들어가 있다. 안면부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들였으나 전체적인 묘사의 일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개성미 있고, 인상적인 표정 묘사가 잘 살아나 있다. 눈 부분은 눈매의 방향이나 각도, 눈 주위의 오목하게 들어가면서도 주름이 몰려 있는 부분, 흰 눈썹과 길게 자라 삐쳐나온 눈썹 등은 매우 사실적인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코는 콧구멍이 하나만 보이는 측면을 그리고자 했으나 콧등의 두께감을 나타내기 위해 콧등에 두 개의 선이 들어가 있다. 수염 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검은 수염과 흰 수염의 결이 잘 드러나 있고, 가닥을 매우 자세하고 풍성하게 그리고자 노력했다.

이마의 주름과 눈 주변, 그리고 코 좌우변의 법령 부분의 주름에는 선묘 옆에 미세한 명암이 약간 들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선묘와 음영을 함께 사용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런 특징과 부합하는 초상으로는 1690년 경에 그린 <박세당 초상화>가 있다.

안건번호 동산 2016-01-17

2.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

가. 검토사항

'은제도금화형탁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의(8.23)를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1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조(잔과 잔 받침)
○ 규격(cm): 잔높이 6.0, 입지름 8.6, 굽높이 1.3, 굽지름 3.6
잔탁 높이 6.8, 지름 17.0 굽높이 2.9, 굽지름 10.3,
잔좌 높이 3.4. 잔좌지름 4.6
○ 재　　질: 은제도금
○ 제작연대: 고려 12세기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탁잔으로, 잔에 잔 받침이 같이 한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잔 받침은 높은 굽이 달리고 굽 위의 넓은 전에는 꽃송이 무늬가 선으로 새

겨져있으며 가운데에는 괴임이 높게 솟아 있다. 이 괴임 부분에는 꽃송이 무늬를 도드라지게 압출(押出)시켜 입체적으로 빽빽하게 장식하여 음각으로 새겨진 다른 장식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하였다. 괴임 위에 받쳐진 잔은 6잎의 꽃모양으로 면을 구획하여 선조로 연당초문(蓮唐草文)을 음각하였다. 안정된 비례와 단정한 형태를 지닌 은제 탁잔의 세부에는 압출, 음각 등의 다양한 세공 기술을 발휘하여 시문하였고 전면에 도금을 입혀 더욱 장식성이 돋보인다.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잔탁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조형성과 제작수법, 독창성이 뛰어나 고려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유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예사적인 의의가 있다.

첫째, 조형적으로는 송, 요 기형과 같은 형태이나 수파형 연판문 변식은 고려 장인의 창안이라는 점, 둘째, 기법적으로는 고려 금공의 표식인 고육각의 타출기법과 조각기법으로 문양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시문한 점 등이 돋보인다. 특히 높은 잔좌에 문양을 [Ω]꼴로 높게 타출한 예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셋째는 디아모레뮤지움 소장 은제도금잔탁이나 경북대박물관 소장 동제타출잔탁 등 금속이나 熙宗 碩陵(1237년) 출토 청자상감국화문 잔받침, 유천리 출토 청자상감잔탁편처럼 재료를 망라해서 널리 유행한 유형으로서 고려시대 酒器 연구의 좋은 자료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화재명칭은 고려시대에 잔탁, 탁잔으로 1벌을 칭했으나 주기능인 잔을 받치는 받침인 탁까지 하나의 용어로는 잔탁이므로 은제도금잔탁이 옳겠다.

ㅇ

잔과 탁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금속공예품으로는 드물게 빼어난 미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문된 문양이 세련되고, 타출기법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여 고려시대 우수한 공예기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남아 있는 고려시대 금속제 탁잔의 유례가 드물고, 현존하는 탁잔 중에서 기법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중앙에서 활동했던 가장 우수한 장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탁잔은 형태나 세부 표현 방식 등에서 송나라 사신 서긍이 1123년(고려 인종 1)에 찬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탁잔(반잔)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여 시기적으로 문벌귀족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12세기 대에 제작된 금속공예품으로 추정된다. 이 탁잔은 고려시대 금속공예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지정문화

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고려시대에는 은제 주전자 뿐 아니라 은제도금 탁잔이나 은제 합, 팔찌 등에 높게 도드라지는 타출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문양을 전면에 빠짐없이 시문하는 것이 크게 유행되었다. 내면에서 타출시킨 뒤 다시 외부에서 그 여백을 두드려 누르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누금(縷金)처럼 따로 떼어 붙인 듯 입체감이 강조되는 정교한 기법은 고려 금속공예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술적 특질로 자리잡았다.

이 은제 도금 탁잔은 고려시대 타출 공예의 정교함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고려 금속 탁잔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이면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탁잔은 잔과 받침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섯 번의 굴곡을 이룬 육화형(六花形)의 넓은 전이 달린 잔 받침은 아래에 높은 굽이 달리고 중앙에 높게 돌출된 잔 받침대(盞臺)를 두어 은제 잔이 올려진 모습이다. 바깥으로 말린 잔 받침의 굽 위로는 엽문(葉文)을 얕게 음각시켰고 이 문양은 잔 구연부와 굽 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폭이 넓은 전부의 각 면 중앙에는 연당초문(蓮唐草文)을 유려하게 음각시켰고 움푹 파인 잔 받침의 둘레에는 그보다 길이가 짧아진 연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솟아 있는 잔 받침부의 측면에는 굴곡을 이룬 각 릉(稜)을 돌출된 1조의 종선으로 나누어 그 내부마다 중앙의 연화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된 연화문을 타출시켜 더욱 화려하게 꾸몄다. 잔을 올리는 잔 받침의 상부에도 돌출된 연화문을 중심으로 그 주위로 풀잎문을 두르고 다시 6릉의 띠로 구성한 뒤 그 주위를 연판문으로 촘촘히 두른 모습으로서 잔이 올려지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빠짐없이 장식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위에 올려진 잔은 잔 받침과 꼭 들어맞도록 굽의 외형을 만들고 굽을 따라 바깥으로 벌어진 6릉의 몸체의 직립 구연부에도 굴곡에 맞게 6릉의 굴곡을 이루었다. 잔의 몸체 바깥에는 각 굴곡마다 위로 솟은 연화문을 음각시켰으며 잔 내부에는 둥근 연화문을 중심으로 엽문이 에워싼 모습을 음각시켰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를 서로

달리한 꽃모양의 6릉을 이용하여 잔과 잔 받침을 구성한 참신한 조형성과 함께 타출의 정교한 문양이 돋보이는 수작으로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귀족적인 면모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은제로 만들어진 탁잔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처럼 타출문의 정교한 장식과 도금까지 입힌 점에서 이 탁잔은 당시로서도 최고의 기술과 정성이 동원된 왕실용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형태의 상감청자(象嵌靑磁)가 유행했던 시기가 13세기 전반경인 점으로 미루어 그보다 조금 앞서는 12세기 중~후반의 제작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요성에 미루어 이 탁잔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ㅇ 참고문헌

- 최응천 · 김연수, 『금속공예』, 솔출판사, 2004
- 최응천 외, 『찬란하고 아름다운 금속공예』, 통천문화사, 2007

□

ㅇ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은제도금잔탁 〈유물번호: 덕수-000130-000〉은 『조선고적도보』에도 실려 있어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것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3] 보스톤뮤지움 소장 은제주자와 함께 고려시대 일반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이 잔탁은 은잔을 받쳐주는 은제 받침이 세트를 이룬 기형으로 조형성과 공예기술이 뛰어난 유물이다.(도1) 酒器인 이 기형은 12~13세기에 청자, 상감청자로도 생산되었으며, 중국 송대 기형과 같으나 세부와 문양, 타출기법에서 고려적인 특징이 돋보인다.(도2)

이 기형의 명칭에 대해서는 북송 孟元老가 휘종 崇寧-宣和년간(1102-1125)의 개봉 풍경을 엮은 『동경몽화록』에 "큰 술집인 正店 회선루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실 때 注碗 1벌, 盤盞 2벌이 필요하다."고 했다.[4] 또한 1123년에 고려에 온 徐兢도 『고려도경』에서 盤盞이라 칭하며, 형태에 대해서는

> "반잔의 만듦새는 다 중국의 것과 같다. 다만 잔은 깊고 테두리가 오무라들었고, 주는 작고 발이 높다. 은으로 만들고, 간혹 금으로 칠하기도 하고 꽃을 아로 새긴 것이 재치가 있다. 권주할 때마다 다른 술잔으로 바꾸는데, 다만 용량이 약간 많을 뿐이다.[5]

---

3) 『朝鮮古蹟圖譜』 제9권, p.1220, 도판 4039.

4) 孟元老, 『东京梦华錄』 卷4, 「会仙酒楼」, "如州东仁和店、新门里会仙楼正店, 常有百十分厅馆, 动使各各足备, 不尚少阙一件. 大抵都人风俗奢侈, 度量稍宽, 凡酒店中不问何人, 止两人对坐饮酒, **亦须用注碗一副, 盘盏两副.**".

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반잔은 지금의 은제도금잔탁과 같은 형태를 일컬으며 도금하고 꽃을 아로새긴(鏤花)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금제, 은제잔탁은『고려사』에 對宋 國信物이나 국내에서 하사한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려에서 자신있게 생산한 기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문종 26년(1072)에는 "모두 무게가 40냥인 금반잔 2벌", 문종 34년(1080)에는 "금반잔 2벌"을 송 황제가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종 때에도 은잔 2개를 우가하에게 보냈고, 몽고의 지휘관 3명에게 금잔반 1벌씩을 보냈다. 충렬왕 때에 원 황제에 바치는 토산물 중에 은잔 1벌이 들어있었다. [표1. 참조]

표 1.『高麗史』에 보이는 金銀製 盞

년 대	내 용	전 거
文宗26년(1072) 6월26일 甲戌	"...金悌至省所進奉,..金合二副共重六十兩...**金盤盞二副共重四十兩**...金注子一副重六十五兩...金鈿鑼一隻重一百五十兩..."	9卷, 世家9
文宗34년(1080) 7월2일 癸亥	"省所進謝恩御衣二領金腰帶二條金鈿鑼一面金花銀器二千兩...", "省所上進金合二副**盤盞二副**注子一副..."	9卷, 世家9
高宗7년(1220) 3월6일 丙申	"...以銀尊銀盤銀盂各一**銀盞**二...遺于哥下以酬其功."	22卷, 世家22
高宗18년(1231) 12월4일 乙卯	"...以**金酒器大小盞盤各一副**銀甁..等物贈送于三元帥."	23卷, 世家23
忠烈王22년(1296) 11월19일 甲申	"王與公主謁帝獻方物. 金甁金鍾二事鏤銀壺銀湯甁各一事**銀盞一副**銀胡甁銀大樽各一事半鏤銀胡甁二事銀大鍾一事銀盂五十事..."	31卷, 世家31

위와 같은 기록을 볼 때, 받침을 갖춰서 잔과 받침이 1세트인 잔을 반잔, 잔반으로 불렀고, 금주자 1부 역시 1개가 아니라 승반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6]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인 은제도금잔탁은 표면에 도금이 고루 입혀져 여전히 금색이 완연한 상태인데, 잔의 구연부 윤곽 및 굽의 문양, 받침의 하단문양이 동일한 연판문을

5)『高麗圖經』卷第30,「器皿」1,〈盤琖〉條,"盤琖之制. 皆似中國. 惟琖深而釦斂. 舟小而足高. 以銀爲之. 間以金塗. 鏤花工巧. 每至勸酒. 則易別杯. 第量容. 差多耳.".

6) 고려 청자주자나 사천 팽주에서 출토한 남송 초 은제주자들도 대부분 승반을 갖추고 있다.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彭州市博物館,『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 科學出版社, 2003. 참조

彫金하였고, 받침의 잔좌에 화문을 타출시켜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조형을 보면, 잔은 높이 6cm×구경 8.6cm 크기의 六花形으로 볼륨감이 있는 편이다. 곡선형 각 화판 중앙에는 [()]꼴로 절지모란문을, 화판과 화판이 연결된 부분 상하에는 삼각형 절지모란문을 배치했고, 구연과 굽 끝에는 연판문을 배치해 안정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도3) 잔 내부에도 중앙에 3송이 절지모란이 원형을 이루고 있고 그 주위에 연판문이 육화형으로 장식되었다.(도4)

받침은 높이 6.8cm×폭 17cm, 굽 지름 10.3cm, 전 2.2cm 크기여서 안정감이 있을 뿐 아니라 전이 넓어 두 손으로 받들기 편한 형태이다. 전에 박락된 부분이 있으나 제작수법이 뛰어난 이 받침은 잔좌부터 전 윤곽선까지 여러 겹의 육화형 평면도를 보이고 있으며 뒷면도 2개의 육화형을 보이고 있다.(도5, 6) 이렇듯 각 부분을 땜으로 성형하면서 작은 형태에 동일한 곡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표면의 문양은 전 화판마다 2개의 모란가지 끝을 반대로 이은 절지모란문을 시문하였고, 안쪽에도 작은 절지모란문을 시문했다. 잔좌는 잔과 맞닿는 상면에 원형 花文團을, 그 주변에는 육화형으로 연판문 변식을 타출했다. 이 유물의 가장 압권인 잔좌의 측면에는 高肉刻 타출기법으로 연판문을 두르고 그 아래에는 각 화판마다 [⊠]형으로 모란문을 아로새겼다.(도7, 8, 9)

고육각 타출기법은 遼代 금속공예와 교류에 의한 것으로 고려 12세기에 전성을 이룬 금공기법이다. 은판을 감탕으로 고정시켜서 표면이 갈라지지 않고 문양을 [Ω]꼴로 돌출시킨 수법은 고려 銀匠의 우수한 기량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 공예사상 고려 금공의 위치를 가늠케 한다. 받침의 전이나 잔 표면에 문양을 시문한 조각수법은 끝이 [▼]꼴인 삼각정으로 끌듯이 선을 이어나가 생동감이 있다.(도10) 무엇보다 이 유물에 보이는 고려적인 독창성은 연판문 변식이다.(도11) 약간 사선꼴인 연판문 邊飾은 唐代 금은기에 유행하던 장식법으로 요대 금은기에도 계승된 것인데, 고려에서는 그 끝을 비늘정으로 반원형을 연결시켜 일견 파도같은 水波形으로 변형시켰다. 이런 문양은 12세기에 제작된 은제금도금합(도12)이나 佩飾인 은합(도13), 은제화형접시(도1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 본 은제금도금잔탁은 기형으로 볼 때 송-요-고려에서 널리 유행한 잔탁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서 잔과 받침과는 달리 잔은 구연이 넓고 굽이 낮은 별구완이 아니라 구연이 모아지고 八字形 높은 굽이 달린 형태이며, 받침의 잔좌가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이런 유형은 요대 10세기 耶律羽之墓(941년) 출토 금제오화형잔이나 11세기 창무 요묘 출토 은제탁 같은 금공유물이나 북송 11세기의 월요청자와 12세기의 여요 청자에도 보인다. 고려에서도 12~13세기에 금속공예나 청자, 상감청자로 생산되었는데, 요-북송 잔탁처럼 잔좌에 覆蓮이 장식되었다.[참고자료 참조]

ㅇ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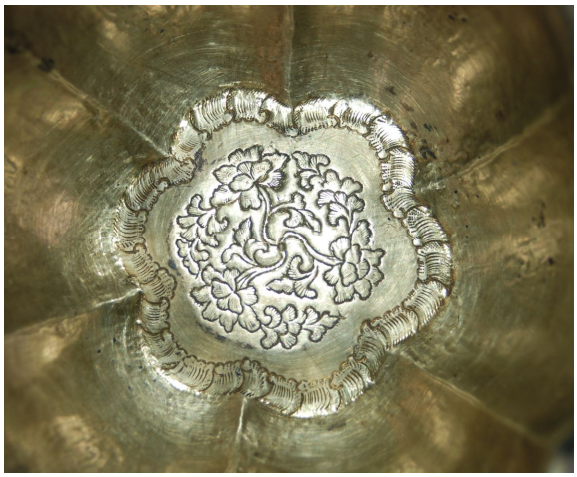
- 『高麗史』
- 『宣和奉使高麗圖經』
- 蓋之庸,『探尋逝去的王朝-遼耶律羽之墓』, 內蒙古大學出版社, 2004
- 九州國立博物館 編輯,『契丹』, 2011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다시찾은 비취색 꿈』, 2006
- 김은애,『高麗時代 打出工藝品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南宋藝術與文化· 器物卷』, 국립고궁박물원, 2009
- 『디아모레뮤지움소장품도록』, 디아모레뮤지움, 2005
- 成都市文物考古硏究所· 彭州市博物館,『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 科學出版社, 2003
- 于建設 主編,『赤峰金銀器』, 遠方出版社, 2006
-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外,『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 『靑磁의 色 形-한국· 중국 청자 比較展』, 조선관요박물관, 2005

[도판]

도1. 은제도금잔탁,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2. 靑磁花形盞托, 고려 12세기

도3. 은제도금잔의 문양(모란, 연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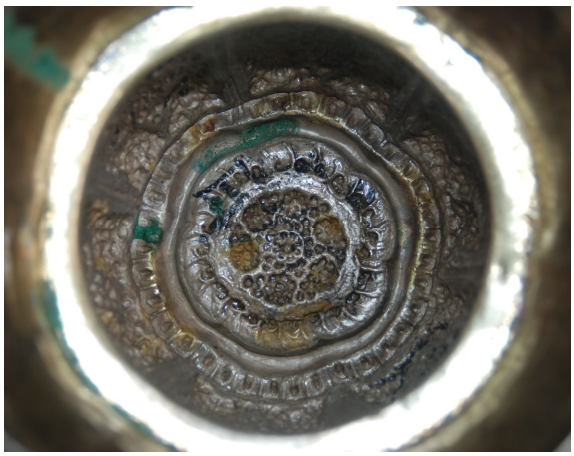


도4. 은잔의 내면 문양(모란, 연판문)

도5. 은제도금탁의 top view

도6. 은제도금탁의 뒷면 top view

도7. 은제도금탁의 표면(打出技法, 凸면)



도8. 도7의 안쪽 면(凹면)

도9. 타출한 연판장식

도10. 전에 彫金된 折枝牡丹文

도11. 잔의 연판문 邊飾

도12. 은제금도금합의 연판문 邊飾, 고려 12세기, 개성출토, 고 6.1cm, 구경 7.6cm

그림13. 은합의 연판문 변식, 고려 12세기, 18.5cm

그림14. 은제화형접시의 연판문 변식,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구경 10.5cm

[참고자료]

(좌) 금제오화형잔, 遼 會同4년(941), 내몽고 赤峰市 阿魯科尔旗 耶律羽之墓 출토
잔 높이 4.7cm, 구경 7.7cm,
(우) 銀製托, 요 11세기, 요녕성 彰武 朝陽區 2號墓 출토

(좌) 靑磁托片, 북송 11세기, 절강성 寺龍口 越窯址 출토
(우) 靑磁托, 북송 12세기, 汝窯, 탁 높이 4.3cm, 구경 17cm

(좌) 은제도금잔탁, 고려 12세기, 전체 높이 9.2cm, 잔 높이 4.7cm, 잔 구경 7.5cm,
탁 구경 14.7cm, 디아모레뮤지움
(우) 청자모란문잔탁, 고려 12세기, 잔 높이 5.5cm, 잔 구경 7.8cm, 탁 높이 5.7cm,
탁 구경 15.4cm

(좌) 청자상감국화문잔탁, 고려 12세기, 전체 높이 9.5 cm, 잔 구경 7.2cm
(우) 청자상감잔탁편, 부안 유천리 요지 출토 , 12세기 후반~13세기전반

□

ㅇ 조사내용

이 탁잔은 잔과 함께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盞과 함께 한 벌을 이룰 때에 탁잔이라 불리운다. 잔탁의 명칭은 중국과 한국의 문헌 기록에는 '茶托子', '茶托', '盤盞', '盞盤', '盤臺', '臺盞', '盞托', '盞臺'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는 탁이나 대, 반 등과 같은 받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잔을 받치는 용도의 잔탁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잔탁이라는 명칭은 송대 이후의 문헌기록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잔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 당대 李匡乂의 『資暇集』에서 확인되는데, 唐의 建中年間(780-783년) 宰相 崔寧의 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잔을 흔들림 없이 고정시켜 내용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뜨거운 잔을 받치기 위하여 받침 접시에 잔의 굽과 같은 모양의 밀납을 녹여 사용했다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때는 잔탁이라는 명칭 대신 '茶托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탁잔이라는 명칭은 宋代 이후의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송대에는 唐代 최령의 딸이 고안한 茶托子를 잔탁의 시원으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물을 통상 잔탁이라 칭하고 있다.[7)]

고려시대 탁잔은 잔 받침대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연꽃이 폈을 때의 모습과 같은 仰蓮式 탁잔과 연꽃을 엎어 놓은 모습과 같은 覆蓮式 탁잔이다. 복련식 탁잔에는 탁과 잔의 형태가 원형으로 된 것과 花瓣形으로 된 것이 있는데, 화판형은 잔은 물론 托의 받침대와 구연부까지 모두 꽃잎 모

7) 이윤진, 「고려시대 자기잔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3(한국미술사학회, 2012), pp.36-37.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탁잔은 잔의 받침대가 복련식으로 되어 있고 잔과 잔탁이 공히 화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탁잔이다. 잔은 꽃잎을 살짝 오므린 형태이며, 잔탁은 활짝 펼친 형태로 도안하였다.

잔은 다리와 잔 부분이 따로 만들어 땜질하였고, 잔의 몸통은 입술에서 바닥으로 내려 갈수록 체감률을 줄여 참외형을 이루고 있고, 굽 받침은 이와 반대로 기저부와 맞닿은 부분에서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입을 벌린 형태이다. 잔의 구연부와 굽의 아랫부분에는 물거품을 일렁이는 수파문을 새겼다. 6엽 꽃잎으로 이루어진 잔의 몸통에는 모란절지문을 음각하였고, 화판과 화판이 만나는 움푹하게 접히는 곳에도 위·아래에로 작은 모란절지문을 새겨 섬세함과 화려함을 더하였다. 잔의 안쪽 바닥면에는 잔의 윤곽을 따라 水波文을 새겨 넣었고, 바닥 중심에는 바람개비처럼 3가닥으로 휘감아 도는 모란절지문을 음각하였다.

잔 받침대의 윗면은 움푹하게 만들어 마치 연못처럼 고안하였고 그 중심에는 복련형의 잔 받침대를 섬처럼 두었다. 이러한 장치는 잔에서 넘쳐흐르는 술이나 차가 고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잔 받침대 상면에도 잔 굽의 크기와 형태에 꼭 맞게 파내어 잔이 흔들리지 않도록하였다. 복련형의 잔 받침대의 표면에는 고부조로 꽃무늬를 오돌토돌하게 타출하였고, 오돌토돌하게 두드려 문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러짐 없이 매우 정교하다.

고려시대 이러한 탁잔의 사용 예는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卷30 器血 1에 盤盞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긍의 기록에는 “반잔은 중국의 그것과 흡사하다. 다만 잔의 깊이가 더 깊고 금테로 장식을 했으며, 잔 받침은 작고 다리는 긴 편이다. 은으로 만드는데 간혹 도금하기도 하였으며, 아로새긴 꽃은 정교하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기록은 마치 송나라 사신 서긍이 국립중앙박물관 탁잔을 옆에 두고 서술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 아마 서긍이 고려에 왔을 당시 문벌귀족층 사이에서 타출공예로 만든 탁잔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은제도금탁잔은 서긍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계통의 탁잔으로 생각되며, 현재 금속제로 제작된 기년작 탁잔은 없지만 12세기로 편년되고 있는 여러 금속제 탁잔이나 도자기, 그리고 문헌자료들과 비교 검토했을 때 이 탁잔도 문벌귀족 문화가 절정으로 꽃피웠던 12세기 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ㅇ 참고문헌

-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 김은정, 「고려시대 금은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한국미술사학회, 2007
• 이윤진, 「高麗時代 瓷器盞托 硏究」,『미술사학연구』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안건번호 동산 2016-01-18

3. 동의보감(東醫寶鑑)

가. 검토사항

'동의보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의보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5.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2012.10.12.지정)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유자(관리자) : 한독의약박물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대소면, 대풍지방산업단지)
○ 수　　량 : 3권3책
○ 규격(cm) : 34.0×21.0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활자본(木活字本), 목판본(木板本) 혼질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613년(광해군 5)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동의보감』은 그 가치가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2015년)되었고, 나아가 국제적인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2009년)된 바 있다.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 동의보감은 그 중 2책이 같은 목활자본이기는 하나 전체의 극히 일부(全25책

중)에 지나지 않고, 낙질의 경우 같은 전래본(傳來本)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상시 이용되는 대표적인 동의학서이다. 다만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동의보감』은 전 25책 중에서 3책에 불과한데다 판본 또한 혼질(混帙)인 점에서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ㅇ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책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조사본인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동의보감』은 전 25책 중에서 내경편(內景篇) 권2, 외형편(外形篇) 권1, 침구편(鍼灸篇)의 3책만이 남아 있다. 또한, 외형편 권1(제7책)과 침구편(제25책)은 1613년(광해군 5) 11월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초간 목활자본이나 내경편 권2(제3책)는 판본미상의 후대 목판본으로서 목활자본과 목판본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보다는 현재와 같이 충북 유형문화재 제345호(2012. 10. 12)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東醫寶鑑」은 조선 宣祖 대의 太醫 許浚(1539-1615)이 왕명을 받아 儒醫인 鄭碏(1533-1603), 太醫 李命源(?-?), 楊禮壽(?-1600), 金應鐸(?-?), 鄭禮男(?-?) 등과 함께 당시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약서를 참고하고 임상의학적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 纂集을 시작하였으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후 선조는 內藏方書 500권을 내어주고 허준에게 단독으로 편찬하게 하여 광해군 2(1610)년에 완성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학서이다. 서명을 「東醫寶鑑」이라고 한 이유는 이 책의 集例에 나타나 있는데, '東醫' 란 중국의 것이 아닌 조선의 의술을 의미한다. 초간본은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 5) 11월에 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으며, 모두 25권 25책이다.

調査本 「東醫寶鑑」은 韓醫學 연구 및 朝鮮 中期의 活字印刷文化와 書誌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지만, 전체 3책 중 <鍼灸篇>과 <外形篇> 2책은 光海君 5(1613)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추정되나 총 25권25책 중 2권2책뿐인 落帙本이다. 또한 <內經篇> 1책은 18세기 이후에 번각한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대로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345호(2012. 10.12)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첫 면이 일부 마모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

○ 내용 및 특징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著

・ 木活字本(內醫院字) : 內醫院. 光海君 5(1613). 2冊(전25권 25책중) : 四周雙邊 반곽 27.6 X17.9Cm, 有界,10行21字 注雙行,內向3葉 花紋魚尾.

・ 木板本([朝鮮後期]),1책(전25책 중):圖,表,四周雙邊 半郭 27.6×17.9㎝, 有界, 10行 21字 註雙行, 內向2·3混葉花紋魚尾 ; 34.0×21.0㎝.

『동의보감(東醫寶鑑)』은 허준(許浚,1546-1615)이 선조 29년(1596)에 의서편찬의 명을 받아 유의(儒醫) 정작(鄭碏), 태의 양예수(楊禮壽) 등과 편집에 착수하였으나 정유재란으로 중단되었다. 그후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단독으로 담당하여 총 25권의 방대한 책을 편찬완료하였다. 그후 1613(광해군 5년)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인출하여 배포하였다. 이 책은 간행후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에 전해지면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동양의 저명한 실용성이 높은 의서로 널리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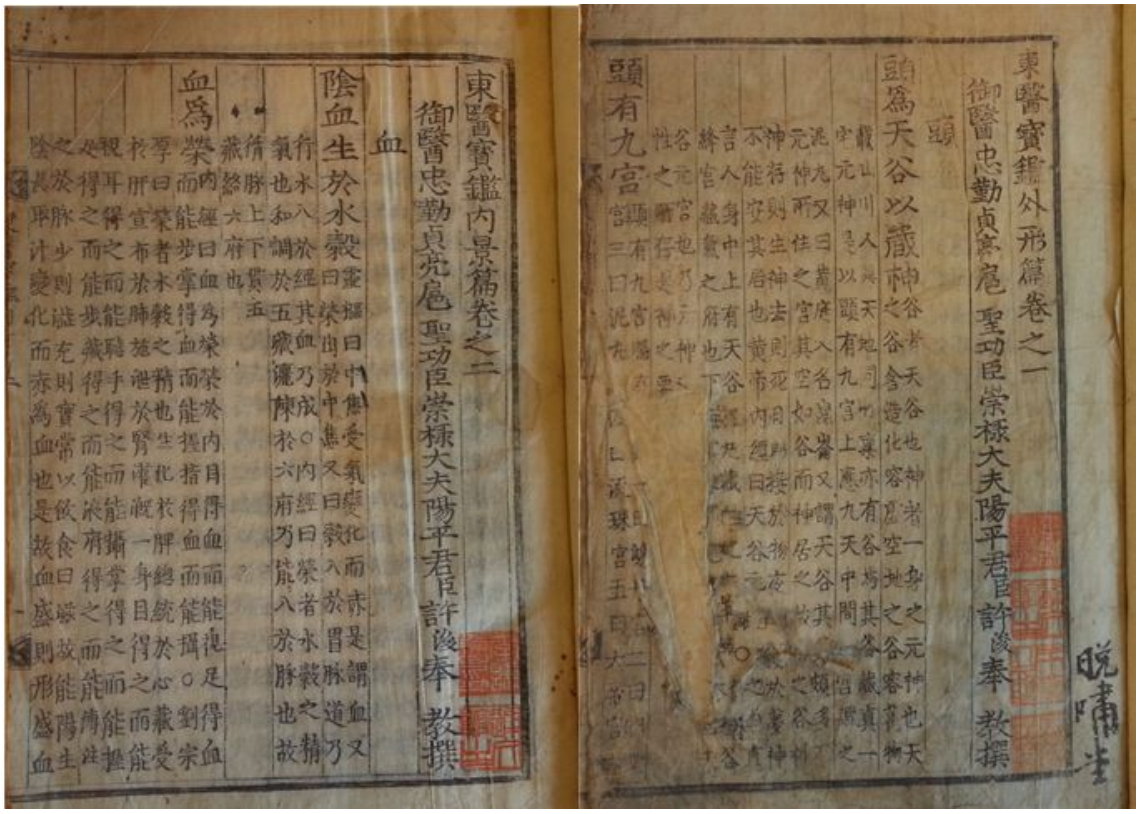
초간 완질본은 2015년 6월 22일에 국보 제319호(제319-1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제319-2호: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제319-3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소장)로 지정되었다.

내용은 목록 2권,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구편(鍼灸篇)1권 1조 등 모두 25권 108 조로 구성되었다. 『동의보감』은 그 우수성과 주변 각국에 미친 영향등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사 대상본 『동의보감』은 전25권 25책 중에서 3책이다. 그중 2책은 광해군 5

년(1613년)에 내의원에서 인출한 목활자 인본으로, 외형편 권1과 침구편(제25책)이다. 다른 1책은 이 활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으로 내경편 권2이다. 그 중 외형편과 내경편 권2는 권수면의 1행 하단에 印文이“李謙魯印”, “通文館主”인 두 개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서, 이 책이 故 山氣 李謙魯(1909-2006)의 구장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외형편의 卷首面 하단의 난외에 만소당(晩嘯堂)이라는 3자가 墨書되어 있다. 영주의 안동권씨 권창진(權昌震:1597-1683)의 후손가의 대은정(大隱亭 : 영주2동)에는 權東修 필의 만소당 현판이 남아 있으나, 이 책과의 관련은 분명치 않다. 이상 3책은 장서인으로 볼 때 이겸노 선생이 별도로 수집한 책을 현 소장처에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 書影>


<東醫寶鑑 목판본>

<東醫寶鑑 목활자본(1613)>

** 목활자본의 장서인은 같은 도장을 두 번 찍은 것이다. 하단의 2方은 실수로 거꾸로 찍은 것이다.

ㅇ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5(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박문열,이귀원등,정제규 등 충청북도지방문화재위, 동의보감 조사 의견서.

三木榮, 朝鮮醫書誌(증수판),학술도서간행회, 1973.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藏書閣 제24집, 2010.10.
한국한의학연구원, 허준박물관(도록), 2005.
사이버동의보감박물관(http://donguibogam.or.kr/kr/subpage02.jsp#/homepage)
유네스코와유산:동의보감(http://www.unesco.or.kr/heritage/mow/kormow_dongui.asp)

□

ㅇ 내용 및 특징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著
木活字本(光海君 5, 1613), 木板本([朝鮮後期])
3卷3冊 : 圖, 表, 四周雙邊 半郭 27.6×17.9㎝, 界線, 10行21字 註雙行, 內向2·3混葉花紋魚尾 ; 34.0×21.0㎝.

『동의보감(東醫寶鑑)』은 허준(許浚,1546～1615)이 1610년(광해군 2)에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서와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놓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이다. 선조는 1596년에 허준과, 양예수(楊禮壽), 이명원(李命源) 등에게 명하여 의서를 편찬토록 하였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허준은 14년 동안 정력을 쏟아 1610년에 드디어 완성하였으니 이것이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사람이 찬술한 의서 중에서 최고라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초간본은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 5) 11월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으며, 모두 25권 25책이다. 초간 완질본들은 2015년 6월 22일에 국보 제319호(제319-1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제319-2호: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제319-3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소장)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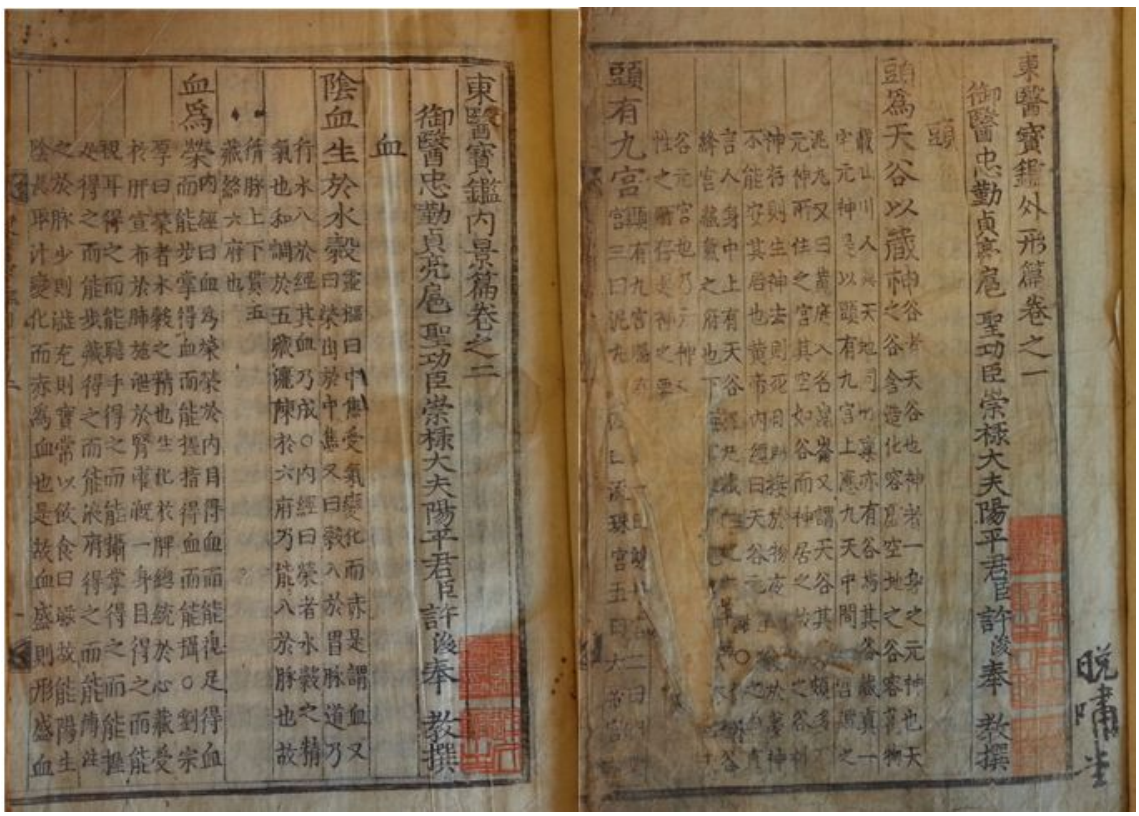
내용은 목록 2권, 「내경편(內景篇)」4권 26조,「외형편(外形篇)」4권 26조,「잡병편(雜病篇)」11권 38조,「탕액편(湯液篇)」3권 17조, 「침구편(鍼灸篇)」1권 1조 등 모두 25권 108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전개방식은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 등의 5대강(大綱)을 기준으로 각기 세부 분류한 다음 해당되는 병의 이론, 처방, 출전을 밝혀놓았다.

『동의보감』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곧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에서는 1763년(乾隆 28) 이후 수차례 간행되었다. 일본에서도 1724년(享保 9) 에 교토서림(京都書林)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799년(寬政 11) 에는 오사카서림(大坂書林)에서 재판본이 간행되는 등 『동의보감』은 동양의학의 필독서가 되었다.

현재 국내외 30여종의 판본이 전하는 등 조선뿐 아니라 중일의 의학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 의서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과 비견할만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동의보감』은 내용이 충실하고 우수한데다 국제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09년 7월의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인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동의보감』은 전 25책 중에서 3책이다. 이 중에서 외형편 권1(제7책)과 침구편(제25책)은 1613년(광해군 5) 11월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초간 목활자본이나 내경편 권2(제3책)는 판본미상의 후대 목판본이다. 외형편 권1(제7책)은 권수제면 우측 하단에 “晩嘯堂”이라는 묵서가 있고, 내경편 권2(제3책)와 함께 「李謙魯印」, 「通文館」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통문관 주인이었던 이겸로의 옛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침구편(제25책)은 묵서나 소장인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3책은 산일되어 전하는 낱권들을 근자에 누군가가 모아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본미상의 후대 목판본>　　<목활자본(1613)>

ㅇ 참고문헌

-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藏書閣 제24집, 2010.10.
- 사이버동의보감박물관(http://donguibogam.or.kr/kr/subpage02.jsp#/homepage)
- 유네스코와 유산: 동의보감 (http://www.unesco.or.kr/heritage/mow/kormow_dongui.asp)

□

書誌事項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著

木活字本(光海君 5, 1613), 木板本([朝鮮後期])

3卷3冊 : 圖, 表, 四周雙邊 半郭 27.6×17.9㎝, 界線, 10行21字 註雙行, 內向2·3混葉花紋魚尾 ; 34.0×21.0㎝.

表題: 醫鑑

卷首題: 東醫寶鑑

卷尾末: 東醫寶鑑

版心題: 東醫寶鑑 ○○篇

著 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1539~1615)奉敎撰

內 容: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飮)

外形篇卷一(頭·面·眼)

鍼灸篇

卷頭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 광해군 3)...李廷龜](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卷頭撰者事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奉敎撰

天頭註(鍼灸篇): 天頭部에 紙簽에 墨書된 註釋이 添附되어 있음

印出記: [萬曆四十一年(1613, 광해군 5)十一月日內醫院奉敎刊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印 文(內景篇, 外形篇) : 李謙魯印, 通文館主

墨 書(外形篇卷首題面) : 晩嘯堂

ㅇ 현 상

조사본은 1970년 4월 27일에 故 일산(一山) 김두종(金斗鐘) 박사로부터 기증된 유물이다. 3책 가운데 외형편(外形篇) 권1은 표지가 개장된 상태이다. 3책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얼룩과 묵흔 등이 남아있다. 또한 종이는 전시 환경에서의 과다한 조명 노출로 인하여 상당 부분이 변색되었고, 먹색도 부분적으로 퇴색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조선 宣祖 대의 太醫 許浚(1539-1615)이 왕명을 받아 유의(儒醫)인 정작(鄭碏, 1533~1603), 태의(太醫) 이명원(李命源, ?-?), 양예수(楊禮壽, ?-1600), 김응탁(金應鐸, ?-?), 정예남(鄭禮南, ?-?) 등과 함께 당시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약서를 참고하고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 찬집(纂集)을 시작하였으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 후 선조는 내방의서(內藏方書) 500권을 내어주고 허준에게 단독으로 편찬하게 하여 광해군 2(1610)년에 완성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학서이다.

초간본은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 5) 11월에 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모두 25권 25책이다. 완질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하면 권두에 “萬曆39年辛亥孟夏(光海君 3年, 1611)...李廷龜” 의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萬曆41年11月日 內醫院奉敎刊行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 李希憲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라는 간기가 있다.

『동의보감』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사실은 『광해군일기』2년(1610) 및 3년(1611)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광해군일기』 제32권 경술 무인조에는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은 일찍이 선조(先朝)때 의방(醫方)을 찬집(撰集)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유리(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서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에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숙마(熟馬) 1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方書)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을 설치해 속히 인출(印出)하게 한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어 찬술과 관련된 전말을 알 수 있다.

한편, 『광해군일기』 제47권 신해 병진조에는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 줄로 소주(小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약명(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본책(本冊)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겨서 결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의서(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이 감수(監修)하고 교열(校閱)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바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의원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은 편찬(編纂) 3년 후인 광해군 5년(1613)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木活字)로 초간(初刊)되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국내·외에서 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1659년(효종 10)의 영영간본(嶺營刊本), 1754년(영조 30)의 호남관찰영(湖南觀察營) 전주장본(全州藏本), 영남관찰영(嶺南觀察營) 대구장본(大邱藏本), 1814년(순조 14)의 기해내의원교정(己亥內醫院校正) 영영개간본(嶺營改刊本), 갑술내의원교정(甲戌內醫院校正) 영영개간본(嶺營改刊本) 그리고 갑술내의원교정(甲戌內醫院校正)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 등이 있다.

또한 당대에 이미 중국과 일본 등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는데, 명말청초에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에서는 1763년(乾隆 28) 이후 수차례 간행되었고, 일본에서도 1724년(享保 9)에 京都書林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799년(寬政11) 에는 大坂書林에서 재판본이 간행되었다.

『동의보감』의 편성은 「목록(目錄)」 상하 2권,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총 25권 25책 10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기술은 각 강(綱)의 유형에 따라 항(項)을 열기(列記)하였으며, 각 항(項)의 유형을 다시 목(目)으로 나누고 각 항(項)의 아래에는 그에 해당하는 병의 이론과 처방을 기록하였다. 또한 출전(出典)도 밝히고 있다.

『동의보감』의 찬술에 인용된 인용서로는 복희씨(伏羲氏)의 『천원옥책(天元玉冊)』, 신농씨(神農氏)의 『본초(本草)』, 황제와 그의 신하 기백(岐伯) 등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소문(素問)』, 『영추경(靈樞經)』과 동군(桐君)의 『채약대(採藥對)』, 『채약별록(採藥別錄)』, 뇌효(雷敎)의 『지교론(至敎論)』, 『약성포구(藥性炮灸)』, 은대(殷代) 이윤(伊尹)의 『탕액본초(湯液本草)』, 전국시대(戰國時代) 편작(扁鵲)의 『난경(難經)』 등 10종을 비롯하여 후한 3종, 진 7종, 남북조 2종 및 수 2종, 당 8종, 김 5종, 송 15종, 원 11종, 명 20종의 의서와 우리나라 의

서인 세종조(世宗朝)의 『의방유취(醫方類聚)』,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선조조의 『의림촬요(醫林撮要)』 등 모두 86종에 달하는 역대 의방서들이 인용되었다.

조사본 『동의보감』은 전 25책 중에서 내경편(內景篇) 권2, 외형편(外形篇) 권1, 침구편(鍼灸篇)의 3책이다. 이 중에서 외형편 권1과 침구편은 1613년(광해군 5) 11월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초간 목활자본이나 내경편 권2는 판본미상의 후대 목판본이다.

내경편과 외형편의 권수제면 하단에 '이겸로인(李謙魯印)'과 '통문관주(通文館主)'인문(印文)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1934년 서울 관훈동에 설립되었던 고서점 '통문관'의 주인인 이겸로(李謙魯)의 장서인으로 조사본의 유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외형편 권1에는 권수제면 우측 하단에 "만소당(晩嘯堂)"이라는 묵서도 보인다.

반면에 침구편에는 묵서나 소장인이 없으나, 지첨(紙簽)에 묵서된 한글주석이 천두부(天頭部)에 첨부되어 있다.

ㅇ 지정사례

국보 제3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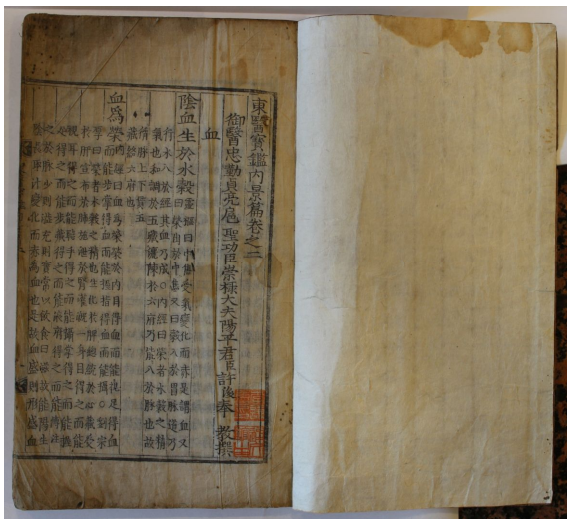
제319-1호: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오대산사고본25권25책)

제319-2호: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본(적상산사고본25권25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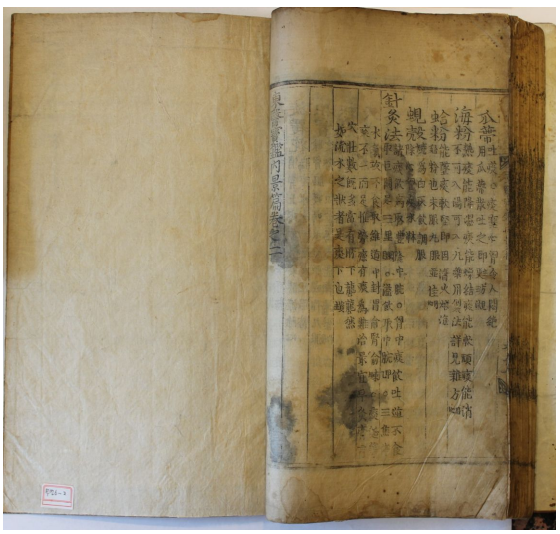
제319-3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소장본(태백산사고본24권24책/17권17책)

ㅇ 참고문헌

-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藏書閣 제24집, 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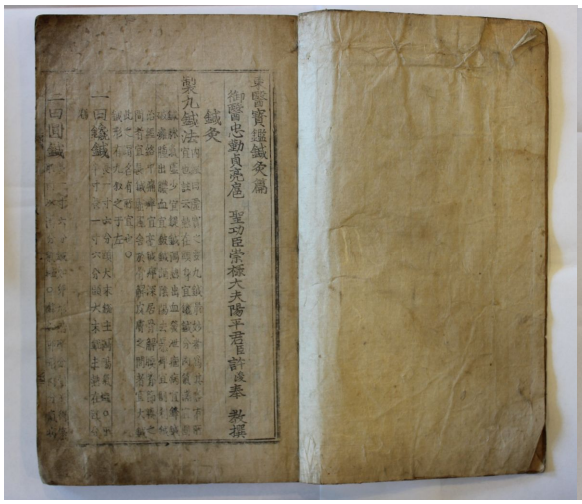
내경편 권2 권수



내경편 권2 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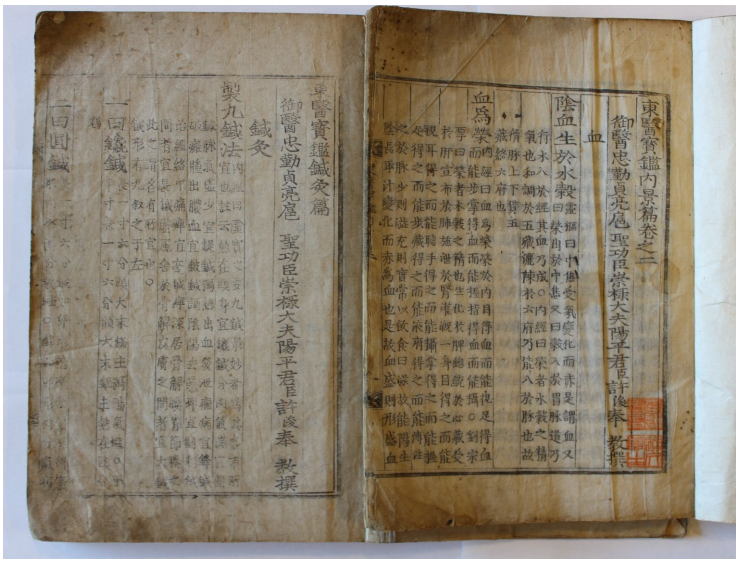
외형편 권1 권수

외형편 권1 권말



침구편 권수

내경편 권2 권미



목활자본(1613)/목판본

□

ㅇ 현　　상

■ 書誌記述 : 조사본「東醫寶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 內景篇 卷2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版本(飜刻).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18世紀].
1卷1冊 : 圖, 表, 四周雙邊 半郭 25.3 × 17.5㎝,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3混葉花紋魚尾 ; 33.2 × 21.0㎝. 楮紙. 線裝.

東醫寶鑑, 外形篇 卷1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活字本(內醫院字). -- [漢城] : [內醫 [光海君 5(1613)].
1卷1冊 : 圖, 表, 四周雙邊 半郭 27.2 × 17.5㎝,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3混葉花紋魚尾 ; 35.0 × 21.5㎝. 楮紙. 線裝.

東醫寶鑑, 鍼灸篇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活字本(內醫院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1冊 : 圖, 表, 四周雙邊 半郭 27.2 × 17.6㎝,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3混葉花紋魚尾 ; 34.5×21.0㎝. 楮紙. 線裝.

表　題: 東醫寶鑑(內景篇, 鍼灸篇)
卷首題: 東醫寶鑑內景篇, 東醫寶鑑外形篇, 東醫寶鑑鍼灸篇
版心題: 東醫寶鑑內景篇, 東醫寶鑑外形篇, 東醫寶鑑鍼灸篇
內　容:
- 內景篇 卷2: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 外形篇 卷1: 頭, 面, 眼.
- 鍼灸篇: 鍼灸
卷頭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 광해군 3)...李廷龜](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卷頭撰者事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奉敎撰
天頭註(鍼灸篇): 天頭部에 紙簽에 墨書된 註釋이 添附되어 있음
印出記: [萬曆四十一年(1613, 광해군 5)十一月日內醫院奉敎刊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活字名(外形篇, 鍼灸篇): 內醫院木活字
冊　數: 3卷3冊(「東醫寶鑑」 완질은 <目錄 上,下>(2권), <內景篇>(4권), <外形篇>(4권), <雜病篇>(11권), <湯液篇>(3권), <鍼灸篇>(1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印　文(內景篇, 外形篇) : 李謙魯印, 通文館主
墨　書(外形篇卷首題面) : 晩嘯堂

表紙改裝: 外形篇
狀　態: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부분적으로 오훼손이 있음
所　藏: 한독의약박물관
傳來歷: 故 一山 金斗鐘 博士가 1970년 4월 27일에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한 文化財임
旣指定: 國寶 第319-1호(국립중앙도서관), 國寶 第319-2호(한국학중앙연구원), 國寶 第319-3호(규장각)

■ 現狀 : 조사본 「東醫寶鑑」은 소장자 및 관리자인 한독의약박물관이 故 一山 金斗鐘 博士로 부터 1970년 4월 27일에 기증받은 文化財로, 현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번지이다. 조사본 「東醫寶鑑」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부분적으로 오훼손이 있어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ㅇ 내용 및 특징

「東醫寶鑑」은 조선 宣祖 대의 太醫 許浚(1539-1615)이 왕명을 받아 儒醫인 鄭碏(1533-1603), 太醫 李命源(?-?), 楊禮壽(?-1600), 金應鐸(?-?), 鄭禮南(?-?) 등과 함께 당시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약서를 참고하고 임상의학적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 纂集을 시작하였으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후 선조는 內藏方書 500권을 내어주고 허준에게 단독으로 편찬하게 하여 광해군 2(1610)년에 완성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학서이다. 서명을 「東醫寶鑑」이라고 한 이유는 이 책의 集例에 나타나 있는데, '東醫' 란 중국의 것이 아닌 조선의 의술을 의미한다. 초간본은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 5) 11월에 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모두 25권 25책이다.
「東醫寶鑑」은 <目錄> 上下 2권과 <內景篇> 4권 26조, <外形篇> 4권 26조, <雜病篇> 11권 38조, <湯液篇> 3권 17조, <鍼灸篇> 1권 1조 등 총 5篇, 25권 10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대 綱篇 아래 질병에 따라 項과 目을 정하고 아래에는 해당되는 병의 이론과 처방들을 출전과 함께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병의 증상에 관한 처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한 백과사전적 의학서이다.
완질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하면 권두에 "萬曆39年辛亥孟夏(光海君3年, 1611)...李廷龜" 의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萬曆41年11月日 內醫院奉敎刊行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　李希憲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라는 간기가 있다.
내용을 보면 <內景篇> 卷1에는 身形,精,氣,神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血,夢,聲音,言語,津液,痰飮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膽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蟲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4에는 小便,大便 등이 수록되어 있다.

<外形篇> 卷1에는 頭,面,眼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4에는 手,足,毛髮,前陰,後陰 등이 수록되어 있다.

<雜病篇> 卷1에는 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汗,下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風,寒上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寒下,暑,濕,燥,火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4에는 內傷,虛勞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5에는 霍亂,嘔吐,咳嗽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6에는 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7에는 瘧,瘟疫,邪祟,癰疽上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8에는 癰疽下,諸瘡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9에는 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10에는 婦人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11에는 小兒 등이 수록되어 있다.

<湯液篇> 卷1에는 湯液序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鍼灸篇>에는 鍼灸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탕액편에는 鄕藥名 등이 한글로도 표기되어 있어 중세 국어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東醫寶鑑」에는 「天元玉冊」, 「本草」, 「素問」, 「靈樞經」, 「傷寒論」, 「脈經」, 「丹溪心法」 등 83종에 달하는 중국의 古典 醫書들과 세종조의 「醫方類聚」를 비롯 「鄕藥集成方」, 「醫林撮要」 등 86종의 역대 醫方書들이 광범위하게 인용되어 있다.

1613년의 초간본 이후 「東醫寶鑑」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는데, 孝宗 10년(1659)의 嶺營刊本, 湖南觀察營 全州藏本(英祖 30, 1754), 嶺南觀察營 大邱藏本 (英祖 30, 1754), 己亥內醫院校正 嶺營改刊本, 甲戌內醫院校正 嶺營改刊本(純祖14, 1814), 甲戌內醫院校正 完營重刊本(1814) 등이 있다.

「東醫寶鑑」은 당대에 이미 중국과 일본 등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명말청초에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에서는 1763년(乾隆 28) 이후 수차례 간행되었고, 일본에서도 1724년(享保 9)에 京都書林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799년(寬政11에는 大坂書林에서 재판본이 간행되는 등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의 의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까지도 병의 원인과 치료법 및 처방 등에 참고하는 대표적인 한의학서로 평가되고 있다.

調査本은 「東醫寶鑑」 3권3책으로, <內景篇>은 木版本(飜刻)이고 <外形篇>과 <鍼灸篇> 2책은 光海君 5(1613)년에 內醫院에서 木活字로 간행한 初刊本으로 추정된다. <內景篇>과 <外形篇> 권수제면 하단에 '李謙魯印'과 '通文館主' 인문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1934년 서울 관훈동에 설립되었던 고서점 '통문관' 주인 李謙魯의 장서인으로 조사본의 유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鍼灸篇>에는 紙簽에 墨書된 한글주석이 天頭部에 添附되어 있다. 調査本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부분적으로 오훼손되고 얼룩과 묵흔 등이 남아있어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調査本 「東醫寶鑑」의 <鍼灸篇>과 <外形篇> 2책은 光海君 5(1613)년에 목활자

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추정되나 총 25권25책 중 2권2책뿐인 落帙本이고, <內景篇> 1책은 18세기 이후에 번각한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보다는 현재대로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345호(2012. 10. 12)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사례

國寶 第319-1호(국립중앙도서관), 國寶 第319-2호(한국학중앙연구원),
國寶 第319-3호(규장각)

ㅇ 참고문헌

-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活字本(內醫院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東醫寶鑑」調査意見書(박문열·정제규·강민식).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안건번호 동산 2016-01-19

4. 언해두창집요 권상(諺解痘瘡集要 卷上)

가. 검토사항

'언해두창집요 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언해두창집요 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5.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6호(2012.10.12.지정)
○ 명　　칭 : 언해두창집요 권상(諺解痘瘡集要 卷上)
○ 소유자(관리자) : 한독의약박물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대소면, 대풍지방산업단지)
○ 수　　량 : 1권1책
○ 규격(cm) : 31.3(23.0)×21.8(17.2)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조선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언해두창집요』는 1책만 전하는 결본(全2책 중)이라는 점과 훼손, 낙장등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그 위에 초인본인 활자본과 번각본 중에서 전질본이 국내에 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한독의학박물관 소장의 『언해두창집요』는 전 2책 중에서 1책만 전하는 결본인데다 결락된 장도 있고, 보존상태도 매우 열악한 판본이다. 현재 이 책보다 보존상태가 좋은 2책 완질본이 여러 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전한다. 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초간본도 발견되었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는 1601년(선조 34)년에 許浚(1539-1615)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두창(痘瘡)에 관한 전문의서로 선조 41(1608)년에 내의원(內醫院)에서 간행된 책이다.

조사본 『언해두창집요』 상권은 한의학서로서의 가치는 물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는 분명하나 상권만 있는 결본(缺本)으로, 현재 완질본이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만큼 현재대로 충북 유형문화재 제346호(2012. 10. 12)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諺解痘瘡集要」는 宣祖 34(1601)년에 許浚(1539-1615)이 王命을 받들어 편찬한 痘瘡에 관한 專門醫書로 宣祖 41(1608)년에 內醫院에서 간행된 언해본이다.

허준은 오랫동안 천연두 치료에서 얻은 경험들을 종합하고, 「醫學入門」, 「古今醫鑑」, 「小兒直訣」, 「得効方」, 「萬病回春」 등의 의서들을 인용하여 「諺解痘瘡集要」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창(천연두)은 당시 치료가 매우 어려워 역대 국왕이 모두 이의 퇴치에 온힘을 기울였는데, 「언해두창집요」가 간행된 이후는 치료방법이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권말에 수록된 허준의 발문에 의하면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胎産集」, 「瘡疹集」, 「救急方」 등 세 가지 의서를 다시 찬집해서 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調査本 「諺解痘瘡集要」는 韓醫學書로서의 가치는 물론 中世 國語 硏究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조선시대 중기의 木版印刷文化를 살필 수 있는 자료지만, 上卷만 있는 落帙本이고, 현재 초간본 완질이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대로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2012. 10. 12)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 책의 전반적인 상태가 손상이 심하다.

○ 내용 및 특징

諺解痘瘡集要. 卷上 / 許浚(1539~1615) 著

木板本

1卷1冊(全2권2책) : 四周單邊 半郭 23.0×17.2㎝,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3×21.8㎝.

卷首題: 諺解痘瘡集要 卷上

版心題: 諺解痘瘡集上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는 허준(1546-1615)이 1601년(선조 34년)에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여 1608년(선조41년)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의서로서, 두창(痘瘡)의 원인과 처방법을 소개해 놓은 책이다. 두창(痘瘡)은 천연두, 마마, 손님 등으로 불리는 전염병의 한자어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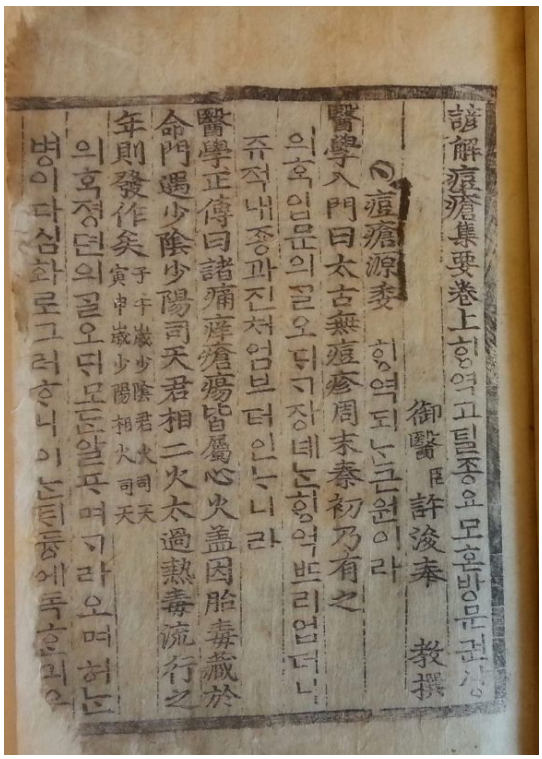
허준이 종전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두창(痘瘡)을 이 책에서 다른 유사 질환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이후로는 천연두만을 두창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보다 뒤에 간행된 동의보감에는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산삭, 추가 등 정리를 거쳐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사용된 처방용어, 약초명, 한자음표기 등은 17세초의 국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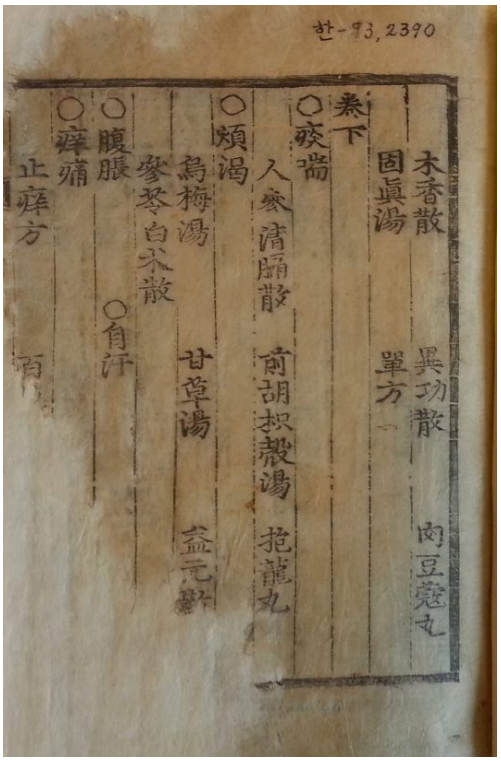
1608년 목활자로 인출한 책은 대부분 유실되고, 국내에는 인천 가천박물관에 1질이 전하고 있다. 나머지 국내외에 전하는 판본은 대부분이 이 목활자본의 후대 번각본이다.

조사대상본『언해두창집요』도 선조 41년(1608) 간본의 번각본으로 추정된다. 전 2권(상하) 중에서 권상의 1책인데, 앞의 목록 2장(全5장 중), 본문 제23장 전면과 마지막 장인 제69장 후면이 결락되었다. 이외에도 본문의 첫 3장은 중하단부의 절단이 있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장이 하단에 손상이 있다. 전후의 표지

는 개장되어있다.

<參考 書影>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권상>

ㅇ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5(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에 관한 연구”『書誌學硏究』19, 2000.
三木榮, 『朝鮮醫書誌』(증수판), 大阪,학술도서간행회, 1973.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藏書閣』 제24집, 2010.10.
한국한의학연구원,『허준박물관』(도록), 2005.
박문열, 이귀원,정제규 등 충청북도지방문화재위원회 언해두창집요 조사 보고서.
사이버동의보감 http://donguibogam.or.kr/kr/01heojun/heojun_medical/01_03.jsp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

ㅇ 현　　상 : 배접되었으나 원본의 손상이 매우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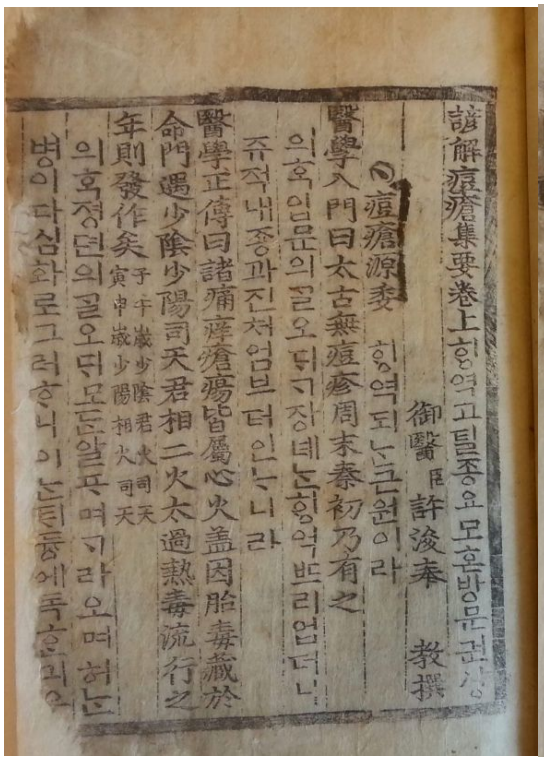
ㅇ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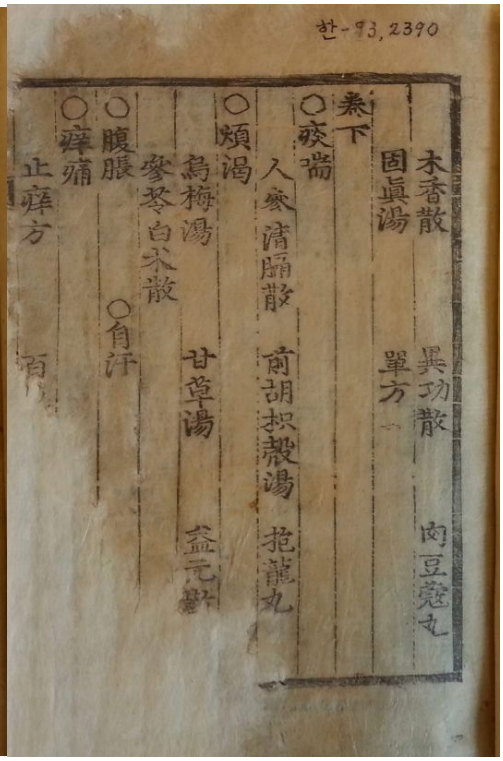
諺解痘瘡集要. 卷上 / 許浚(1539~1615) 著
木板本
[漢城] : [內醫院], [朝鮮後期]
1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3.0×17.2㎝,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3×21.8㎝.
表題, 卷首題: 諺解痘瘡集要
版心題: 諺解痘瘡集

『언해두창집요』는 허준(1546~1615)이 두창(痘瘡)의 원인과 처방법을 소개해 놓은 의서이다. 이 책에서 그 이전에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두창을 유사 질환과 구분함으로써 이후 천연두만을 두창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뒤에 간행된 동의보감에도 이 책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수록되었으나 추가, 삭제, 대체된 곳도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처방 어휘, 약초명, 한자음표기 등은 당시의 국어연구에 가치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1973년에 다른 한방서와 합본으로 영인되어 보급되었다.

최초의 간본은 선조 41년(1608)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국내외에 전하는 판본은 이 초간본의 후대 번각본이 대부분이고,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언해두창집요』 역시 번각본이다. 십 여 년 전에 초간 목활자본이 발견되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6호인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언해두창집요』는 선조 41년(1608) 간본의 번각본으로 추정된다. 전 2권(상하) 중에서 권상의 1책이다. 맨 앞의 목록 2장(전 5장) 그리고 본문 제23장 전면과 마지막 장인 제69장 후면이 결락되어있다. 본문의 첫 3장은 중하부가 많이 손상되었으며, 이후 모든 장도 판심아랫부분이 손상되어 있다. 전장을 배접해 놓았다. 푸른 색 물감을 서툴게 염색한 양면의 표지는 개장된 것으로 보이며, 표제나 제첨은 없다. 책의 손상상태가 심하며, 개장과 배접상태가 좋지 못한 점으로 보아 솜씨가 떨어지는 장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諺解痘瘡集要卷上 한역고틸종요 모훈방문권상
御醫臣許浚奉 敎撰
○痘瘡源委 한역되ᄂᆞ근원이라
醫學入門曰太古無痘秦周末秦初乃有之
의학입문의 골오ᄃᆡ 긔자ᄎᆡ 노한억ᄇᆞ리업더니
쥬적내종과 진처엄보 더인ᄂᆞ니라
醫學正傳曰諸痛痒瘡瘍皆屬心火蓋因胎毒藏於
命門遇少陰少陽司天君相二火太過熱毒流行之
年則發作矣 子午歲少陰君火司天 寅申歲少陽相火司天
의학정뎐의 골오ᄃᆡ 모든알ᄑᆞ며 긔라오며 허ᄂᆞᆫ
병이 다심화로 그러ᄒᆞ니 이ᄂᆞᆫ 태즁에 독ᄒᆞᆫ긔운


한-93,2390
未香散 異功散
固眞湯 單方 肉豆蔻丸
○痎下
○痰喘
人參清膈散 前胡枳殼湯 抱龍丸
○煩渴
烏梅湯
參苓白朮散 甘草湯 益元散
○腹脹 ○自汗
○痒痛
止痒方

<권상의 권수제면> <목록(앞부분 결락)>

ㅇ 참고문헌

- 충청북도 동의보감 등 조사 의견서.
-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 19, 2000)
- 사이버동의보감 http://donguibogam.or.kr/kr/01heojun/heojun_medical/01_03.jsp
-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

書誌事項

諺解痘瘡集要 卷上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版本. -- [漢城] : [內醫院], [宣祖 41(1608)].

1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3.0 × 17.2㎝, 界線, 11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3 × 21.8㎝. 楮紙. 線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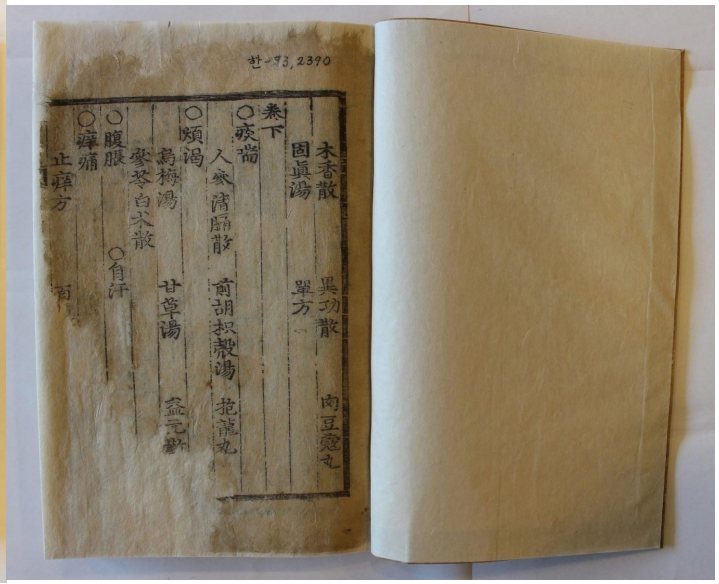
表 題: 諺解痘瘡集(改裝)

卷首題: 諺解痘瘡集要
版心題: 諺解痘瘡集
卷頭撰者事項: 御醫臣許浚奉敎撰(규장각 소장본)
天頭註: 天頭部에 墨書된 註釋
跋　文: [時辛丑(1601)八月日...許浚](규장각 소장본)
刊　記: [萬曆三十六年(1608)正月日 內醫院開刊…李希憲[等]](규장각 소장본)
墨　書: 卷末에 墨書된「朴醫痘瘡經驗方」,「大便燥」,「大便滑」,「眼患」등이 添附
國漢文混用

ㅇ 현　　상

조사본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권상은 故 일산(一山) 김두종(金斗鐘) 박사가 1970년 4월 27일에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이다. 표지는 개장되었고, 목록과 권말 본문의 여러 장이 결락되었다.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표지



언해주창집 목록

ㅇ 내용 및 특징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는 1601년(선조 34)년에 許浚(1539-1615)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두창(痘瘡)에 관한 전문의서로 선조 41(1608)년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언해본이다.

허준은 오랫동안 천연두 치료에서 얻은 경험들을 종합하고, 『의학입문』, 『고금의감(古今醫鑑)』, 『소아직결(小兒直訣)』, 『득효방(得効方)』, 『만병회춘(萬病回春)』 등의 의서들을 인용하여 『언해두창집요』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말에 수록된 허준의 발문에 의하면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태산집(胎産集)』,

『창진집(瘡疹集)』, 『구급방(救急方)』 등 세 가지 의서를 다시 찬집해서 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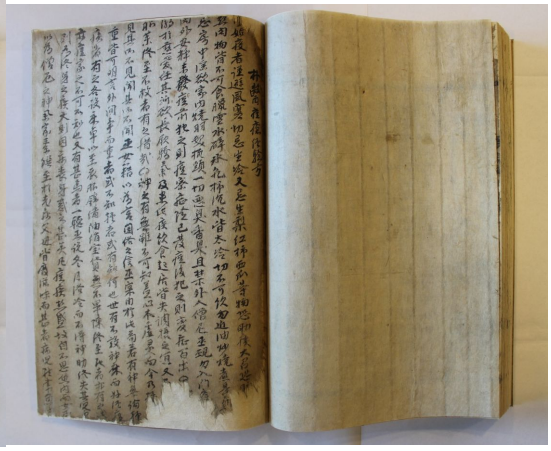
현재 1608년(선조 41)에 내의원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 『언해두창집요』의 완질은 서울대 규장각과 고려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을 참고하면 『언해두창집요』는 목록 5장, 상권 69장, 하권 71장, 발문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말에 "時辛丑(宣祖 34, 1601)八月日御醫正憲大夫知中樞府事臣許浚"의 발문과 "萬曆36年(1608)正月日內醫院開刊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通訓大夫行內醫院奉事臣李"라는 간기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상권에는 두창(痘瘡)의 원인, 예방법, 증상 및 해독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증상 부분에서는 열이 나고, 발진이 돋아 커지고, 고름이 차고, 딱지가 앉는 등 천연두의 주요 증상들 외에 목이 쉬면서 아프고, 요통, 경련, 구토, 설사가 나는 부차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하권에서는 두창의 흔한 합병증인 담천(痰喘), 번갈(煩渴), 가렵고 아픈 증상, 변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발진에 딱지가 앉지 않는 것에 대한 치료법과 눈을 보호하는 법, 흉터를 없애는 방법 등을 실었다. 뒷부분에는 임신부의 천연두와 반진(斑疹)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조사본 『언해두창집요』 상권은 권두의 목록 2장과 본문 제23장 전면과 마지막 장인 제69장 후면이 결락되어있다. 본문의 첫 3장은 중하부가 많이 손상되었으며, 이후 모든 장도 판심 아랫부분이 손상되어 있다. 권말에는 묵서된 「박의두창경험방(朴醫痘瘡經驗方)」, 「대변조(大便燥)」, 「대변활(大便滑)」, 「안환(眼患)」 등이 첨부되어 있다. 본문의 천두부(天頭部)에 묵서된 주석이 많고, 본문에도 구결(口訣)이 표시되어 있다.

언해두창집요 권상 권수



언해두창집요 권말 필사보사 부분

ㅇ 참고문헌

● 諺解痘瘡集要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版本. -- [漢城] : 內醫院, 宣祖 41(1608)(규장각 소장)

□

ㅇ 현 상

■ 書誌記述 : 조사본 「諺解痘瘡集要」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諺解痘瘡集要, 卷上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版本. -- [漢城] : [內醫院], [宣祖 41(1608)].
1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3.0 × 17.2㎝, 界線, 11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3 × 21.8㎝. 楮紙. 線裝.

表 題: 없음
卷首題: 諺解痘瘡集要
版心題: 諺解痘瘡集
卷頭撰者事項: 御醫臣許浚奉敎撰(규장각 소장본)
天頭註: 天頭部에 墨書된 註釋
跋 文: [時辛丑(1601)八月日...許浚](규장각 소장본)
刊 記: [萬曆三十六年(1608)正月日 內醫院開刊…李希憲[等]](규장각 소장본)
版 種: 木版本
冊 數: 1卷1冊(「諺解痘瘡集要」 완질은 卷上, 下 2권2책임)
墨 書: 卷末에 墨書된 「朴醫痘瘡經驗方」, 「大便燥」, 「大便滑」, 「眼患」 등이 添附
國漢文混用
表紙改裝
狀 態: 목록과 권말 본문에 결락이 있고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부분적으로 오훼손이 있음
所 藏: 한독의약박물관
傳來歷: 故 一山 金斗鐘 博士가 1970년 4월 27일에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한 文化財임
旣指定: 없음

■ 現狀 : 조사본 「諺解痘瘡集要」는 소장자 및 관리자인 한독의약박물관이 故 一山 金斗鐘 博士로 부터 1970년 4월 27일에 기증받은 文化財로, 현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번지이다. 조사본 「諺解痘瘡集要」의 상태는 권두의 목록부분과 권말 본문의 결락이 있고 보존 상태가 不良하여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ㅇ 내용 및 특징

「諺解痘瘡集要」는 宣祖 34(1601)년에 許浚(1539~1615)이 王命을 받들어 편찬한 痘瘡에 관한 專門醫書로 宣祖 41(1608)년에 內醫院에서 木版으로 간행된 언해본이다. 2권2책[8].

허준은 오랫동안 천연두 치료에서 얻은 경험들을 종합하고,「醫學入門」,「古今醫鑑」,「小兒直訣」,「得効方」,「萬病回春」 등의 의서들을 인용하여「諺解痘瘡集要」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창(천연두)은 당시 치료가 매우 어려워 역대 국왕이 모두 이의 퇴치에 온힘을 기울였는데,「언해두창집요」가 간행된 이후는 치료방법이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권말에 수록된 허준의 발문에 의하면 임진왜란으로 없어진「胎産集」,「瘡疹集」,「救急方」 등 세 가지 의서를 다시 찬집해서 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諺解痘瘡集要」는 韓醫學書로서의 가치는 물론 中世國語 硏究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조선시대 중기의 木版印刷文化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완질본인 규장각 소장본을 참고하면「諺解痘瘡集要」는 목록 5張, 상권 69張, 하권 71張, 발문 3張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말에 "時辛丑(宣祖 34, 1601)八月日御醫正憲大夫知中樞府事臣許浚" 의 발문과 "萬曆36年(1608)正月日內醫院開刊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通訓大夫行內醫院奉事臣李" 간기가 있다.

上卷에는 痘瘡의 원인, 예방법, 증상 및 해독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증상 부분에서는 열이 나고, 발진이 돋아 커지고, 고름이 차고, 딱지가 앉는 등 천연두의 주요 증상들 외에 목이 쉬면서 아프고, 요통, 경련, 구토, 설사가 나는 부차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下卷에서는 痘瘡의 흔한 합병증인 痰喘, 煩渴, 가렵고 아픈 증상, 변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발진에 딱지가 앉지 않는 것에 대한 치료법과 눈을 보호하는 법, 흉터를 없애는 방법 등을 실었다. 뒷부분에는 임신부의 천연두와 斑疹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현재 宣祖 41년(1608)에 內醫院에서 木版으로 간행된 初刊本「諺解痘瘡集要」완질은 서울대 규장각과 고려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諺解痘瘡集要」卷上은 권두의 목록 2장과 권말 '泄瀉, 單方'의 본문 마지막 한 면이 缺落된 상태고 卷末에는 墨書된「朴醫痘瘡經驗方」,「大便燥」,「大便滑」,「眼患」 등이 添附되어 있다. 본문의 天頭部에 墨書된 註釋이 많고, 본문에도 口訣이 표시되어 있다. 調査本은 오훼손된 부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불량해서 보존처리가 시급히 요망된다.

調査本은 1608년에 內醫院에서 木版으로 간행된 初刊本으로 추정되나, 上, 下 2卷 중 상권만 있는 落帙本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대로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345호(2012. 10. 12)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8) 규장각 소장 一簑문고본(一簑古은615.135-H41du-v.1-2) 상하 2권1책임

ㅇ **참고문헌**

- 諺解痘瘡集要 / 許浚(1539-1615) 奉敎撰. -- 木版本. -- [漢城] : 內醫院, 宣祖 41(1608)(규장각 소장)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諺解痘瘡集要」調査意見書(박문열·정제규·강민식).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안건번호 동산 2016-01-20

5.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가. 검토사항

'주역참동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역참동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9.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 소유자(관리자) :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6가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2권2책
○ 규격(cm) : 세로34.4(22.0)×가로21.9(14.5)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 형　　식 : 선장[線裝(五針眼訂)]
○ 제작연대 : 1441년(세종 2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周易參同契」는 後漢朝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道家의 心身修練의 방식과 長生不老를 위하여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5자의 韻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明朝時代 初期에 張本鎭(?~?)이 宋末元初에 兪琰

(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朝鮮의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冊2의 末尾에는 權近(1352~1409)의 <癸未字跋>과 卞季良(1369~1430)의 <庚子字跋> 및 金嬪(?~1455)의 <甲寅字跋>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金嬪의 <甲寅字跋> 말미에는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고 있어 본서가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記錄이나 實物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어 본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唯一本이며, 學術的·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貴重本이다. 또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조선시대 초기의 道家思想의 관심을 窺見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現傳本이 없는 唯一本이라는 점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전기의 活字史와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을 비롯한 葬禮風俗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조사본『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명초(明初) 장본진(張本鎭, ?~?)이 남송 유염의『周易參同契發揮(주역참동계발휘)』(3편)와『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1441년(세종 23)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것이다.

현재 전하는『주역참동계』중에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으로 조선 광해군대(1608~1623)에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된 자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은 현재까지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실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조선 전기의 도가사상(道家思想)과 서적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周易參同契」는 중국 後漢代에 眞人이라 불리던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丹學 및 道家의 대표적인 경전이며 道家의 心身修練 방식과 장생불노를 위해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四言과 五言의 韻文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상편은 주역의 도에 중편은 內養, 하편은 爐火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의 合本을 明代 初에 張本鎭(?~?)이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조선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冊2의 末尾에 수록된 金鑌의 <甲寅字跋> 끝에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사본이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周易參同契」 중에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인, 조선 光海年刊(1608~1623)에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자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실물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조사본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조선 전기의 道家思想과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 및 葬禮風俗을 연구할 수 있는 學術的, 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 「周易參同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周易參同契 / 魏伯陽(100~170, 後漢) 撰 ; 朱熹(1130~1200, 南宋) 解 ; 黃瑞節(?~?, 宋末元初) 附錄 ; 兪琰(1258~1327, 宋末元初) 釋疑·發揮 ; 張本鎭(明初) 編.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23(1441) 推定].

2卷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2.0×14.5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 34.4×21.9 ㎝.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周易參同契
表　紙: 비단(有紋緞)
板心題: 參同契, 參同契釋疑
內　容: [冊1];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郞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

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冊2];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 權近], [庚子字, 卞季良], [甲寅字, 金嬪]).

刊　記: 正統六(1441, 세종 23)年八月日印出.

印　記: 宣賜/之記(序文第1面)

鑄字跋: [癸未字]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剜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臣閔無疾 知申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霆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荑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郎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濬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 孜孜無倦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教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王教之傳 聖曆之永 固當並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戴佐命功臣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 判禮曺事 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吉昌君 臣權近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庚子字] 鑄字之設 可印群書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曺參判臣李蕆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我恭定大王作之於前 今我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 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永樂二十年 冬十月 甲午 正憲大夫議政府參贊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館大司成 臣卞季良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甲寅字] 宣德九年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 印本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雖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尤佳也 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敬直 集賢殿臣金鎭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注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 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 爲善陰騭論語等書 爲資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琰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

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恭惟我殿下 聖學無厭 萬機之暇 潛心載籍 思欲便利於用 廣布於下俾人 人皆得以講明焉 凡再變而鑄字之文 尤爲盡美 誠我朝鮮萬世之寶也哉 宣德九年九月日 中訓大夫試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臣金鎭 拜手稽首 敬跋 **正統六年八月日印出**

狀　態: 1998년 4월에 발굴된 이후 최근에 全體를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이다.

所　藏: 2013년에 서울특별시 龍山區 文培洞 11-14의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國立中央博物館에 寄託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龍山區 龍山路 6街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傳來歷: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의 高靈申氏의 墓域整地作業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墓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된 것이다.

規　格: 上冊 세로 34.4 × 가로 21.9 ㎝, 下冊 세로 34.4 × 가로 21.7 ㎝.

▢ 現狀 :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의 高靈申氏의 墓域整地作業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墓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2013년에 서울특별시 龍山區 文培洞 11-14의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國立中央博物館에 寄託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龍山區 龍山路 6街의 국립중앙박물관에 守藏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발굴된 이후 최근에 全體를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保存狀態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ㅇ 조사내용

「周易參同契」는 後漢朝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周易參同契'는 「周易」이 鍊丹術과 老子(BC571~BC471 推定)의 道와 서로 섞여 통한다는 의미이며, 丹學 및 道家의 最高의 經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은 초기 道敎思想을 「易經」의 형식을 빌어서 內丹과 外丹을 方技로 삼아 煉丹神仙의 계통적 이론을 논술하고 있고 坎·離·水·火·龍·虎·船 등을 빌어서 煉丹養生을 설명하고 있어, 外丹修練은 과학기술의 化學分野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고 內丹修練은 生命延長과 疾病防止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周易參同契」는 이와 같이 道家의 心身修練의 방식과 長生不老를 위하여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5자의 韻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後漢朝의 魏伯陽(100~170) 이후로도 五代後蜀朝(934~965) 彭曉(?~?)의 「周易參同契通眞義序」, 南宋朝 朱子(朱熹, 1130~1200)의 「周易參同契考異」(1卷), 宋末元初 兪琰(1258~1327)의 「周易參同契發揮」(3卷) 등의

註釋書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朱子는 「周易參同契」 문장을 좋아하여 「參同契考異」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明朝時代 初期에 張本鎭(?~?)이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朝鮮의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조사본 「周易參同契」의 冊1에는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郞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冊2에는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 權近], [庚子字, 卞季良], [甲寅字, 金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의 冊2 末尾에는 權近(1352~1409)의 <癸未字跋>과 卞季良(1369~1430)의 <庚子字跋> 및 金嬪(?~1455)의 <甲寅字跋>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金嬪의 <甲寅字跋> 말미에는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고 있어 본서가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에는 頒賜記는 없으나, 序文 第1面에 朱印의 "宣賜/之記"가 있어 국왕의 頒賜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申叔舟(1417~1475)의 아우인 申末舟(1429~1503)의 현손으로 墓主인 申彦滉(1519~1582)이 중종 14(1514)년에 출생하여 선조 15(1582)년에 졸거한 점을 감안하면 世宗朝에 頒賜되어 집안에 전해오던 本書를 그의 葬禮 때에 副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記錄이나 實物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어 본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唯一本이며, 學術的·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貴重本이다. 또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조선시대 초기의 道家思想의 관심을 窺見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現傳本이 없는 唯一本이라는 점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전기의 活字史와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을 비롯한 葬禮風俗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문헌자료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辛承云·吳龍燮·朴相國의 調査報告書). 서울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2013.
- 申春植 編, 『周易參同契』. 影印本. 서울 :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會, 2013.
- 국립중앙박물관 편, 「한국의 도교문화=Taoist culture in Korea : the road to

happiness :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書誌事項

周易參同契 / 魏伯陽(100~170, 後漢) 撰 ; 朱熹(1130~1200, 南宋) 解 ; 黃瑞節(?~?, 宋末元初) 附錄 ; 兪琰(1258~1327, 宋末元初) 釋疑·發揮 ; 張本鎭(明初) 編.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23(1441) 推定].

2卷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2.0×14.5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 34.4×21.9 ㎝.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周易參同契
表　紙: 비단(有紋緞)
板心題: 參同契, 參同契釋疑
內　容:
[冊1];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郎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冊2];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 權近], [庚子字, 卞季良], [甲寅字, 金嬪]).
刊　記: 正統六年八月日印出.
印　記: 宣賜/之記(序文第1面)
鑄字跋: [癸未字]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剜缺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臣閔無疾 知申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霆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荑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郎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濬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 孜孜無倦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敎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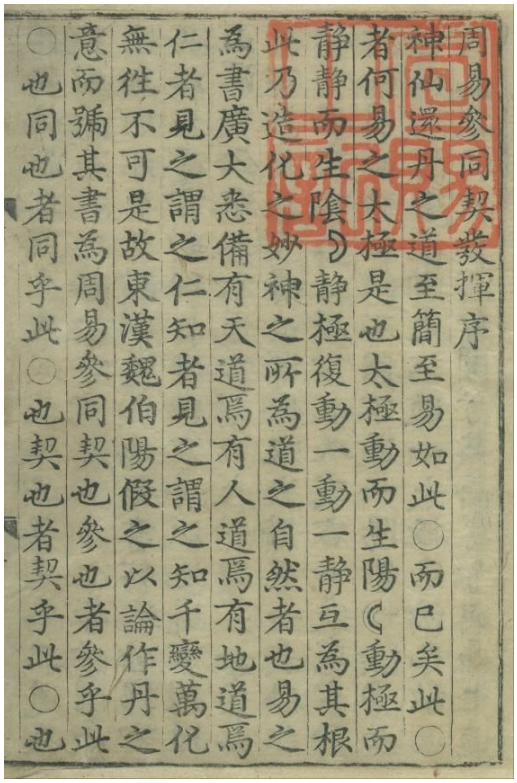
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王敎之傳 聖曆之永 固當並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戴佐命功臣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 判禮曺事 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吉昌君 臣權近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庚子字] 鑄字之設 可印群書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 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曺參判臣李蕆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我恭定大王作之於前 今我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 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永樂二十年 冬十月 甲午 正憲大夫議政府參贊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館大司成 臣卞季良 拜手稽首敬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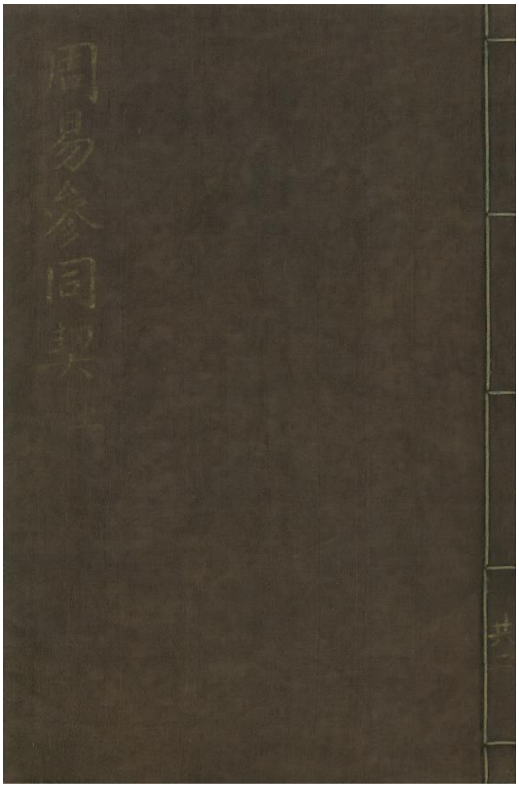
鑄字跋: [甲寅字] 宣德九年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印本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雖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尤佳也 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敬直 集賢殿臣金鎔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注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 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 爲善陰騭論語等書 爲資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瑈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 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恭惟我殿下 聖學無厭 萬機之暇 潛心載籍 思欲便利於用 廣布於下俾人 人皆得以講明焉 凡再變而鑄字之文 尤爲盡美 誠我朝鮮萬世之寶也哉 宣德九年九月日 中訓大夫試集賢殿直提學 知製敎經筵侍讀官 臣金鎔 拜手稽首 敬跋 正統六年八月日印出

ㅇ 현 상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의 高靈申氏의 묘역 정지작업 중 持正公 申彦混(1519~1582)의 묘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출토된 유물로서, 2013년에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寄託하였다. 최근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周易參同契發揮序
神仙還丹之道至簡至易如此○而已矣此○者何易之太極是也太極動而生陽(動極而靜靜而生陰)靜極復動一動一靜互爲其根此乃造化之妙神之所爲道之自然者也易之爲書廣大悉備有天道焉有人道焉有地道焉仁者見之謂之仁知者見之謂之知千變萬化無往不可是故東漢魏伯陽假之以論作丹之意而敷其書爲周易參同契也參也者參乎此○也同也者同乎此○也契也者契乎此○也

주역참동계발휘서/선사지기



표지

ㅇ 내용 및 특징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후한(後漢) 위백양(魏伯陽, 100~170)의 저술로서 초기 도교(道敎)에 관한 내용을 역경(易經)의 형식을 빌어서 서술한 책이다. 내단(內丹;道敎기공)과 외단(外丹;煉丹術)을 방기(方技)로 삼아 연단신선(煉丹神仙)의 이론을 계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감(坎)·리(離)·수(水)·화(火)·용(龍)·호(虎)·선(船) 등을 빌어서 연단양생(煉丹養生)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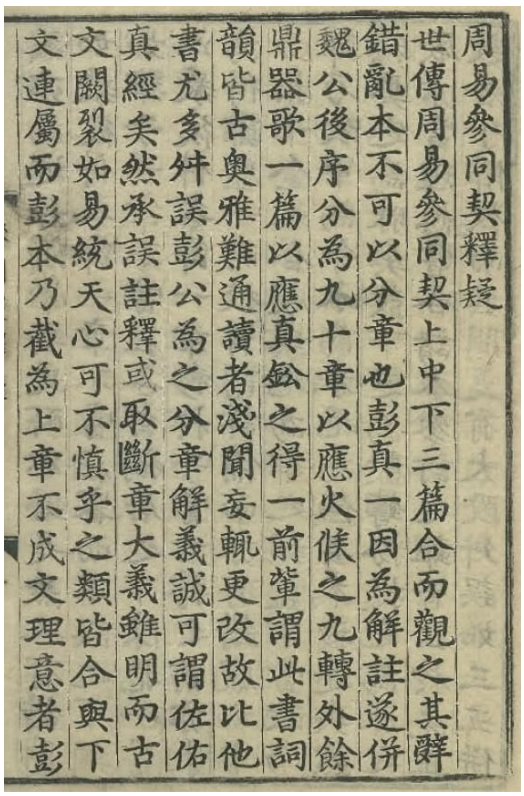
체제는 상중하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가(道家)의 심신수련(心身修練) 방식과 장생불노를 위해 복용하는 단약(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언(四言)과 5언(五言)의 운문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상편은 주역의 도에 중편은 내양(內養), 하편은 노화(爐火)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위백양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후촉(後蜀, 934~965)의 팽효(彭曉, ?~?)가 지은 『주역참동계통진의서(周易參同契通眞義序)』, 남송(南宋) 주희(朱熹, 1130~1200)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1卷), 남송(南宋) 유염(兪琰, 1258~1327)의 『周易參同契發揮(주역참동계발휘)』(3卷)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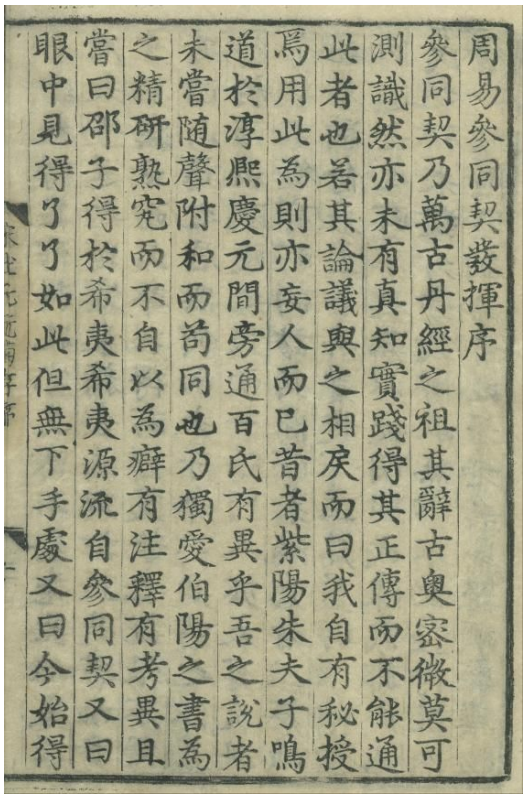
조사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명초(明初) 장본진(張本鎭, ?~?)이 남송 유염의 『周易參同契發揮(주역참동계발휘)』와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1441년(세종 23)년에 초주갑인

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것이다.

조사본의 冊1에는 「주역참동계발휘서(周易參同契發揮序)」, 「序」,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 「周易參同契(上篇)」이 수록되었고, 冊2에는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그리고 권근(權近, 1352~1409)의 「계미자발(癸未字跋)」과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경자자발(庚子字跋)」 및 김빈(金鑌, ?~1455)의 「갑인자발(甲寅字跋)」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빈의 「갑인자발」 말미에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고 있어 본서가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周易參同契釋疑
世傳周易參同契上中下三篇合而觀之其辭
錯亂本不可以分章也彭真一因為解註遂併
魏公後序分為九十章以應火候之九轉外餘
鼎器歌一篇以應真鉛之得一前輩謂此書詞
韻皆古奧雅難通讀者淺聞妄輒更改故比他
書尤多舛誤彭公為之分章解義誠可謂佐佑
真經矣然承誤註釋或取斷章大義雖明而古
文闕裂如易統天心可不慎乎之類皆合與下
文連屬而彭本乃截為上章不成文理意者彭

주역참동계발휘석의


周易參同契敷揮序
參同契乃萬古丹經之祖其辭古奧密微莫可
測識然亦未有真知實踐得其正傳而不能通
此者也若其論議與之相戾而曰我自有秘授
焉用此為則亦妄人而已昔者紫陽朱夫子鳴
道於淳熙慶元間旁通百氏有異乎吾之說者
未嘗隨聲附和而苟同也乃獨愛伯陽之書為
之精研熟究而不自以為癖有注釋有考異且
嘗曰邵子得於希夷希夷源流自參同契又曰
眼中見得了了如此但無下手處又曰今始得

주역참동계발휘서

특히 조사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는 서문(序文) 第1面에 주인(朱印)의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있어 국왕의 반사본(頒賜本)임을 알 수 있으나 반사기(頒賜記)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묘주(墓主)인 신언식(申彦湜, 1519~1582)의 고조(高祖)인 신말주(申末舟, 1429~1503)가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아우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종대에 반사되어 집안에 전해오던 책을 그의 장례 때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ㅇ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辛承

云·吳龍燮·朴相國의 調査報告書). 서울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2013.
- 申春植 編,『周易參同契』. 影印本. 서울 :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會, 2013.
- 국립중앙박물관 편,「한국의 도교문화=Taoist culture in Korea : the road to happiness :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ㅇ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周易參同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周易參同契 / 魏伯陽(100~170, 後漢) 撰 ; 朱熹(1130~1200, 南宋) 解 ; 黃瑞節(?~?, 宋末元初) 附錄 ; 兪琰(1258~1327, 宋末元初) 釋疑·發揮 ; 張本鎭(明初) 編.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23(1441)

3卷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2.0 × 14.5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 34.4 × 21.9 ㎝.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周易參同契
板心題: 參同契, 參同契釋疑
內 容:
-冊1: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郎秘書監
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
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
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 上篇
-冊2: 周易參同契 中篇, 周易參同契 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權近, 庚子字/卞季良, 甲寅字/金嬪)
刊 記: 正統六年(1441, 세종 23)八月日印出
印 文: 宣賜之記
鑄字跋(癸未字):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剜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臣閔無疾 知申

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霆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荑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郎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濬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　孜孜無倦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教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王敎之傳　聖曆之永　固當並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戴佐命功臣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　判禮曺事　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吉昌君　臣權近　拜手稽首敬跋

鑄字跋(庚子字): 鑄字之設　可印群書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曺參判臣李蕆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我恭定大王作之於前　今我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　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永樂二十年　冬十月　甲午　正憲大夫議政府參贊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館大司成　臣卞季良　拜手稽首敬跋

鑄字跋(甲寅字): 宣德九年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　印本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雖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尤佳也　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墩直　集賢殿臣金鎭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注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　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　爲善陰騭論語等書　爲資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琰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　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恭惟我殿下　聖學無厭　萬機之暇　潛心載籍　思欲便利於用　廣布於下俾人　人皆得以講明焉　凡再變而鑄字之文　尤爲盡美　誠我朝鮮萬世之寶也哉　宣德九年九月日　中訓大夫試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臣金鎭　拜手稽首　敬跋　正統六年八月日印出

表　紙: 갈색비단(紋緞)

狀　態: 1998년 4월 묘지 정지작업 중 발굴된 이후 保存處理를 실시하여,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임

所　藏: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번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傳來歷: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 高靈申氏의 묘지

정지작업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묘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되었음

規　格: 冊1, 세로 34.4 × 가로 21.9 ㎝, 冊2, 세로 34.4 × 가로 21.7 ㎝

旣指定: 없음

▢ 現狀 :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 高靈申氏의 묘지 정지작업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墓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2013년에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1-14의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國立中央博物館에 기탁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발굴되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周易參同契」는 중국 後漢代에 眞人이라 불리던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丹學 및 道家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周易」이 鍊丹術과 老子의 道와 서로 섞여 통한다는 의미로 초기 道敎思想을 「易經」의 형식을 빌어서 內丹과 外丹의 煉丹과 養性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체제는 상중하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道家의 心身修練 방식과 장생불노를 위해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四言과 五言의 韻文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상편은 주역의 도에 중편은 內養, 하편은 爐火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魏伯陽은 사후 '萬古丹經王'이라 불릴 정도로 이 책은 丹經의 으뜸으로 평가되며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周易參同契」는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주석서가 나왔는데, 최고의 주석서로 평가받는 五代 彭曉(?~?)의 「周易參同契通眞義序」, 南宋 朱子(朱熹, 1130~1200)의 「周易參同契考異」, 宋代 陳顯微(?~?)의 「周易參同契解」, 宋末元初 兪琰(1258~1327)의 「周易參同契發揮」(3卷) 등이 있다.

조사본은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의 合本을 明代 初에 張本鎭(?~?)이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조선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冊1에는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郎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등이 수록되어 있다. 冊2에는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에 이어 末尾에는 權近(1352~1409)의 <癸未字跋>과

卞季良(1369~1430)의 <庚子字跋> 및 金鎔(?~1455)의 <甲寅字跋>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金鎔의 <甲寅字跋> 끝에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사본이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본에 頒賜記는 없으나, 冊1 序文 첫째 면에 朱印의 "宣賜之記"가 있어 국왕의 반사본임을 알 수 있다. 墓主인 申彦滉(1519~1582)이 申叔舟(1417~1475)의 아우인 申末舟(1429~1503)의 현손으로 중종 14(1514)년에 출생하여 선조 15(1582)년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世宗朝에 頒賜되어 전해오던 이 책을 장례 때에 副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周易參同契」 중에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인, 조선 光海年刊(1608~1623)에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자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실물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조사본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조선 전기의 道家思想과 서적을 연구할 수 있는 學術的, 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특히 조사본은 무덤의 副葬品에서 발견됨으로써 조선시대 葬禮風俗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며, 현존하는 唯一本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ㅇ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辛承云·吳龍燮·朴相國의 調査報告書). 서울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2013.
- 申春植 編, 『周易參同契』. 影印本. 서울 :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會, 2013.
- 국립중앙박물관 편, 「한국의 도교문화=Taoist culture in Korea : the road to happiness :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안건번호 동산 2016-01-21

6. 장흥 천관사 석등(長興 天冠寺 石燈)

가. 검토사항

'장흥 천관사 석등'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장흥 천관사 석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10.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1986.2.7.지정)
○ 명　　칭: 장흥 천관사 석등(長興 天冠寺 石燈)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천관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철관로 1272-473
○ 수　　량: 1기
○ 규격(cm): 전체높이 263.6
○ 재　　질: 석조(화강석)
○ 제작연대: 나말여초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원위치에서 이건되기는 했지만 이건되기 이전의 부재들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삼국시대 이래 건립된 전형적인 팔각형 석등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대석의 안상과 연화문의 화려한 표현기법, 하대석 상부의 정교한 괴임대 수법, 상대석의 연화문 표현기법 등의 치석술이 돋보인다. 간주석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도를 보이고 있어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치석 조영되었으며,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천관사 삼층석탑과 동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ㅇ

이 석등은 나말여초의 일반형 석등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간주석이 비례에 맞지 않게 둔중하며 옥개석과 화사석 그리고 상륜부 또한 비례가 좋지 않아 나말여초 시기에 조성된 석등들과 양식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나말여초라는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이 시기 다른 석등에 비해 조형성이 떨어지며, 원위치에서 옮겨온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사료한다.

ㅇ

이 석등은 둔중하게 조성된 옥개석과 화사석, 그리고 간주석, 기대석 보다 크게 조성된 연화하대석, 길고 얕게 새겨진 안상 등에서 나말여초 시기에 조성된 석등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된다. 비록 나말여초라는 시대적인 특징은 간직하고 있으나 제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전무하고, 이 시기 다른 석등에 비해 조형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뛰어나 석등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ㅇ 부결

조사보고서

□

ㅇ 조사내용

장흥 天冠寺는 靈通和尙이 新羅 哀莊王代(800-808年)에 天冠山 北岬에 창건한 華嚴宗 系列의 사찰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천관사에 남아있는 古式의 석조유물들, 그동안의 시굴·발굴 조사 등으로 확인된 유구와 유물 등으로 보아도 천관사가 늦어도 통일신라말기에는 창건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고려초기에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신앙처로서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존하는 三層石塔, 石燈, 幢竿支柱石, 楚石 등은 그러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백련사의 圓妙國師 了世(1163.10-1245.07.07)에 이어 제2세였던 靜明國師 天因(1205-1248年)이 쓴 記文[9] 등이 전하고 있으며, 고려중기 이후에는 寺域을 확장하면서 五層石塔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佛事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하게 법등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계가 위축되었던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법등을 유지하면서 각종 전적을 간행하는 등 불교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와 조선시대 天冠寺가 지속적으로 중건이나 중수되면서 법등이 유지되었음은 최근 실시된 시굴과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천관사는 조선후기 화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寺勢가 쇠퇴하지만 부분적으로 중건되면서 법등을 유지해 나갔다. 조선후기 건립된 부도재들과 기와편들이 확인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점차 佛事가 줄어들면서 천관사의 寺勢가 약화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10]

현재 天冠寺 石燈은 원위치에서 옮겨져 극락보전 앞에 건립되어 있다. 이 석등이 어느 시기에 원위치에서 移建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934년경 오가와(小川敬吉)의 조사 당시 사진에 의하면 원래는 3층석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등이 사진 상으로 보면 3층석탑과 지나치게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다. 이는 석등이 初建된 이후 어느 시기에 도괴되자 여러 번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天冠寺 石燈이 天冠寺 三層石塔과 함께 한 쌍으로 건립되었음을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석등이 대부분 木塔과 石塔을 비롯한 佛塔이나 佛像 앞에 배치되며, 이들과 함께 한 쌍으로 같은 시기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百濟 彌勒寺址를 비롯하여 統一新羅時代와 高麗時代의 사찰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9)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7卷, 長興都護府, 佛宇條.
10) 순천대학교 박물관, 『장흥 천관산 천관사 지표조사보고서』, 1999.
목포대학교 박물관, 『장흥 천관사 시굴조사보고서』, 2009.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장흥 천관사 주불전지 정비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1.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장흥 천관사 주불전지 정비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2013.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2차 발굴조사 약보고」, 2013.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장흥 천관사 주불전지 추가 발굴조사」, 2015.

사진 1. 장흥 천관사 3층석탑

사진 2. 장흥 천관사 5층석탑

사진 3. 장흥 천관사 석조물들

사진 4. 장흥 천관사 당간지주석

사진 5. 장흥 천관사 석등(측면)

사진 6. 장흥 천관사 석등(정면)

天冠寺 石燈은 基壇部-火舍石-屋蓋石-相輪部 등으로 구성되어 삼국시대 이후 건립된 전형적인 석등 양식을 보이고 있다. 기단부는 먼저 평면 사각형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평면 팔각형의 대석과 연화문이 장식된 연화대석을 同一石으로 치석하여 하대석으로 결구하였다. 하대석의 하단석은 상하부에 갑석형처럼 치석하였으며, 각 면에 좌우대칭을 이룬 眼象을 조식하였다. 그리고 하대석의 상단석은 귀꽃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모서리를 높게 돋을새김한 복판 8엽의 연화문을 동그랗게 장식하였다. 또한 연화대석 상부에는 탁자형으로 치석된 간주석 괴임단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안상이 새겨진 하단석과 연화문이 장식된 상단석을 동일석으로 하여 하대석을 마련하는 것은 신라시대 이래 형성된 석등의 전형적인 치석 수법이었다. 특히 연화대석 상면에 낮게 각형과 호형 괴임단을 새기고, 전체적인 양식을 탁자형으로 치석하는 수법은 다른 석등에서도 적용된 돋보이는 장식 수법이라 할 수 있다. 竿柱石은 평면 팔각 石柱形으로 마련하였는데, 석등의 전체 높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이를 낮게 마련하여 세장한 인상이 다소 감소되었다. 상대석은 仰蓮紋이 장식되었으며, 모서리마다 판단을 높게 돌출시켜 전체적으로 팔각의 평면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대석 상면에는 낮게 甲石形의 괴임단을 마련하여 火舍石을 받치도록 했다.

사진 7. 장흥 천관사 석등 지대석과 하대석

사진 8. 장흥 천관사 석등 하대석 안상

사진 9. 장흥 천관사 석등 간주석 괴임대

사진 10. 장흥 천관사 석등 상대석

火舍石은 평면 팔각형으로 단조로운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4개면에 교차하여 직사각형의 火窓을 뚫었다. 그런데 석등의 화사석은 일반적으로 상부에 구멍을 뚫는데, 천관사 석등의 화사석은 상부에 별도의 구멍을 마련하지 않아 화창을 통하여 통풍이 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창이 밀폐된 시설이 아니라 개방된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火舍石은 상대석 상면의 괴임대와 옥개석 하부에 마련된 받침단의 규모가 다소 커 어울리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결구 수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屋蓋石은 하부에 낮은 1단의 받침단을 마련하였으며, 처마가 수평이 되도록 치석했다. 옥개석의 처마부를 수평되게 치석하는 수법은 석탑 등 옥개석이 결구된 통일신라시대 대부분의 석조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기법이었다. 옥새석의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마루 끝에서 살짝 치켜 올라가도록 하여 약하게 懸水曲線이 보이고 있다. 낙수면 합각부는 마루 끝에서 살짝 치켜 올라가도록 치석하여 반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치석 수법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기법이었다.

相輪部는 원형 보주받침대와 寶珠石 등이 同一石으로 치석 마련되었다. 그런데 보주받침대는 원형이고 옥개석 상면에 마련된 상륜부 받침대는 평면 팔각형으로

마련되어 있어 다소 어울리지 않고 있다. 또한 천관사 석등의 상륜부 양식은 석등의 건립 시기와 어울리지 않게 간략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석질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상륜부는 후대에 새롭게 보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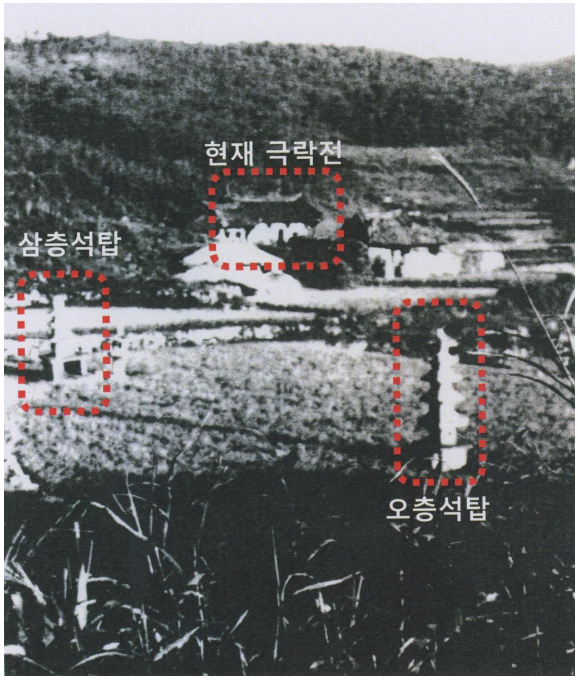
사진 11. 장흥 천관사 석등 화사석과 옥개석

사진 12. 장흥 천관사 석등 상대석 상면

사진 13. 장흥 천관사 석등 옥개석 하부

사진 14. 장흥 천관사 석등 상륜부

11) 정명호, 『韓國石燈樣式』, 민족문화사, 1994, pp.194-198. / 홍선, 『석등』, 눌와, 2011, pp.265-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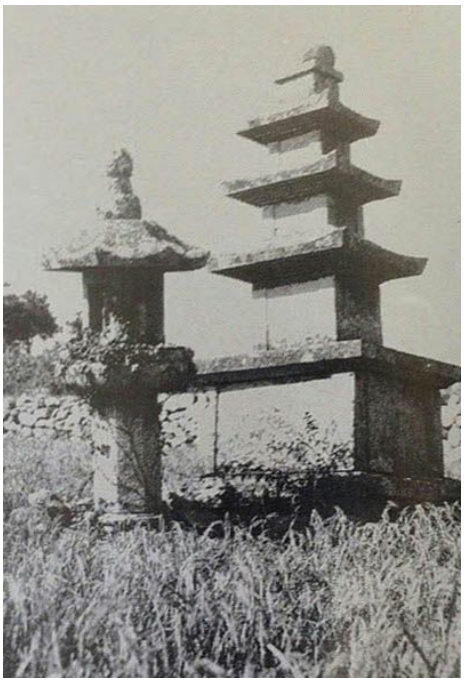


사진 15/16/17. 장흥 천관사 석탑과 석등 전경(小川敬吉, 1934년경)

長興 天冠寺 石燈은 기단부와 화사석, 옥개석 등이 삼국시대 이래 건립된 전형적인 석등의 결구 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치석 수법도 전체적으로 정연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하대석의 안상과 연화문의 표현 기법, 상대석의 연화문 표현 기법 등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표현된 안상과 연화문 수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옥개석의 깔끔하고 정연한 인상의 비례와 치석 수법은 이 석등이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간주석이 석등의 전체 높이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과 화사석이 상대석과 옥개석의 좌우 너비에 비하여 다소 좁은 점은 천관사 석등이 다소 비례가 어울리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을 어색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천관사 석등의 깔끔하고 정연한 치석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이 석등이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천관사 석등이 부분적으로 비례가 다소 어색하고 간략화된 측면이 보이고 있어 신라말기보다는 고려초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34년경 오가와(小川敬吉)의 조사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현재 보물 재795호로 지정된 삼층석탑과 한 쌍으로 동일한 시기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삼층석탑과 석등은 전체적인 치석 수법이 유사하고, 특히 두 석조물은 옥개석의 치석 수법과 양식은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그러한 개연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天冠寺 三層石塔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석등도 상당히 우수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천관사 삼층석탑과 함께 석등도 당대의 문화적 수준과 양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보존 가치도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천관사 석등이 천관사 삼층석탑과 한 쌍으로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천관사 석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기존에 한 쌍으로 건립되었을 경우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의 경우처럼 천관사 석등도 천관사 삼층석탑과 함께 동일한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및 석등'으로 지정 명칭을 부여하여 지정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ㅇ 조사내용

천관사는 천관산의 북쪽 능선의 해발 32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통(통영)화상이 신라 애장왕대(800-808년)에 천관산 북갑에 창건한 화엄종계열의 사찰로 전해진다. 사찰에 남아 있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이러한 사찰의 역사를 뒷받침 한다.

천관사 석등은 현재 사찰의 주불전인 극락전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일제시기(1934년, 昭和 9)에 일본인 소천경길의 사진자료에는 여느 석탑과 석등처럼 삼층석탑의 전방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어느 시점에 지금과 같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석등은 큰 결손부 없이 지대석-연화하대석-팔각간주석-연

화상대석-화사석-옥개석-상륜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른바 팔각간주석등이다.

지대석은 정방형으로 3면은 깔끔하게 치석하였고 한 면은 다소 거칠게 다듬었다. 받침석 위에는 연꽃을 조각한 하대석을 두었다. 하대석의 구성은 기대석과 연화대석, 소반형 굄대로 이루어져 있다. 기대면석에는 안상을 얕게 음각하였는데, 나말여초기에 보이는 안상의 양식이다. 연화하대는 복련으로 조각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실상사 석등에서 볼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연화하대석 위에는 간주석을 받치는 소반모양의 굄대를 두었는데, 굄대는 하단부가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 굽을 이루고 있다. 소반형의 굄대 위에는 낮은 팔각주좌를 두고 그 위에 간주석을 올렸다. 간주석은 팔각으로 화사석에 비해 길이가 짧고 두꺼워 둔중한 형태를 보여준다.

상대석은 단판의 연꽃을 두 번 중첩하여 표현하였고, 연판과 연판 사이에는 잎을 표현하였다. 앙련석 윗면에는 화사석 굄대를 마련하였다. 화사굄대 중심에는 얕은 팔각단을 마련하였으며, 화창은 네 방향에 걸쳐 비교적 크게 뚫었다. 화창에는 창을 달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 옥개석은 연꽃을 우산모양으로 펼쳐놓은 모양이며, 추녀마루는 물결치듯 얕은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 그 끝을 들어올렸다.

옥개석의 위에는 보륜과 원통형의 간주대, 보주로 구성된 상륜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륜부는 불국사 석등이나 법주사 상륜과 비교될 수 있지만 솜씨가 투박하여 나말여초 석등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주로 조선시대 석탑이나 승탑의 상륜부에 등장하는 것과의 유사하여 후대의 어느 시기에 후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인근 사찰인 장흥 보림사 석등의 계통을 따르고 있으나, 세련되고 균형 잡힌 보림사 석등 등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표현 감각에는 미치지 못한다.

ㅇ 참고문헌

- 홍선, 『석등』, 눌와, 2011
- 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

ㅇ 조사내용

천관사는 천관산의 북쪽 능선의 해발 32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靈通(通靈)和

尙이 신라 哀莊王代(800-808년)에 천관산 北岬에 창건한 화엄종계열의 사찰로 전해진다. 사찰에 남아 있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이러한 사찰을 뒷받침 한다. 이후로도 천관사는 보림사, 탑산사 등과 함께 이 지역의 주요사찰로 법등을 이어왔다.

천관사 석등은 현재 사찰의 주불전인 극락전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일제시기(1934년, 昭和 9)에 오가와게이기치(小川敬吉)의 사진자료에는 여느 석탑과 석등처럼 삼층석탑의 전방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어느 시점에 지금과 같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석등은 큰 결손부 없이 지대석-연화하대석-팔각간주석-연화상대석-화사석-옥개석-상륜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른바 팔각간주석등이다. 화사석 이하의 구조는 석불대좌의 구성과 같은 형태이다.

지대석은 석등의 모든 하중을 받는 곳으로 정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면은 깔끔하게 치석하였고 한 면은 다소 울퉁불퉁하게 다듬었다. 받침석 위에는 내림연꽃으로 이루어진 하대석을 두었다. 하대석의 구성은 기대석과 연화대석, 소반형 굄대로 이루어져 있다. 기대면석에는 다섯 개의 능을 가진 안상을 얕게 음각하였는데, 나말여초기에 보이는 안상의 모습과 시대양식을 공유한다. 연화하대는 기대석을 덮을 만큼 큼직한 覆蓮으로 조각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장흥 보림사 석등과 실상사 석등 등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하대석의 연잎은 단판의 연잎으로 조각하였고, 그 위에 다시 잠자리 날개모양처럼 두 개의 꽃잎을 얕게 음각하여 멋을 내었다. 연판의 끝은 버선코 모양으로 슬쩍 들어 올려 곡선미를 살렸으나 양감은 미미하다.

연화하대석 위에는 간주석을 받치는 소반모양의 굄대를 두었는데, 굄대는 하단부가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 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반형 굄대는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에서 볼 수 있으나 석등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수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반형 굄대는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42호)나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경) 등 9세기 전·중엽부터 조성된 불상의 대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어서 이 석등을 편년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소반형의 굄대 위에는 다시 낮은 팔각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간주석을 올려놓았다. 간주석은 팔각으로 화사석에 비해 길이가 짧고 너비가 넓어 둔중한 형태를 보여준다.

상대석은 올림연꽃으로 만들어졌으며 단판의 연꽃을 두 번 중첩하여 표현하였고, 연판과 연판 사이에는 사이 잎을 표현하였다. 앙련석 윗면에는 간주석 굄대와 마찬가지로 하단부가 약간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만든 화사굄대를 마련하였다. 화사굄대 중심에는 화사석이 알맞게 놓이도록 얕은 팔각단을 마련하였으며, 화창은 네 방향에 걸쳐 비교적 크게 뚫었다. 화창에는 창을 달기 위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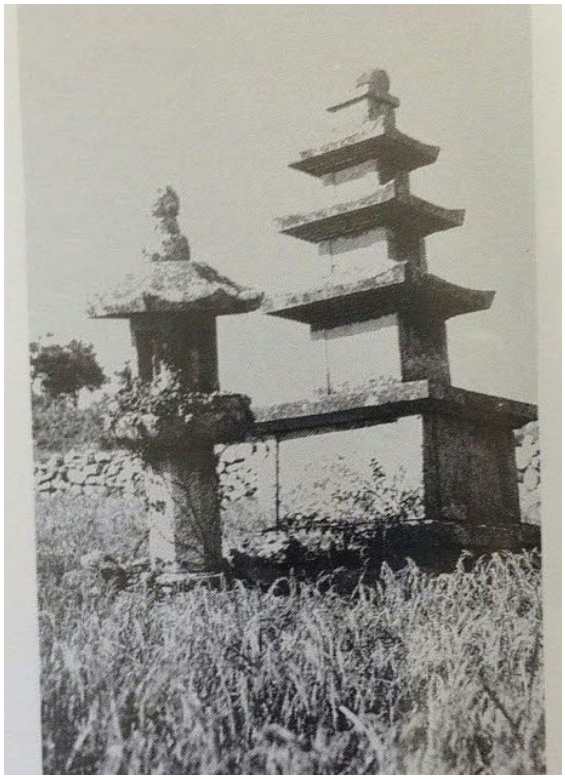
멍이 뚫려 있다. 옥개석은 연꽃을 우산모양으로 펼쳐놓은 모양이며, 추녀마루는 물결치듯 얕은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 그 끝을 들어 올려 경쾌한 반전의 미를 거두고자 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낙수선의 과장된 곡선과 수평의 처마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둔중한 맛을 준다.

지붕의 정상에는 寶輪과 원통형의 간주대, 寶珠로 구성된 단출한 상륜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륜부는 불국사 석등이나 법주사 상륜과 비교될 수 있지만 솜씨가 투박하여 나말여초 석등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주로 고려·조선시대 석탑이나 승탑의 상륜부에 등장하는 것과의 유사성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後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인근 사찰인 장흥 보림사 석등의 계통을 따르고 있으나, 세련되고 균형 잡힌 보림사 석등 등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표현 감각에는 미치지 못한다.

ㅇ 참고문헌

● 홍선, 『석등』, 눌와, 2011

장흥 천관사 석등



장흥 천관사 석등과 석탑, 1934년

안건번호 동산 2016-01-22

7.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

가. 검토사항

'고려 수월관음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고려 수월관음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1.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9.8)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호림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53(미성동 1707)
○ 수　　량: 1폭
○ 규격(cm): 103.5×53.0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고려후기(14세기)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특히 이 수월관음도는 베일의 당초원문, 치마의 귀갑문과 타원형의 연화문은 말 할 필요도 없고, 황토를 전면에 칠하고 바탕을 백색안료로 채워 넣는 치마 단의 채색법이야 말로 고려 수월관음도 전형의 표현과 기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이 그림은 당초원문, 소극적인 베일 마엽문의 표현 등에서 형식화 경향이 엿

보여 제작 시기는 14세기 중반으로 짐작된다. 어찌되었든 이 그림은 전통 도상과 기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주 드문 고려 수월관음도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하여 보존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수는 국·내외를 통틀어 160여점 정도로 그 수가 적고 대다수 해외에 유존하고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작품이 지극히 적다는 점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고려불화의 가치는 지대하다. 비록 박락되고 손상된 부위가 수리되고 畵記를 남기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흠잡을 데 없이 균형감 있게 묘사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의 문답하는 극적인 구도와 형식, 수월관음도의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는 청죽·바위·정병 등의 경물의 표현과 배치 등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상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불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 작품은 굵고 가는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물 흐르듯 유려한 선묘를 보여주고, 다양하고 복잡·화려한 문양을 전신에 걸쳐 시문하였음에도 고귀한 품격을 느낄 수 있으며, 붉은색과 백색, 금색 등 고급스러운 색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요란하지 않은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수준 높은 불교회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ㅇ

이 수월관음도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반측면관으로 투명한 베일을 걸친 채 물에 둘러싸인 암반 위에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좌의 자세로 선재동자를 굽어보고 있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도상을 따르고 있음. 이와 함께 오른손 옆쪽 암반 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정병과 광배 뒤쪽 대나무 등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특징이 잘 구현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그림은 고려시대 전형적인 수월관음도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근거기준

현재 국내외에 남아있는 고려불화는 약 160여 점. 그 중에 수월관음도가 무려 40여 점이나 될 정도로 많이 그려졌음. 그러나 국내에 있는 수월관음도는 약 3~4점정도로 매우 적은 수임.

국내에 있는 세 곳(소장처: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우학문화재단)의 수월관음도는 모두 지정되었음(보물 926호, 1426호, 1286호). 이 수월관음도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수리 및 복원을 거쳐 화면이 안정화되어 있음. 많은 부분에 발생된 안료박락

흔적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처리하여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현재의 화면 상태는 양호하고, 수월관음도가 갖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 또한 비교적 잘 드러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취득 경위 관계 자료 보완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이 그림은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약간 오른쪽을 향하여 반가좌하고, 오른손 앞쪽에는 정병, 화면을 향하여 왼쪽 아래에는 선재동자, 등 뒤 쪽에는 대나무가 묘사된, 고려불화 전형의 수월관음도상이다.

신체부분은 모두 금니金泥로 칠하고 윤곽선과 이목구비의 묘선을 엷은 먹선으로 표현하였다. 베일은 地文인 麻葉文을 백색안료로 그렸는데 박락 또는 소극적인 표현 때문인지 현재는 극히 일부에서 만 확인이 가능하다. 베일에는 직경 2.3센치 정도의 당초원문을 금니로 그려 넣었다. 치마는 전면에 朱를 칠하였고 그 위에 연잎과 연꽃이 좌우상하 대칭으로 구성 된 9개 정도의 타원형 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치마의 바탕무늬는 귀갑문으로 윤곽선을 朱具로 표현하고 그 안에 백색 안료로 국화와 같은 꽃무늬를 그려 넣었다. 치마의 端은 황토를 전면에 칠하고 모란당초문의 윤곽과 세부를 금니선으로 나타내었으며, 바탕은 백색안료로 채워 넣었다. 선재동자는 약간 무릎을 굽히고 합장 한 채 관음보살을 올려다보는 듯 한 자세인데 신체이외의 윤곽선과 문양을 금니로 그렸으며 손톱과 발톱은 백색안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대나무, 눈썹과 콧수염, 정병 등 안료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고 두광의 일부와 화면을 향하여 오른쪽 바위 부분 등에 보견을 하였고, 양 손으로 잡고 있는 염주 역시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존 고려 수월관음도의 대부분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상당한 화면 손상과 그에 따른 수복 잡업을 거쳐 왔음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더구나 이 그림의 본존은 물론 선재동자의 형상이 매우 명료하고 수월관음도상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고려 할 때 부분적인 안료의 박락과 보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전체적으

로 화면에 손상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의 모습을 그다지 잃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ㅇ 조사내용

이 작품은 2010년 10월 성보문화재재단에서 구입한 개인 소장자로 부터 수월관음보살도로, 현재 일본식 장황으로 되어 있다. 수월관음은 관음보살이 물에 비친 달을 보며 금강보석 위에 앉아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大方廣佛華嚴經』 入法戒品의 내용에 근거하며, 도설내용은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 암굴에 계시는 관음보살을 찾아 보살도를 묻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80권본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남순여행 기록에는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보타락가산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선남자여 남방에 보달락가(補怛洛迦)산이 있는데 거기에 관자재라는 보살이 있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지를 물으라. 그리고 게송을 말하였다.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인 많으니 보배로 이루어져 매우 깨끗해 꽃과 과실나무들이 우거져 섰고 샘과 못과 시냇물이 갖추어 있는데 용맹하고 장부이신 관자재보살 중생을 이익하려 거기 계시니 너는 가서 모든 공덕 물어 보아라 그대에게 큰 방편을 일러주리라.」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쓸려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서 가부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시었다 ….”[12] 라는 내용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수월관음도의 도상적 근거로 화엄경 80권본에 ‘水月中’이라는 표현에 근거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맑은 물이 있으면 달은 언제나 나타난다는 평등한 法性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물에 비친 달의 신체는 없다는 평등한 空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측면관 한 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 금강바위 위에 반가좌로 앉아 菩薩道가 무엇인지를 청문하는 선재동자를 지긋이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청문하는 선재동자는 예의바르게 무릎을 반쯤 구부려 합장하고 관음보살을 우러러 보고 있는 모습이다. 관음보살상은 화면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지르는 바위절벽을 대좌 삼아 반가좌하였는데, 화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크게 표현하여 主尊

12) 번역은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을 따름(http://abc.doungguk.edu/ebti/c2)

으로서의 존격을 부각시켰다. 이에 비해 선재동자는 화면의 우측 한단에 지극히 작게 표현하여 두 주인광 사이의 무한한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구성 효과는 두 尊格 모두에게 시선이 집중되게끔 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

관음보살은 고려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원형의 두광과 함께 배후에 커다란 원광을 갖추고 있으며, 양감이 풍부한 중후하고 고귀한 모습이다. 목에는 두툼한 삼도의 윤곽이 분명하며, 가슴과 배에는 근육이 육감적으로 표현되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 염주를 쥐고 있다. 염주를 지물로 취하고 있는 수월관음도상은 일본 센오쿠하쿠코칸(泉屋博古館)의 수월관음도, 다이토쿠지(大德寺) 수월관음도, 단잔진자(談山神社) 수월관음도, 요주지(養壽寺) 수월관음도 등 몇 점 확인되지만, 이처럼 두 손으로 염주를 쥐고 있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다. 선재동자는 귀엽고 통통한 아동의 모습이며, 얼굴과 피부에는 바림질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머리는 두 가닥으로 땋아 붉은색 띠로 묶었으며, 붉은색 천의와 주름이 잡혀 있는 바지를 입었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찼다.

머리에는 坐像의 化佛이 있는 보관을 썼고, 다시 보관에서부터 전신에 걸쳐 沙羅天衣를 걸쳤다. 사라천의에는 금니로 역동적인 唐草圓文과 흰색의 화문을 纖麗하게 시문하였다. 투명한 사라천의 속으로는 부드러운 관음보살의 금빛 속살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곳에서 표현된 사라천의와 문양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려불화의 특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이나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고려 후기 불상의 복장에서도 관음보살상이 착용한 사라천의같은 직물과 유사한 직물편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려불화를 통해 불화는 물론 고려의 직조기술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가슴 좌우에는 화패장식을 맵시 있게 묶어 발아래까지 유려하게 늘어뜨렸으며, 목에는 낚시 바늘 같은 고리에 큼직한 타원형의 꽃무늬 장식과 3줄의 垂飾이 달려 있는 목걸이를 걸었다. 팔뚝에는 큼직한 완천을, 팔목에는 색 구슬 3개가 박혀있는 넓은 띠 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장신구의 표현방식은 1310년 작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를 비롯하여 고려 후기 보살상 등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다. 下衣는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귀갑문을 시문한 붉은색 치마를 입었는데, 이곳에서의 특징은 귀갑문의 윤곽선을 바탕색 보다 몇 단계 짙은 붉은색으로 윤곽선을 그어 입체감을 주었고, 귀갑문의 바탕에는 다시 흰색으로 꽃무늬를 도장을 찍듯 쿡쿡 찍어 넣었다.

관음보살이 앉은 암반에서 우측으로 오솔길처럼 좁고 가파르게 연결된 바위

끝에는 수월관음의 상징과도 같은 버들가지를 꽂혀 있는 정병을 놓아 두었다. 정병은 긴 주구와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시대 정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보살상의 등 뒤 모서리에는 거무스름한 바탕 위에 달빛에 비친 두 그루의 푸른 대나무를 그윽하게 그려 넣었다. 큰 암반 주변에는 작은 바위와 연꽃을 배치하고, 그곳에 사슴뿔 같이 瑞氣어린 화초를 그려 넣어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

ㅇ 현　　상

수리 및 복원을 거쳐 화면이 안정화되어 있음. 많은 부분에 발생된 안료박락 흔적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처리하여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임.

ㅇ 내용 및 특징

고려 수월관음도의 내용은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 근거하는데, 「입법계품」은 선재동자(善財童子)가 53인의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가

는 과정을 담은 것임. 그 중에 28번째 방문한 곳이 관음보살이 살고 있는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 이처럼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찾아 보타락가산에 가서 관음보살을 만나는 장면이 고려 수월관음도의 주요 내용임. 이에 따라 고려 수월관음도의 도상은 관음이 천의를 걸치고 베일로 전신을 덮은 모습으로 약간 왼쪽(오른쪽)을 향하여 반가(半跏)한 자세로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며, 보관에는 화불(化佛), 등 뒤에는 대나무, 그리고 오른팔 옆쪽 바위 위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이 있고 보살의 시선이 맞닿는 화면 아래에 선재동자가 표현되는 것이 특징적임.

안건번호 동산 2016-01-23

8.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 (潭陽 靈隱寺 石造如來坐像)

가. 검토사항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6.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3호(1986.2.7.지정)
○ 명　　칭: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潭陽 靈隱寺 石造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영은사
○ 소 재 지: 전남 담양군 고서면 금현길 110-9(고서면 금현리 133)
○ 수　　량: 1구
○ 규격(cm): 전체높이 260cm, 불상높이 160cm, 어깨너비 86cm, 무릎너비 118cm, 무릎높이 28cm
○ 재　　질: 석조
○ 제작연대: 고려 전기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이 불상은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이나 나주 심향사 석조여래좌상, 임실 오수리 석불좌상 등과 같이 지역적 특징을 보이고 있

지만, 이 불상과 직접 연결 지어 생각할 만한 기록이 없어 고려시대 조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불상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대좌를 갖추고 있지 않아 완결성에서도 결함을 드러내고 있고, 불신에 새겨진 주름이나 광배의 화불과 문양 등이 뚜렷하지 않고 마멸이 심하다. 불상의 무릎도 파손되어 불상의 형태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불신에는 의도적으로 주름을 생략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주름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새기다 만 듯한 인상을 주어 완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ㅇ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은 고려 전기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상체를 강조하여 불상과 광배를 한 돌로 조각하였으며 화불이 독특하게 표현된 광배를 갖추었다. 다만 이 불상은 현존 상태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점은 있으나 학술적·예술적인 면에서 차별성이나 완전성을 뚜렷하게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찰의 연혁과 역사적 의미 역시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다 더 잘 관리되고, 영은사의 또 하나의 불상과 더불어 차후 그 가치가 충분히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ㅇ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은 영암 도갑사 석불좌상(보물 84)을 모방하여 조성한 불상이다. 이는 광배를 통해 알 수 있다. 광배의 형태가 좁고 긴 주형(舟形) 광배이면서 머리 위쪽으로 광배가 높이 올라 간 경우는 좌상 형태의 불상에서는 흔하지 않다. 특히 광배에 돋을새김 한 화불 7구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은 나말여초에 유행한 지방적인 유파의 흐름을 잘 보여주며 독특한 광배의 형식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청할 가치가 있다. 다만 대좌가 분실되어 있으며 학술적 연구의 축적여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더 큰 다른 불상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이 불상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 앞 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서술하였다.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성춘경 선생이 「潭陽지역 石佛의 몇 例」(문화사학 창간호, 1994)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아직 축적된 것이 없다.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잠재적인 학술적 가치는 높다. 다만 현재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할 시 어떠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성과는 부족하다. 학자들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축적될 때 까지 문화재지정(보물)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은 영암 도갑사 석불좌상을 모방한 불상이다. 전근대시대 비용과 공력이 많이 투입된 불상이 조성되면 이를 모방한 불상이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는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도갑사 석불좌상을 모방한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이다. 이밖에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보물 462)을 모방하여 나주 만봉리 석불입상(시도유형문화재 64)이 조성되었으며 포천 구읍리 미륵불상(향토유적 6)은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보물 218)을 모방한 것이다.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보물 217)의 원형은 안성 매산리 석불입상(시도유형문화재 37)으로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영은사 석조여래좌상보다 학술적으로 더 연구가 진척되었으며, 역사적 의미가 높고 예술적 가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불상들이 많다.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은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 불상이 차지하고 있는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은 학술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대좌 등 분실된 불상의 구성요소가 찾아지고 난 이후 논의한다면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영은사는 무등산의 지맥인 덕봉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석조여래좌상은 민도리집 형태로 1976년에 건립된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금현리사지로 알려져 있던 곳인데, 1976년 이 마을에 거주하던 안갑순, 조순자 등의 시주로 보문스님이 창건하고 석불에 영험함이 서려 있다고 하여 절 이름을 靈隱寺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2009년경) 혜종스님이 주석하면서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로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석불은 불상과 광배가 한 몸으로 조성되었다. 불상은 세장한 연잎 모양의 거신광배를 갖추었고, 머리 부분에는 둥글게 테두리를 돌린 두광과 두광 안에는 얕게 연화문을 새겨 넣었다. 두광의 외연을 따라 7구의 화불이 새겨져 있는데, 두광에서 줄기가 피어난 연꽃대좌 위에 앉아 있어 특색이 있다. 화불 또한 모두 꽃잎모양의 거신광배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꽃잎모양의 세장한 거신광배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이나 임실 오수리 석불좌상 등 이 지역의 고려전기 석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로 표현되었으며 복발모양의 높은 육계를 갖추고 있다. 이마는 짧으며 양미간 사이에는 백호를 돌출하였다. 갸름한 얼굴에 활처럼 시원스럽게 휘어진 눈썹, 삼각형으로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얇은 입술 등 단정한 이목구비를 보여준다. 귀는 이륜과 귓불이 동일하여 마치 콩꼬투리모양처럼 표현하였고, 귓불은 길게 늘어지지 않고 짧게 처리하였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있으며 가슴은 시원하게 열었으나 신체의 굴곡과 볼륨은 뚜렷하지 않다. 착의법은 얼핏 편단우견으로 보이나 오른팔의 안쪽 팔뚝선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오는 옷 주름 선이 새겨져 있어 통견착의로 걸쳤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어깨를 덮어 내린 대의자락에 주름을 새기지 않은 수법은 나주 심향사 석조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외에도 이 두 불상은 불상의 도상이나 양식 등에서 친밀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의 양감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大衣는 신체의 굴곡이 드러날 정도로 얕고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깨부분에는 아예 주름을 표현하지 않아 미완성된 느낌을 강하게 준다. 형태적으로 보면 어깨는 어깨의 끝을 약간 치켜세워 다소 움츠린 듯한 인상을 주지만, 보통의 불상에 비해 어깨선이 수평으로 널찍하게 표현되어 당당한 비례감을 보인다. 이와 같은 넓적한 어깨는 광주 운천사 마애여래좌상(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등 이 지역 일부의 불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무릎은 크게 파손되었으며, 남아 있는 무릎에는 흘러내린 대의 주름이 일부 확인된다.

영은사 석조여래좌상 봉안장소(대웅전)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

□

ㅇ 조사내용

영은사(靈隱寺)는 고려시대 작품으로 알려진 두 불상으로 인해 1976년경 금현리 사지(寺址)에 지어진 사찰이다. 두 불상은 광배가 있는 큰 석조여래좌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3호)와 광배가 없는 작은 석조여래좌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5호)이다. 현재 두 불상은 영은사의 대웅전과 영산전 주불로 각각 봉안되어 있다. 이번 지정조사보고서는 광배를 갖춘 대웅전 석조여래좌상에 관련된다.

금현리 사지에 관한 옛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금현리 사지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잠시 주석했다고 하는 창평 청원사(淸源寺)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13]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두 불상이 드물게도 창평에 소재한 고려전기 불상이라는 점과 이곳이 무등산을 전망하기에 맞춤이라는 견해에서였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지지류나 이후 어디에도 금현리 사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1960년대 영은사 불상의 모습은 현재 상태 보다 조금 더 양호해 보인다(사진 1).[14] 다만 그때에도 대웅전 불상은 왼손과 다리 부분이 지금과 같이 깨어져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온전해 보이는 광배와 두상에 상응하는 별석의 대좌는 없었다. 이 불상은 특별히 집안에 경사를 부르는 신령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에 따라 절 이름이 '靈隱寺'이다. 영험한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져 이 불상은 지역민과 신앙을 연결하고 있다.

---

13) 성춘경,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14) 전남대학교 박물관,『潭陽郡 文化遺跡 學術照査』, 전라남도·담양군, 1995, pp. 130-131, p.172.

사진 1. 영은사 불상의 1960년대 모습(전남대박물관,『潭陽郡 文化遺跡 學術照査』, 전라남도·담양군, 1995, p.172.)

영은사 대웅전 불상은 광배를 합하여 총 높이 265cm이다. 좌상으로서는 작지 않은 크기이며, 불상과 광배를 한 돌에 조각하였다. 상체를 강조한 조각이며, 두상이 크고 어깨를 각이 지게 표현하였다. 얼굴은 둥근 편이며, 백호가 또렷하다. 머리는 육계가 높은 소발이다. 귀는 위쪽으로 올려 져 길지 않게 표현되고, 짧은 목에 삼도가 있다.

왼손은 선정인이며 오른손은 촉지인이다. 법의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좌측 어깨를 걸치는 옷주름은 가슴 앞에서 7단으로 밀집하게 접히고 오른쪽 어깨를 가린 옷자락은 어깨선에서 직선을 그리며 내려온다. 편평한 가슴에는 수직의 골이 표현되어 있다. 두 무릎 사이 옷주름은 4줄의 호선을 그리며, 허벅지 부분은 구불거리며 덮인다.

광배는 주형거신광이며 상부가 뾰족한 편이다. 두광은 한 줄의 양각 선으로 구분되며, 안쪽에 9개의 단판 연화문이 약하게 선각되어 있다. 두광의 바깥쪽으로 7구의 화불이 독특하게 본존과 동일 모양의 광배를 가지고 식물의 잎처럼 두광에 연결되어 있다. 이 불상은 광배의 화불 표현이 특이하다.

영은사 불상은 높은 육계와 강조된 어깨, 그리고 밀집된 옷주름 표현 등에서 고려전기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광배의 7구 화불이나 양 무릎 사이 호선의 옷주름은 일부 고식(古式)을 따른다. 주형광배의 형식미는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4호)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은 형식화된 고려전기 불상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 담양 영은사 석조여래좌상
(사진 이영범, 2013년)

□

ㅇ 현　　상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 석조여래좌상과 주형(舟形) 거신광배가 한 돌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상호는 원만하며 소발의 높은 육계가 특징적이다. 어깨는 넓고 허리부분까지의 신체는 방형의 형태를 보여준다. 편단우견의 법의를 입고 있으며 옷 주름은 형식화되어 있다. 왼쪽 무릎 부분은 일부 파손되어 있으며 결가부좌한 다리위에 올린 왼손 바닥은 상대적으로 깊이 패여 있는데 후대의 훼손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ㅇ 내용 및 특징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광배에는 이 불상과 같은 모양의 광배를 갖춘 화불 7구가 조각되어 있다. 특히 돋을새김 되어 있는 원형의 두광과 화불이 양각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은 주목된다.

주지 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원래 위치는 현 영은사 남쪽에 위치한 산자락 위쪽 이다. 현재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은 대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영은사 남쪽, 석불좌상이 발견된 지점을 발굴조사하면 대좌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은사 석조여래좌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영암 도갑사 석불좌상(보물 제84호)을 모방하고자 한 의도가 역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나말여초에 유행한 통일신라·고려초기의 불상양식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의 장인들이 제작한 불상으로 볼 수 있다.